

슬기로운 처녀의 비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 25:6)

“불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20)

목 차

1. 하나님은 말세에 성육신하신 인자로 나타나 사역하신다

1)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자로 나타나 사역할 것임을 직접 예언하셨다

2) 성육신이란? 그 본질은 무엇인가?

3) 성육신의 역사와 영의 역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4) 하나님은 말세 심판 사역을 왜 사람을 사용하여 하지 않고 성육신하여 직접 하셔야 하는가?

5) 왜 패괴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는가?

6) 왜 두 번의 성육신으로 성육신의 의의가 완전해졌다고 하는가?

7) 그리스도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란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8)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심판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인류가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시대, 사탄이 통치하는 흑암의 시대를 끝내시는가?

설교 내용 추가

질문(1)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인자로 성육신하여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계의 많은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고 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11), “불찌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계 1:7)라는 이 성경 말씀들에 근거한 거죠. 또 교계의 목회자들은 우리에게 구름을 타고 강림하지 않는 예수는 다 가짜이기에 저버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이 성경에 부합되는지, 올바른 인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2)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지만 성육신의 진리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주께서 재림 때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인자로 나타나 사역하시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사람이 없을 것이며,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육신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질문(3) 말세에 하나님은 왜 인자로 성육신하셔서 심판 사역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체와 성육신하신 인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4) 율법시대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말세의 심판 사역은 사람을 쓰지 않고 반드시 친히 성육신하셔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질문(5) 패괴된 인간은 왜 반드시 성육신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하는지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 교제 부탁드립니다.

질문(6) 은혜시대,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어 사람을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또다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며 심판 사역으로 사람을 철저히 정결케 하고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두 번이나

성육신하여 인류 구원 사역을 하십니까? 두 번의 성육신이 갖는 진정한 의의는 무엇일까요?

질문(7) 하나님은 두 번 성육신하시면서 그리스도가 곧 진리, 길 생명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곧 진리, 길 생명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질문(8) 말세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하나님나라 시대를 여시고 사탄이 통치하던 옛 시대를 끝내셨다고 증언하는 여러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 사역으로 인류가 막연한 하나님을 믿던 시대와 사탄이 통치하던 어둠의 시대를 끝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2.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계획-3 단계 사역

1) 하나님은 왜 인류 구원 사역을 하시는가?

2) 인류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3 단계 사역의 근본 취지

3) 율법시대 하나님 사역의 목적과 의의

4) 은혜시대 하나님 사역의 목적과 의의

5) 하나님의 말세의 심판과 형벌의 사역이 진정 인류를 구원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역이다

6) 하나님의 각 단계 사역 간의 관계

7) 하나님은 3 단계 사역에 어떻게 깊이를 더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시는가?

8) 하나님의 3 단계 사역이 인류를 구원하는 완전한 사역임을 알아야 한다

1. 하나님은 말세에 성육신하신 인자로 나타나 사역하신다

1)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자로 나타나 사역할 것임을 직접 예언하셨다

성경 참고: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눅 12:40)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마 24:37)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마 24:27)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뜻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찌니라”(눅
17:24~25)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마 25:6)

“불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 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회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것 같더라”(계 1:12~16)

관련된 하나님 말씀:

『예수는 자신이 왔던 그대로 온다고 했다. 너는 그 말의 진의를 아느냐? 그가 너희에게
알려 주기라도 했던 말이냐? 너는 단지 그가 흰 구름을 타고 왔던 그대로 온다는 것만 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알 수 있느냐? 네가 정말 그것을 안다면 “말세에
인자가 올 때는 인자 자신도 모르고 천사들도, 하늘의 사자들도 모르며 모든 사람 또한
모르고 오직 아버지, 즉 영만 아시느니라”라고 했던 예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인자 자신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알 수 있고 직접
볼 수 있다면, 그 말씀은 허사가 되지 않겠느냐? 예수는 당시에 어떻게 말했느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하였다. 그날이 와도 인자조차 알지 못한다. 인자라 함은
하나님이 입은 육신으로,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을 뜻한다. 인자도 알지 못하는 것을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사역 이상 3> 중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오늘날 너희는 성령의 말씀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는데, 너희는 들었느냐? 하나님은 말세에 말씀 사역을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곧 성령이며, 또한 하나님은 성육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야기했던 성령의 말씀이 바로 오늘날 성육신한 하나님이 한 말씀이다. 많은 그릇된 자들은 성령의 말씀이라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사람이 듣게 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사실, 성령의 말씀이란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한 말씀을 가리킨다. 성령이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율법시대에도 여호와가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거늘, 하물며 오늘날 이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여 사역하려면 반드시 성육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사역은 목적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성육신했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영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역 원칙을 모르는 사람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을 ‘관념’으로 규정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중에서

『수천 년 동안, 사람은 줄곧 구세주의 강림을 보기를 소망해 왔다. 구주 예수가 수천 년 동안 그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 왔던 사람들 가운데 흰 구름을 타고 친히 강림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해 온 것이다. 사람은 또한 구세주가 돌아와 사람들과 재회하기를 소망했다. 바로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을 떠난 구주 예수가 다시 돌아와 유대인 가운데서 했던 구속 사역을 또 행하면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사람의 죄를 사해 주고 대신 짊어지며, 심지어 사람의 모든 과오를 대신 짊어지고 죄에서 구원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구주 예수가 한결같이 사랑스럽고 친절하며 존경스러운 구세주가 되어 사람에게 노하지도 않고 사람을 책망하지도 않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대신 짊어지며 심지어 사람을 위해 예전처럼 십자가에서 죽기를 소망했다. 예수가 떠난 후,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물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까지 그를 그렇게 간절히 그리워하고 갈망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시대의 모든 사람은 구주 예수가 기쁨이 넘치는 말세의 어느 날에 흰 구름을 타고 사람들 가운데 강림하여 만민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했다. 물론, 이 또한 오늘날에 구주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소망하는 바이다. 온 우주에서 구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홀연히 강림하여 그가 세상에 있을 때 했던 “나는 떠난 그대로 다시 돌아오리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후 흰 구름을 타고 하늘 위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으로 돌아간 것처럼, 여전히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유대인의 옷을 입은 채 흰 구름(흰 구름은 예수가 하늘로 돌아갈 때 탄 흰 구름을 가리킴)을 타고 수천 년간 그를 애타게 기다려 온 인류 가운데 강림할 것이라고 여긴다. 또한, 그들에게 나타나 양식을 베풀어 주고 생수가 솟게 하며, 은혜와 자비로 충만한 예수가 사람들 눈앞에서 생생하게 생활할 것이라고 여긴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관념적 생각이다. 하지만 구주 예수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관념과 완전히 상반되게 하였다. 그는 자신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강림하지 않았고, 흰 구름을 타고 만민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가 이미 강림했지만, 사람은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강림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하염없이 그를 기다리고만 있다. 그가 이미 ‘흰 구름’(여기서 흰 구름은 그의 영광 그의 말씀, 그리고 그의 모든 성품과 어떠함을 가리킴)을 타고 말세에 온전케 하려는 이기는 자들 가운데 강림한 것을 어찌 모르는 것이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구주’는 이미 ‘흰 구름’을 타고 돌아왔다> 중에서

『진리와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성육신한 하나님, 전능자의 이름 아래로 돌아올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더 많고 더 높은 진리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진정한 인생을 얻을 수 있고, 이전 사람이 못 봤던 이상(異象)을 볼 수 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 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계 1:12~16) 이 이상이 바로 하나님이 지닌 모든 성품의 발현이며, 또한 이 모든 성품의 발현이 바로 이번에 성육신한 하나님의 사역의 발현이다. 계속되는 형벌과 심판 속에서 인자는 음성을 발하여 말씀하는 방식으로 고유 성품을 나타냄으로써 형벌과 심판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인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 모습이 바로 요한이 본 인자의 진실한 모습이다(물론 하나님나라시대의 하나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이를 전혀 볼 수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서문> 중에서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분명 멸망될 부류이며, 육신으로 돌아온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분명 지옥의 자손, 천사장의 후손, 영원히 멸망될 부류이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따르는, 이른바 성도라고 하는 모든 이에게 말해 주겠다. 흰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강림하는 예수를 너희 육안으로 직접 보게 될 때는 공의로운 해가 공개적으로 나타난 때이다. 그때 네 마음은 몹시 흥분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알고 있느냐? 예수가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을 보게 될 때는 네가 지옥으로 떨어져 징벌을 받아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끝났다고 선고될 때이며, 하나님이 상선벌악(賞善罰惡)할 때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이적을 보기 전 진리만 선포되었을 때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이적을 좇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여 정결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창조주의 품속에 안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흰 구름을 탄 예수가 아니라면 거짓 그리스도이다’라는 신념을 고집하는 자들은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적을 행하는 예수만을 믿고,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고 생명의 참도를 전하는 예수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가 공개적으로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올 때 그들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그들은 너무나 완고하고 너무나 교만하며 자신을 과신하는데, 그런 인간 말종들이 어찌 예수에게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의 재림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구원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정죄받는 기호가 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의 길을 택해야 한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진리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말고,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네가 예수의 영체를 볼 때는 하나님이 이미 하늘과 땅을 새롭게 바꾼 후이다> 중에서

2) 성육신이란? 그 본질은 무엇인가?

성경 참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요 14:9~11)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30)

관련된 하나님 말씀: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을 일컫는다. 즉,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들 가운데서 육신의 형상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육신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먼저 육신, 그것도 정상 인성을 갖춘 육신이 필요하다. 이것은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함의는 육신으로 사역하고 육신으로 생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본질이 육신이 되고 사람이 된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육신’의 본질> 중에서

『정상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정상 인성과 정상적인 이성, 정상적인 사유를 가진 육신으로 실체화한 것이다. ‘실체화’란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영이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이 정상 인성을 지닌 육신에 거하면서 그 육신을 통해 신성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체화’, 즉 말씀이 육신 된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육신’의 본질> 중에서

『성육신의 의의는 평범하고 정상적인 한 사람이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하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성으로 신성의 사역을 하며, 이를 통해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다.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육신 된 것, 즉 하나님이 육신 된 것이다. 육신이 하는 사역은 곧 영이 하는 사역이다. 영이 하는 사역은 육신을 통해 실체화되고, 육신을 통해 발현된다.』

하나님이 거하는 육신 외에는 누구도 성육신 하나님의 직분을 대신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정상 인성만이 신성 사역을 나타낼 수 있고,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 만일 하나님이 처음 성육신했을 때 29 세 이전까지 정상 인성이 없고, 태어나자마자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세상의 모든 일을 꿰뚫어 보며, 말을 때자마자 천상의 말씀을 하고, 사람의 생각과 품고 있는 마음을 모두 알 수 있었다면, 이런 사람은 정상인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육신은 육신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성육신의 의의와 본질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에게 정상 인성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성육신’ 하나님임을 증명한다. 그가 정상인의 성장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더더욱 그의 육신이 정상적이었음을 말해 준다. 또한 그의 사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영’이 ‘육신’ 된 존재임을 충분히 보여 준다. 하나님은 사역의 필요로 인해 육신이 되었다. 다시 말해, 그 단계의 사역은 반드시 육신, 즉 정상 인성을 통해 해야 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의 전제 조건이며, 두 차례에 걸친 성육신의 실상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육신’의 본질> 중에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함의는 육신으로 사역하고 육신으로 생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본질이 육신이 되고 사람이 된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의 삶과 사역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직분을 이행하기 전의 삶이다. 일반인의 가정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인성으로 살며,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 윤리와 법칙, 정상적인 필요(의식주 등), 정상적인 연약함과 정상인의 회로애락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신성이 아닌 완전히 정상적인 인성으로 살면서 정상인들이 하는 모든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한 후의 삶이다. 이때도 여전히 정상 인성의 외형을 지닌 평범한 인성으로 살며, 겉모습에는 조금도 초자연적인 부분이 없지만,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 살아간다. 이때의 정상 인성은 오로지 신성의 사역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정상 인성이 이미 직분을 이행할 수 있는 인성으로 성숙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단계의 삶은 정상 인성으로 직분을 이행하는 삶이자, 정상 인성과 완전한 신성의 삶이다. 첫 번째 단계의 삶이 완전히 평범한 인성으로 사는 삶인 이유는 그때의 인성이 신성의 모든 사역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았으며, 인성이 성숙해질 때까지, 즉 직분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인성으로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그가 이행해야 할 직분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신인 이상,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의 삶은 그저 정상 인성의 삶에 불과하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의 삶은 인성으로 사역을 충분히 담당하고 직분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삶이다. 그러므로 성육신 하나님이 직분을 이행하는 기간의 삶은 바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의 삶이다. 만약 성육신 하나님이 태어나자마자 본격적으로 직분을 이행하고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만 행한다면, 육신의 본질은 없어진다.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의 인성은 육신의 본질을 위해 존재하고, 인성이 없는 육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성이 없는 사람은 비인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듯, 육신의 인성은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고유한 속성이 되었다. 만약 누군가가 “성육신 하나님께는 신성만 있고 인성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모독이다. 이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성육신의 원칙과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는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한 후에도 여전히 인성의 옷을 입은 신성으로 살며 사역한다. 다만, 이때의 인성은 오로지 신성이 정상 육신에서 사역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역사하는 것은 인성 안에 있는 신성이다. 즉, 신성으로 사역하는 것이지 인성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신성은 인성에 가려져 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인성이 아닌 완전한 신성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단, 역사하는 것은 육신이며, 이 육신을 사람이라고도,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되고, 사람의 외형과 본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본질을 지닌 사람이기에 창조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높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높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외형을 지닌 사람들 가운데, 인성을 지닌 모든 사람 가운데 오직 그만이 성육신한 하나님 자신이며, 그 외에는 모두 창조된 인류인 것이다. 똑같이 인성을 갖추고 있지만, 창조된 사람은 인성 말고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성육신 하나님은 다르다. 그의 육신에는 인성 말고도 무엇보다 중요한 신성이 있다. 인성은 육신의 외관으로 알아볼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도 있지만, 신성은 쉽게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는다. 신성은 인성이 있는 전제하에 나타나며, 사람의 상상처럼 그렇게 비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신성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장 측량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많은 말을 했음에도 너희 대다수는 이에 대해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했다고 하면 그의 본질은 인성과 신성의 결합체이다. 이 결합체를 하나님 자신이자 땅의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육신’의 본질> 중에서

『예수가 사역한 기간에 사람은 하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아주 많이 보았다. 예를 들면, 그가 춤을 추고, 혼인 잔치에 참석하고,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고, 혹은 어떤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등의 모습이었다. 이와 함께 예수는 신성을 대표하는 사역도 많이 행하였다. 물론, 이러한 사역은 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발현된 것이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의 신성이 정상적인 육신에 실체화됨으로써 사람은 그를 보거나 만질 수 있었고, 또한 더 이상 하나님을 홀연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존재, 가까이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반면에 사람은 인자의 일거수일투족, 인자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었다. 성육신한 인자는 인성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고, 아울러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람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영계의 하나님을 사람에게 보여 주었다. 사람이 본 것은 형상을 지니고 뼈와 살이 있는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러므로 성육신한 인자는 하나님 자신의 신분, 지위, 형상, 성품, 소유와 어떠함 등등을 구체화하고 인간화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인자의 겉모습은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인자의 본질과 소유와 어떠함은 하나님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완벽히 대변할 수 있었다. 단지 발현되는 형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인자의 인성이든 아니면 신성이든, 그가 하나님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대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단지 하나님이 그 기간에 육신의 방식으로 사역하고, 육신의 위치에서 말씀했으며, 인자의 신분으로, 인자의 위치에서 인류를 마주했을 뿐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실제로 말씀하고 사역하는 것을 접하고 체험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을 지극히 낮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높고 큼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진실함과 실재에 대해 초보적으로 알게 되었고, 초보적인 정의도 내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예수가 행한 사역과 그의 사역 방식, 말씀할 때의 위치는 영계에 있는 하나님의 참모습과 다소 다를지라도, 그의 모든 것은 사람이 본 적 없는 하나님 자신을 한 치 오차도 없이 대변하였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든, 어떤 위치에서 말씀하고 어떤 형상으로 사람을 마주하든, 하나님이 대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일 뿐이다. 그는 그 어떤 사람, 패괴된 인류 중의 그 어떤 사람도 대표할 리 없다. 하나님 자신은 곧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비록 성육신 하나님이 겉으로는 사람과 다르지 않고, 또 사람의 지식을 배우고 사람의 언어를 쓰며, 심지어는 사람의 방식과 화법을 빌려 그의 뜻을 표현할 때가 있다고 해도, 그가 인류를 대하고 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패괴된 인류와 결코 같지 않다. 게다가 그가 서 있는 위치와 차원은 패괴된 인류 중 누구도 닿을 수 없다. 하나님은 진리이므로 그가 입고 있는 육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갖추고 있으며, 그의 생각과 인성이 나타내는 것 역시 전부 진리이다. 패괴된 인류에게 있어, 하나님의 육신이 선포하는 것은 다 진리의 공급이자 생명의 공급이며, 이는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공급이다. 패괴된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관련된 몇몇 사람만을 마음에 수용할 수 있고, 관심을 갖고 걱정하는 이도 단지 몇몇에 지나지 않는다. 재난이 닥치면 먼저 자기 집의 아이들과 배우자, 부모만을 생각한다. 비교적 ‘넓은 사랑’을 가진 사람도 고작 어느 친척이나 친한 친구를 생각할 뿐이다. 이보다 더 많은 이를 떠올릴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리 없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람의 위치와 차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은 육신은 패괴된 인류와 완전히 다르다. 그 육신이 아무리 평범하고 정상적이며 보잘것없어 보여도, 심지어 사람에게 아무리 멸시를 당해도, 그의 마음과 인류에 대한 태도는 그 어떤 사람도 갇출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다. 그는 언제나 신성의 위치에서, 창조주의 차원에서 인류를 관찰하고, 하나님의 본질과 마음으로 인류를 대한다. 그는 절대 평범한 사람의 차원이나 패괴된 사람의 관점으로 인류를 대하지 않는다. 사람은 사람의 안목으로, 사람의 지식과 규칙, 학설 등을 평가 기준으로 인류를 바라본다. 이런 것은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고 패괴된 인류가 이를 수 있는 범주이다. 반면, 하나님이 인류를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각과 본질, 소유와 어떠함을 평가 기준으로 삼으며, 이 범주는 사람이 볼 수 없는 범주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입은 육신과 패괴된 인류의 확연히 다른 점이다. 이 차이는 각자의 본질로 말미암아 결정된 것이고, 본질의 차이는 각자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사물을 대하는 관점과 차원을 결정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성육신 하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이며, 이 육신은 육에 속한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르다. 다르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육에 속하지 않은, 영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정상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갖고 있으며, 그의 신성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다. 그의 정상 인성은 육신으로 하는 모든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신성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인성이든 신성이든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 그리스도의 본질은 영이자 신성이기에 그의 본질이 곧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다. 그 본질이 그의 사역을 방해할 리 없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망치는 일도, 자신의 뜻에 위배되는 말도 할 리가 없다. 그렇기에 성육신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경영을 방해하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누구나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할 점이다. 성령 역사의 본질은 인류 구원과 하나님 자신의 경영을 위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역 역시 인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한 이상 그의 본질을 육신에 실체화하여 육신이 충분히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 그러므로 성육신한 기간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 영의 모든 사역을 대신하고, 성육신 기간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핵심으로 하며, 다른 어떤 시대의 사역도 섞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육신한 이상 육신의 신분으로 사역하며, 육신으로 온 이상 육신에서 그가 해야 할 사역을 완성한다. 하나님의 영이든 그리스도든 어쨌든 모두 하나님 자신이므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하고 직분을 다한다.

하나님의 본질은 그 자체로 권병을 지니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권병에서 나온 모든 것에 순종할 수도 있다. 영의 사역과 육신의 사역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은 만물에 대한 권병을 지니고, 하나님의 본질이 있는 육신 역시 권병을 지니고 있지만,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이를 수 없고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권병이지만, 그의 육신은 그의 권병에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는 말에 내포된 의미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할 수 있고, 사람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교란하지 않으며, 모순되는 사역은 더욱 하지 않는다. 영과 육신이 하는 사역의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이든 육신이든 모두 같은 뜻을 이루려 하며, 같은 사역을 경영하기 때문이다. 비록 영과 육신이 서로 아무 상관 없는 두 가지 속성을 지닌다고는 하나 그 본질은 동일하다. 모두 하나님 자신의 본질과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에게는 패역의 성분이 없으며, 하나님의 본질은 선하다. 그는 모든 아름다움과 선함의 발현이자 모든

사랑의 발현이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일을 할 수는 없다.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감수하지, 다른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는다. 하나님에게는 독선적이거나 자만하는 성분이 없고, 오만 방자하거나 교활한 성분도 없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은 모두 사탄에게서 비롯된다. 사탄은 모든 추함과 악함의 근원이다. 사람이 사탄과 같은 속성을 갖게 된 이유는 사탄에 의해 패괴되고 가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탄에 의해 패괴되지 않았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속성만 있을 뿐, 사탄의 속성은 없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생활할 때 사역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의 육신이 아무리 연약해져도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며 거역하는 일은 더더욱 저지르지 않는다. 육신이 고통받을지언정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는 예수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과 같다. 사람에게서는 자신의 선택이 있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자신의 선택이 없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의 신분을 지니고 있다고는 하나 그는 똑같이 육신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준 사명을 완수한다. 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본질만 있을 뿐 하나님의 본질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존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지도 못한다. 그리스도를 제외한 사람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저지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직접 담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경영을 자신의 당연한 본분으로 삼아 이행할 수도 없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탄의 속성이다. 이 두 가지 속성은 공존할 수 없으므로 사탄의 속성을 가진 자를 그리스도라 부를 수는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본질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과 앞날을 위함이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은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육신이다. 하나님의 영은 지고지상하고 전능하며 거룩하고 공의롭다. 그러므로 그의 육신 역시 마찬가지로 지고지상하고 전능하며 거룩하고 공의롭다. 이 같은 육신은 오로지 공의로운 일, 인류에게 유익한 일, 거룩하고 빛나며 위대한 일만 할 수 있다. 진리와 도의에 어긋나는 일을 할 리 없고, 하나님의 영을 배반하는 일을 할 리는 더더욱 없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므로 그의 육신 또한 사탄에 의해 패괴될 수 없으며, 그것은 사람과는 다른 본질을 가진 육신이다. 사탄이 패괴시키는 것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며, 게다가 사탄은 하나님 자신의 육신을 패괴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과 그리스도가 같은 공간에서 살아도 사람만 사탄에게 점령되고, 이용당하고, 해를 입는 것이다. 반면 그리스도는 절대 사탄에게

패괴되지 않는다. 사탄은 영원히 가장 높은 곳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매우 심각한 문제 — 배반 2> 중에서

『하나님은 패괴된 사람을 구원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지만, 이 사역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 하나님이 입은 육신만이 할 수 있다. 이 육신은 사람이자 하나님이고, 정상 인성을 갖춘 사람이자 완전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또한 영과 크게 다르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이는 여전히 성육신 하나님 자신이고 또 영이자 육신이다. 호칭이 어떠하든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과 육신은 서로 떨어질 수 없고, 육신이 하는 사역은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다만 영의 신분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신분으로 사역할 뿐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패괴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 중에서

3) 성육신의 역사와 영의 역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성경 참고: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와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출 33:18~20)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출 19:20~22)

“못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출 20:18~19)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요 12:28~29)

관련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때 직접 영의 방식과 영의 신분으로 구원하지 않는다. 그의 영은 사람이 만질 수도, 볼 수도 없고 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영으로 직접 사람을 구원한다면 사람은 그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의 외형을 입지 않으면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아무도 여호와와 구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람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창조된 사람이 되어야만, 즉 그의 ‘도’를 그가 입으려는 육신에 채워야만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 ‘도’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다. 그래야만 사람이 직접 그의 도를 듣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그의 도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람은 비로소 완전히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면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지극히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면, 사람은 모두 죽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접촉할 수가 없어 사탄에게 철저히 사로잡힐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의 비밀 4> 중에서

『육신으로 사역하면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이 많지만 결국에는 영이 직접 사역하는 것보다 성과가 훨씬 더 크다. 육신으로 사역하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영과 같은 위대한 신분을 가질 수 없고, 영과 같은 비범한 행사가 있을 수도 없으며, 영과 같은

권병은 더더욱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욕신이 하는 사역의 본질은 영이 직접 하는 사역의 본질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 욕신 자체는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구원받는 사람에게 있어 영의 사용 가치는 욕신의 사용 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영의 사역은 우주 전체로 널리 퍼질 수 있고 산천 호수에 널리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욕신의 사역은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더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형상이 있는 욕신은 사람의 이해와 신뢰를 더 잘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에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의 실제 행사에 대해 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영의 사역은 매우 신비로워서 평범한 사람은 예측하기 어렵고, 눈으로 보기는 더욱 어려우며, 그저 터무니없이 상상할 뿐이다. 반면 욕신의 사역은 정상적이고 실제적일뿐더러 풍부한 지혜가 있으며, 평범한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다. 모두가 하나님이 사역하는 지혜를 직접 깨달을 수 있어 풍부한 상상을 펼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욕신으로 하는 하나님 사역의 정확성이자 실제적인 가치이다. 영은 단지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만 할 수 있다. 영의 깨우침, 영의 감동, 영의 인도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영의 이러한 사역들은 사고력을 가진 사람에게 명확한 뜻을 알려 줄 수 없고, 말로 분명하게 가리켜 줄 수 없으며, 그저 감동이나 대략적으로 비슷한 뜻만 줄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욕신으로 하는 사역은 이와 전혀 다르다. 욕신으로 사역하면 정확한 말씀의 인도, 명확한 뜻, 그리고 명확한 요구와 목표가 있으므로 사람이 모색할 필요도 없고 상상할 필요도 없으며 더욱이 추측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욕신으로 하는 사역의 명확성으로, 영의 사역과는 크게 다르다. 영의 사역은 일부 제한적인 범위에만 적합할 뿐, 욕신의 사역을 대신할 수 없다. 욕신이 사역하면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정확한 목표와 사람이 얻는 인식의 실제 가치는 영의 사역이 지니는 정확성이나 실제 가치를 크게 뛰어넘는다. 패괴된 사람에게는 정확한 말씀과 명확한 추구 목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역만이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이다. 현실적으로 사역하고 제때 인도해야만 사람의 기호에 맞출 수 있고, 실제적으로 사역해야만 사람을 패괴되고 타락한 성품에서 구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오직 성욕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성욕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패괴되고 타락한 옛 성품에서 구원할 수 있다. 영은 하나님의 고유한 본질이지만, 이런 사역은 오직 욕신으로만 할 수 있다. 오직 영이 단독으로 역사한다면 사역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말씀이 욕신으로 나타남 · 패괴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욕신’ 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 중에서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현현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영의 사역이 그저 감동이나 묵시를 줄 뿐이고, 또 신묘마측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신기한 느낌과 위대하고 비범하며 모든 사람이 우러르면서도 닿을 수 없고 이를 수 없는 느낌을 줄 뿐이다. 사람과 하나님의 영은 그저 아득히 멀리서 서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 마치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영원히 서로 갈아질 수 없는 것 같으며, 꼭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영에 대한 사람의 착각에 불과하다. 이런 착각은 그저 영과 사람이 같은 부류가 아니고 영과 사람이 절대로 같은 세계에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또 영은 사람이 가진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영이 아니다. 영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역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육신의 사역은 사람에게 실제적인 추구 목표와 명확한 말씀을 주고, 실제적이고 정상적이라는 느낌과 자신을 낮추고 평범하다는 느낌을 준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대다수 사람에게는 접촉하기가 상당히 쉽다. 사람은 그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므로 아득히 멀리서 서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 이 육신은 사람에게 아득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주고, 측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준다. 이는 이 육신이 사람과 같은 세계에 있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패괴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 중에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지 않았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말씀은 완전한 신성에서 비롯되었기에, 그 말씀을 할 때의 위치와 배경을 사람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 또한 사람이 볼 수 없는 영계에서 선포된 것이라 육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꿰뚫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육신한 후에는 영계에서 벗어나 인성의 각도에서 사람과 대화하게 되었다. 그는 사람의 관념 속 상상이나 사람이 삶 속에서 보고 접하는 일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과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또는 인류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 그의 신적 성품과 마음, 그의 태도를 전했다. 그리하여 사람이 이해 가능하고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과 요구 기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성으로 사역하는 방식과 원칙이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 방식과 원칙이 대부분의 경우 인성을 통해 이루어지긴 했지만, 오히려 신성으로 직접 사역해서는 얻기 힘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이제 사람은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이 확실히 평범하지 않으며, 많은 것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비밀이고 또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순종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에게도 복종한 적이 없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승복하게 되어 더는 연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말씀 속에서 쓰러지고 말씀의 심판 아래 엎드리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사람에게 말씀한다면, 사람은 모두 그 ‘음성’ 앞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 속에 엎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사람을 폭로하지 않아도 모두 엎드릴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사람은 영원히 말씀의 심판으로 자신의 패괴를 깨달아 구원받는 이 목적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성육신해야만 모든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전해 주어 귀 있는 자들이 다 그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심판 사역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말씀이 성과를 내는 것이지, 영으로 나타나 사람을 ‘놀라 쓰러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실제적이면서도 비범한 사역을

통해야만 사람의 깊은 곳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옛 성품을 완전히 들추어내어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변화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모두 성육신의 실제적인 사역이다. 실제로 말씀하고 실제로 심판함으로써 말씀으로 사람을 심판하는 성과를 거둔다. 이것이야말로 성육신 하나님의 권병이자 성육신의 의의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의 비밀 4> 중에서

『사탄의 영을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패괴되고 육에 속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 사역은 영계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행한다. 사람 육체의 패괴를 심판하는 사역은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해야만 가장 적합하고,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만이 가장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심판한다면 여러 면에서 빈틈없이 할 수 없고 사람이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영은 사람과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없고, 더욱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스를 수 없는 성품을 더 또렷하게 보여 줄 수도 없다. 오직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인류의 패괴를 심판해야만 사탄을 철저히 물리칠 수 있다. 똑같이 정상 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불의를 직접 심판할 수 있다. 이것은 그가 본래 거룩하고 남다르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지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심판할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진리와 공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 반면, 진리와 공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이 사역을 한다면 그것은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다. 영은 본래 육체를 지닌 존재보다 위대하며, 하나님의 영은 본래 거룩하고 육체를 능가한다. 영이 직접 이 사역을 하면 사람의 모든 패역을 심판할 수 없고, 사람의 모든 불의를 드러낼 수도 없다. 심판 사역도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관념을 통해 행하는 것인데, 사람은 본래 영에 대해 관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사람의 불의를 더 잘 드러낼 수는 없고, 더욱이 사람의 불의를 확실히 들추어낼 수도 없다. 성육신 하나님은 그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원수이다. 그는 그에 대한 사람의 관념과 대적을 심판함으로써 인류의 패역을 모두 들추어낸다. 육신이 하는 사역은 영이 하는 사역보다 더 뚜렷한 성과를 낸다. 그러므로 인류 전체를 심판하는 사역은 영이 직접 하지 않고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며, 사람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 사람은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다가 순종하고, 핍박하다가 받아들이고, 관념을 갖고 있다가 알게 되고, 저버리다가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 성과다. 사람은 모두 그의 심판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만 차츰 그를 알게 된다. 또 대적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정복되고, 그의 형벌을 받는 과정에서 그에게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된다.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영의 신분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패괴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 중에서

『육신으로 하는 사역의 가장 큰 장점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말씀과 당부를 남길 수 있고, 인류에 대한 그의 정확한 뜻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 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그가 육신으로 한 모든 사역과 전 인류에 대한 그의 뜻을 더 정확하고 실제적으로 전해 줄 수 있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니 비로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진정으로 실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이 친히 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소망을 실현하게 되었다. 성육신 하나님은 ‘인류에게 여호와와 닮은 모습만 보여 주던’ 시대를 끝내고, 인류가 막연한 하나님을 믿던 시대도 끝냈다. 특히 마지막으로 성육신한 하나님의 사역은 인류 전체를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아름다운 시대로 인도했다. 율법과 규례의 시대를 끝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하나님, 공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경륜 사역을 펼치고 인류의 비밀과 종착지를 보여 주는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고 경영 사역을 끝내는 하나님, 수천 년간 숨겨져 있던 하나님을 인류에게 공개하여 막연한 시대를 완전히 끝낸 것이다. 또한 전 인류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었던 시대와 사탄을 섬기던 시대를 끝내고, 전 인류를 새로운 시대로 완전히 인도해 들어갔다. 이런 사역은 모두 육신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대신하여 사역함으로써 거둔 성과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역을 해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시는 있는 듯 없는 듯한 것을 찾지 않게 되고, 다시는 막연한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한 사역을 확장할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가 육신으로 했던 모든 사역을 각 종교, 각 교파에 전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전 인류에게 전할 것이다. 또 그의 복음을 얻은 모든 사람은 그가 사역한 사실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직접 보고 들은 것으로, 뜬소문이 아닌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모두 그가 사역을 확장한 증거이자 사역을 확장하는 수단이다. 만일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의 복음이 모든 지역과 나라에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없고 단지 사람의 상상만 있다면 영원히 우주 전체를 정복하는 사역을 할 수 없다. 영은 사람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존재다. 영으로 사역하면 사람에게 더 많은 증거와 사역한 사실을 남길 수 없으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고, 영원히 막연하고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만 믿을 것이다. 또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친히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상상하는 것은 어쨌든 헛된 것이므로 결코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과 그 자신의 사역은 사람이 연기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들 가운데 와서 친히 사역해야만 하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사역을 땅에 옮겨 올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알게 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성육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패괴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 중에서

4) 하나님은 말세 심판 사역을 왜 사람을 사용하여 하지 않고 성육신하여 직접 하셔야 하는가?

성경 참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요 5:22~27)

관련된 하나님 말씀:

『심판 사역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라 당연히 하나님이 친히 해야 한다. 이 사역은 사람이 대체할 수 없다. 심판은 진리로 인류를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성육신의 형상으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 이 사역을 한다. 말하자면, 말세의 그리스도는 진리로 만방의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진리를 만방의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사역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그리스도는 진리로 심판의 사역을 한다> 중에서

『말세의 그리스도는 다방면의 진리로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의 본질을 폭로하며 사람의 언행을 분석한다. 그런 말씀에는 다방면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본분,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정상 인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 등등이 있다. 이런 말씀은 다 사람의 본질과 패괴 성품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는지를 폭로하는 말씀들은 사람이 원래 사탄의 화신이고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라는 점을 더더욱 겨냥해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는 심판 사역은 두세 마디 말로 사람의 본성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폭로하고 책망하며 훈계하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방식의 폭로와 책망, 훈계는 일반적인 언어로 대체할 수 없으며, 사람에게 전혀 없는 진리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어야 심판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심판이어야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으며,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탄복하고 하나님에 대해 진정으로 알게 할 수 있다. 심판 사역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알게 되고 패역의 진상에 대해 알게 된다. 심판 사역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사람이 알 수 없었던 비밀을 많이 이해하게 된다. 또한 사람의 패괴된 본질과 근원을 알게 되고, 사람의 추악한 몰골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사역 성과는 심판 사역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사실, 심판 사역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길과 생명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어 놓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는 심판 사역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그리스도는 진리로 심판의 사역을 한다> 중에서

『오늘 내가 너를 심판하는 이유는 너의 더러움 때문이며, 오늘 내가 네게 형벌을 가하는 이유는 너의 패괴와 패역 때문이다. 너희에게 위풍을 떨거나 일부러 너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러운 땅에 태어난 너희가 더러움에 너무 많이 물들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정말이지 인격도 인간성도 잃어버렸으며, 가장 더러운 곳에 태어난 돼지와 다름이 없다. 바로 너희의 이러한 점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에게 진노하는 것이다. 또 너희는 바로 이러한 심판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며 거룩한 하나님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거룩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에게 진노하는 것이다. 그는 사람의 패역을 보고 공의로운 성품을 나타내며, 사람의 더러움을 보고 거룩함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그가 바로 흠 없이 거룩한 존재이자, 또한 더러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자신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사람과 더불어 더러운 것을 좇는 자라면 그에게는 거룩함의 요소도, 공의로운 성품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불의를 심판할 자격도, 사람을 심판할 자격도 없다. 사람이 사람을 심판한다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 아니겠느냐? 똑같이 더러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더러운 전 인류를 심판할 수 있는 이는 오직 거룩한 하나님 자신뿐이다. 사람이 어찌 사람의 죄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또 어찌 사람의 죄를 볼 수 있겠으며,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사람의 죄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면 그가 어찌 공의로운 하나님 자신이겠느냐? 사람이 패괴 성품을 드러낼 때, 말씀으로 심판해야 사람에게 그가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두 번째 정복 사역은 어떻게 성과를 거두는가> 중에서

『육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성품을 변화시키려면 추구할 목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실제 행사와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오로지 하나님이 입은 육신만이 할 수 있고,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육신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필요성이며, 모든 패괴된 인류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요구하는 만큼 반드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들을 없애야 하고, 사람에게 패괴 성품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하는 만큼 반드시 먼저 이런 패괴 성품을 알게 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을 제거하기 위해 사람이 이 사역을 한다면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말로 들추어내고 벗겨 버리고 나아가 완전히 없앨 수 없다. 그렇게 하면 결국 사람에게 깊이 뿌리박힌 것을 없앨 수 없다. 오직 실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래 형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대신하여 사람이 차츰 깨닫게 해야만 원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사람이 지난날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즉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영의 직접적인 인도 때문이 아니고, 나아가 누군가의 가르침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성육신 하나님 덕분이다. 성육신 하나님의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모습과 사람의 상상 속에 있는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성육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는 사람의 관념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 성육신 하나님을 통해 부각해야만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관념이 모두 드러난다. 성육신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지 않는다면 사람의 관념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실제적인 것으로 부각하지 않으면 막연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역은

누구도 말로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말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 자신만이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을 뿐, 사람은 그 누구도 그것을 대신하지 못한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풍부해도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여 그의 형상과 어떠함을 모두 알려야만 사람이 그를 더 실제적으로 알 수 있고,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패괴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 중에서

『하나님은 전체 경륜의 사역을 모두 친히 행한다. 세상을 창조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친히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인류를 창조할 수 없는 것이다. 온 인류를 구속한 두 번째 단계도 하나님이 친히 한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끝을 맺는 사역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더더욱 그가 친히 해야 한다. 모든 인류를 속량하고, 정복하고, 얻고, 온전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신분을 대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도 없다.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 인류를 얻기 위해, 또 인류가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한다. 모든 경륜과 사역을 위해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행해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은 그저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 주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인식은 아무런 가치도, 의의도 없다. 그것은 너무나도 얕박한 인식이다!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친히 행해야만 이 사역을 철저히 완전하게 할 수 있다. 사람이 한다면 그를 대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고, 설사 한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 첫 번째 성육신은 속량을 위한 것, 즉 인류를 죄에서 속량해 정결케 하고 죄를 사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정복 사역 역시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친히 행한다. 이 단계에서 하는 것이 예언뿐이라면 예언가,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시켜도 그만이다. 예언만 한다면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 사역, 사람의 생명을 만드는 사역이라면 사람이 할 수 없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해야 하고, 성육신하여 친히 행해야 한다. 말씀의 시대에 예언만 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사역할 필요 없이 이사야나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 시키면 된다. 그러나 이 단계의 사역은 예언에 그치지 않으며, 말씀 사역으로 인류를 정복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사역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해야 한다. 율법시대에 여호와와 일부 사역만을 행한 후, 선지자를 통해 약간의 말씀과 사역을 했다. 사람이 그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언가는 하나님을 대신해 예언을 말하고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 당시의 사역은 직접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었고, 사람의 죄와 무관했으며, 사람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그래서 여호와와 성육신하여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직접 모세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하려는 말씀과 행하려는 일을 하게 하고, 직접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게 했다. 첫 단계 사역은 사람을 인도하는 것으로,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것은 아니었다. 사탄과 본격적으로 싸운 것은 첫 번째 성육신 때부터

지금까지이다. 첫 번째의 싸움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사탄을 물리치고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직접 사람의 생명을 만들게 되면서부터 사람을 되찾아 오는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역은 사람의 옛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기에 사탄과 싸우는 사역이다. 여호와가 처음에 행한 사역은 그저 인류가 땅에서 살도록 인도한 것으로, 사역의 시작이었다. 그것은 그 어떤 싸움이나 큰 사역과도 관계가 없었지만, 훗날 싸울 사역을 위한 기반 다지기였다. 두 번째 단계인 은혜시대의 사역은 사람의 옛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 즉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생명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해야 했고, 반드시 직접 성육신해야 했다. 그 단계의 사역은 성육신한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다. 그것은 직접 사탄과 대결하는 사역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그 사역을 대신하여 하게 하면 사탄과 마주했을 때 사탄이 굴복하지 않으므로 물리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탄을 물리쳐야 한다.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은 여전히 하나님이고, 또한 사람의 생명이자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신분과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사역하여 사탄을 철저히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 마지막 단계의 사역을 사람에게 맡겨 직접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도 사람은 하지 못한다. 예언만으로는 사람을 정복할 수 없으므로 성육신을 통해 사탄을 물리치고 철저히 굴복시켜야 한다.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고 사람을 완전히 정복한 후 얻으면, 이 단계 사역은 끝이 난다. 즉, 대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의 경영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 특히 시대를 이끄는 사역과 새로운 사역을 여는 일은 더더욱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해야 한다. 사람에게 계시와 예언을 주는 것 등은 사람이 대신하여 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하려는 사역, 사탄과 직접 싸우는 사역은 사람에게 시키지 않는다. 사탄과 싸우지 않은 첫 단계 사역에서 여호와는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전했고, 또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사탄과 싸우는 두 번째 단계 사역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성육신하여 육신을 입고 사역했다. 사탄과의 싸움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성육신과도 관련된다. 다시 말해, 사탄과의 싸움은 사람에게 시킬 수 없으며, 사람은 싸워 봤자 사탄을 물리치지 못한다. 사람이 아직 사탄의 권세하에 있는데 어떻게 사탄과 싸울 힘이 있겠느냐? 사람은 본래 중립적인 존재로, 사탄 쪽으로 기울면 사탄에 속하고, 하나님을 만족게 하면 하나님께 속한다. 그러니 이런 싸움의 사역을 사람이 대신하여 하게 한다면 할 수 있겠느냐? 그랬다면 진작에 목숨을 잃지 않았겠느냐? 이미 오래전에 황천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여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이 없기에 사탄과 싸우면 사탄을 물리치지 못한다. 사람이 일부 사역을 할 수 있고 일부 사람들을 구슬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대신하여 할 수는 없다. 사람이 어떻게 사탄과 싸울 수 있겠느냐? 싸우기도 전에 사탄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사탄과 싸울 수 있다. 사람은 그것을 기초로 따르고 순종해야만 하나님께 얻어져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람은 지혜와 능력, 그리고 도달할 수 있는 수준에 한계가 있기에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

사람은 사람을 인도하지 못하며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사람의 총명과 지혜가 사탄의 계략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탄과 싸울 수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람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사람을 아름다운 종착지로 이끌어 간다> 중에서

5) 왜 파괴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는가?

관련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때 직접 영의 방식과 영의 신분으로 구원하지 않는다. 그의 영은 사람이 만질 수도, 볼 수도 없고 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영으로 직접 사람을 구원한다면 사람은 그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의 외형을 입지 않으면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아무도 여호와와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람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창조된 사람이 되어야만, 즉 그의 ‘도’를 그가 입으려는 육신에 채워야만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 ‘도’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다. 그래야만 사람이 직접 그의 도를 듣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그의 도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람은 비로소 완전히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면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지극히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면, 사람은 모두 죽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접촉할 수가 없어 사탄에게 철저히 사로잡힐 것이다. 첫 번째 성육신은 죄에서 사람을 속량했다. 이는 예수의 육신으로 사람을 속량해 온 것, 즉 사람을 십자가에서 구해 낸 것이다. 하지만 사람 안에는 여전히 사탄의 파괴 성품이 존재했다. 두 번째 성육신은 더 이상 속죄 제물이 되지 않고, 죄에서 속량해 온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한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완전히 정결케 되고, 성품이 변화됨으로써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야만 사람이 완전히 성결해질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의 비밀 4> 중에서

파괴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 전편 발췌)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그의 사역 대상이 사탄의 영도 아니고, 육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며, 사탄에 의해 파괴되고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육체가 파괴되었기에 하나님이 육에 속한 사람을 자신의 사역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더욱이 사람이 파괴된 대상이기에 하나님이 어느 단계의 구원 사역을 하든 사람을 자신의 유일한 사역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사람은 육체를 지닌 평범한 존재로 육에 속하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이 더 좋은 결실을 얻으려면 사람과 같은 속성을 가진 육신이 되어 사역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육에 속하는 데다가 죄를 이기는 능력과 육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육신이 되어 사역해야 한다.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과 신분이 사람의 본질, 신분과는 크게 다르지만 그의 겉모습은 사람과 같다. 그는 정상인의 외모를 지녔고 정상 인성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에게서 정상인과 다른 점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그는 이 정상적인 외모와 정상 인성만으로도 충분히 정상 인성 안에서 행하는 신성의 사역을 할 수 있다. 그의 육신은 그가 정상 인성 안에서 행하는 사역에 이롭고,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사역에 이롭다. 또 그의 정상 인성은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구원 사역에 더욱 이롭다. 비록 그의 정상 인성이 사람들 가운데서 적잖은 풍파를 일으키겠지만 그것은 그의 사역이 정상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데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요컨대, 그가 정상적인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은 사람에게 크나큰 도움이 된다. 많은 사람이 그의 정상 인성을 받아들이지 못해도 그의 사역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또한 이 성과가 정상 인성을 통해 이뤄진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가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은 사람이 그의 정상 인성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의 10 배, 수십 배를 훨씬 넘는 것을 얻게 한다. 그런 관념들은 결국 그가 행하는 사역에 모두 파묻히고, 사역이 거두는 성과, 즉 그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그에 대한 관념보다 훨씬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가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은 상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이다. 그의 육신은 육에 속한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외형은 같아도 본질은 전혀 다르다. 사람은 그의 육신으로 인해 하나님에게 수많은 관념을 갖게 되었지만, 그의 육신은 또 사람이 수많은 인식을 얻게 할 수 있다. 심지어 그의 육신은 그와 외형이 비슷한 그 어떤 사람이든 정복할 수 있다. 그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외형을 가진 하나님이기에 누구도 그를 완전히 측량할 수 없고 완전히 알 수도 없다. 사람들은 모두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러르고 환영한다. 만일 하나님이 그저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일 뿐이라면 사람은 아주 쉽게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또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상상할 수 있고, 자기 마음의 즐거움과 유쾌함을 위해 자기가 좋아하는 형상을 마음대로 골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면 사람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자신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자신에게 가장 바라는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모두가 자신만이 ‘하나님’에게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경건한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은 이방의 개이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막연함과 도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추구하며, 대동소이하여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각자 상상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를 뿐, 그 본질은 모두 같다.

사람은 모두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제멋대로 하나님을 믿고, 또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이것은 ‘인권의 자유’로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 사람이 믿는 대상은 모두 자신의 하나님이니 남의 하나님이 아니며, 사람의 사유 재산이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사유 재산을 갖고 있다. 이 재산이 사람에게서는 보배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오히려 가장 비천하고 가치 없는 것이다. 사람의 이 사유 재산이 바로 하나님과 가장 뚜렷하게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사역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질 수도 볼 수도 있는, 형상이 있는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영이 아니라 사람이 접촉할 수 있고 볼 수도 있는 육신이다. 하지만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대부분 형상은 없지만 자유로운 형상이 있는, 육신이 아닌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대다수 사람들의 원수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육신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이 되었다. 사람에게 관념이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 때문이 아니고 사람의 패역 때문도 아니라, 사람의 이 사유 재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이 재산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믿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막연한 하나님이 사람의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성육신 하나님도 아니고 더욱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도 아닌, 사람 스스로 상상한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을 끊은 것이다. 성육신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 이유는 전적으로 파괴된 사람의 필요 때문이다. 이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이 모든 대가와 고통은 인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는 득실과 보답이라는 말이 없다. 그가 얻는 것은 그가 나중에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가 인류를 위해 행한 모든 것과 지불한 모든 대가는 더 많은 보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인류를 위한 것이다. 육신으로 사역하면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이 많지만 결국에는 영이 직접 사역하는 것보다 성과가 훨씬 더 크다. 육신으로 사역하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영과 같은 위대한 신분을 가질 수 없고, 영과 같은 비범한 행사가 있을 수도 없으며, 영과 같은 권병은 더더욱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육신이 하는 사역의 본질은 영이 직접 하는 사역의 본질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 육신 자체는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구원받는 사람에게 있어 영의 사용 가치는 육신의 사용 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영의 사역은 우주 전체로 널리 퍼질 수 있고 산천 호수에 널리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육신의 사역은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더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형상이 있는 육신은 사람의 이해와 신뢰를 더 잘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에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의 실제 행사에 대해 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영의 사역은 매우 신비로워서 평범한 사람은 예측하기 어렵고, 눈으로 보기는 더욱 어려우며, 그저 터무니없이 상상할 뿐이다. 반면 육신의 사역은 정상적이고 실제적일뿐더러 풍부한 지혜가 있으며, 평범한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다. 모두가 하나님이 사역하는 지혜를 직접 깨달을 수 있어 풍부한 상상을 펼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육신으로 하는 하나님 사역의 정확성이자 실제적인 가치이다. 영은 단지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만 할 수 있다. 영의 깨우침, 영의 감동, 영의 인도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영의 이러한 사역들은 사고력을 가진 사람에게 명확한 뜻을 알려 줄 수 없고, 말로 분명하게 가리켜 줄 수 없으며, 그저 감동이나 대략적으로 비슷한 뜻만 줄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은 이와 전혀 다르다. 육신으로 사역하면 정확한 말씀의 인도, 명확한 뜻, 그리고 명확한 요구와 목표가 있으므로 사람이 모색할 필요도 없고 상상할 필요도 없으며 더욱이 추측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의 명확성으로, 영의 사역과는 크게 다르다. 영의 사역은 일부 제한적인 범위에만 적합할 뿐, 육신의 사역을 대신할 수 없다. 육신이 사역하면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정확한 목표와 사람이 얻는 인식의 실제 가치는 영의 사역이 지니는 정확성이나 실제 가치를 크게 뛰어넘는다. 파괴된 사람에게는 정확한 말씀과 명확한 추구 목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역만이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이다. 현실적으로 사역하고 제때 인도해야만 사람의 기호에 맞출 수 있고, 실제적으로 사역해야만 사람을 패괴되고 타락한 성품에서 구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오직 성육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성육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패괴되고 타락한 옛 성품에서 구원할 수 있다. 영은 하나님의 고유한 본질이지만, 이런 사역은 오직 육신으로만 할 수 있다. 오직 영이 단독으로 역사한다면 사역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육신으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해도, 이 육신이 자신의 사역을 끝낼 때면 그와 적대 관계였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증인이 될 것이며, 그에게 정복된 증인이 되고, 그와 합하여 헤어지기 힘든 증인이 될 것이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으로 하는 사역이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육신이 사람의 생존 의의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또 사람의 생명 성장에 있어 육신이 가진 실제 가치를 알게 되고, 더욱이 이 육신이 사람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하나님의 신분이나 지위와 크게 다르고, 사람이 보기에 그의 실제 신분에도 걸맞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본래 형상을 지니지 않고 본래 신분도 없는 이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 하지 못하는 사역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한 본래의 의의와 가치다. 하지만 사람은 이 의의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한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영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육신을 내려다본다. 사람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든 육신의 실제 의의와 가치는 영의 실제 의의와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다. 물론 이것은 패괴된 인류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다.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현현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영의 사역이 그저 감동이나 묵시를 줄 뿐이고, 또 신묘막측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신기한 느낌과 위대하고 비범하며 모든 사람이 우러르면서도 닿을 수 없고 이를 수 없는 느낌을 줄 뿐이다. 사람과 하나님의 영은 그저 아득히 멀리서 서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 마치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영원히 서로 갈아질 수 없는 것 같으며, 꼭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영에 대한 사람의 착각에 불과하다. 이런 착각은 그저 영과 사람이 같은 부류가 아니고 영과 사람이 절대로 같은 세계에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또 영은 사람이 가진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영이 아니다. 영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역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육신의 사역은 사람에게 실제적인 추구 목표와 명확한 말씀을 주고, 실제적이고 정상적이라는 느낌과 자신을 낮추고 평범하다는 느낌을 준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대다수 사람에게는 접촉하기가 상당히 쉽다. 사람은 그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므로 아득히 멀리서 서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 이 육신은 사람에게 아득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주고, 측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준다. 이는 이 육신이 사람과 같은 세계에 있기 때문이다.

육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성품을 변화시키려면 추구할 목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실제 행사와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오로지 하나님이 입은 육신만이 할 수 있고,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육신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필요성이며, 모든 패괴된 인류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요구하는 만큼 반드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들을 없애야 하고, 사람에게 패괴 성품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하는 만큼 반드시 먼저 이런 패괴 성품을 알게 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을 제거하기 위해 사람이 이 사역을 한다면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말로 들추어내고 벗겨 버리고 나아가 완전히 없앨 수 없다. 그렇게 하면 결국 사람에게 깊이 뿌리박힌 것을 없앨 수 없다. 오직 실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래 형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대신하여 사람이 차츰 깨닫게 해야만 원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사람이 지난날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즉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영의 직접적인 인도 때문이 아니고, 나아가 누군가의 가르침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성육신 하나님 덕분이다. 성육신 하나님의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모습과 사람의 상상 속에 있는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성육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는 사람의 관념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 성육신 하나님을 통해 부각해야만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관념이 모두 드러난다. 성육신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지 않는다면 사람의 관념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실제적인 것으로 부각하지 않으면 막연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역은 누구도 말로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말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 자신만이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을 뿐, 사람은 그 누구도 그것을 대신하지 못한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풍부해도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여 그의 형상과 어떠함을 모두 알려야만 사람이 그를 더 실제적으로 알 수 있고,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물론 하나님의 영 또한 이런 사역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하나님은 패괴된 사람을 구원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지만, 이 사역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 하나님이 입은 육신만이 할 수 있다. 이 육신은 사람이자 하나님이고, 정상 인성을 갖춘 사람이자 완전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또한 영과 크게 다르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이는 여전히 성육신 하나님 자신이고 또 영이자 육신이다. 호칭이 어떠하든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과 육신은 서로 떨어질 수 없고, 육신이 하는 사역은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다만 영의 신분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신분으로 사역할 뿐이다. 영이 직접 해야 하는 사역이면 성육신할 필요가 없고, 육신이 해야 하는 사역은 영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육신의 방식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은 사역에 필요한 것이고, 또 패괴된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세 단계 사역 중 오직 한 단계 사역만 영이 직접 한 것이고, 나머지 두 단계 사역은 모두 영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이 한 것이다. 영이 행한

율법시대의 사역은 사람의 패괴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과도 관련이 없었다. 반면 육신이 행한 은혜시대와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의 사역은 모두 사람의 패괴 성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 육신이 행한 사역은 구원 사역에서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역이다. 그러므로 패괴된 인류에게는 성육신 하나님의 구원과 성육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 더욱 필요하다. 인류에게는 성육신 하나님의 목양, 붙들, 양육, 심판, 형벌이 필요하고, 성육신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와 더 큰 구원(원문: 救贖)이 필요하다. 오로지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만이 사람의 지기(知己)가 될 수 있고, 사람의 목자가 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에도, 과거에도 성육신이 필요했던 것이다.

사람은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할 대상은 사람이지만 사탄이 아니며,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지 마귀가 아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멸할 대상이고,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이다. 하지만 사람의 육체가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으므로 반드시 먼저 사람의 육체를 구원해야 한다. 사람의 육체는 가장 심하게 패괴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으며,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패괴된 육체는 아주 완고하고, 육체의 패괴 성품은 다루기도 변화시키기도 가장 어렵다. 사탄은 사람의 육체를 찾아와 방해하며, 사람의 육체를 이용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친다. 그렇게 해서 사람도 사탄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사람을 구원하려면 먼저 사람을 정복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육신으로 와서 그가 하려는 사역을 하고 사탄과 싸운다. 그 목적은 패괴된 인류를 구원하며 그를 거역한 사탄을 물리치고 멸하는 것이다. 사람을 정복하는 사역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한편 패괴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일거양득의 사역이다. 그가 육신으로 사역하고, 육신으로 말씀하고, 육신으로 모든 사역을 담당하는 것은 사람과 더 잘 접촉하고 사람을 더 잘 정복하기 위함이다. 마지막 성육신은 말세에 하는 사역을 육신으로 끝내고, 모든 사람을 각기 부류대로 나누며, 그의 경영 전체를 끝내고, 그가 육신으로 하는 모든 사역을 끝낸다. 땅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끝나면 그는 철저히 승리하게 된다. 육신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이 인류를 철저히 정복하고 얻으면 하나님의 모든 경영이 끝나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이 끝나고 사탄을 철저히 물리치면 하나님은 이미 승리한 것이므로 사탄에게는 더 이상 사람을 패괴시킬 기회가 없다. 첫 번째 성육신의 사역은 사람의 죄를 속량하고 사하는 것이었고, 지금의 사역은 정복하여 사람을 철저히 얻는 것이다. 그러면 사탄은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고 완전히 패배할 것이고, 하나님은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이것은 육신이 하는 사역이자 하나님 자신이 하는 사역이다. 3 단계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은 육신이 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직접 한 사역이었다. 3 단계 사역의 마무리 사역은 영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중간 단계의 구속 사역 역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한 사역이었다. 전체 경영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을 구원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핵심 사역은 패괴된 사람을 철저히 정복하여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원래 갖고 있던 경외심을 되찾게 하고 정상인의 생활, 즉 정상적인 피조물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며 경영 사역의 핵심이다. 이 세 단계 구원 사역 중 1 단계인 율법시대의 사역은 경영 사역의 핵심과 큰 차이가 있다. 율법시대의 사역은 구원 사역의 겉모습만 조금 갖추었을 뿐이며,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사역은 시작하지 않았다. 1 단계 사역을 영이 직접 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 알았을 뿐 더 많은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율법시대의 사역은 사람의 성품 변화와 거의 관련이 없고, 사람을 어떻게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하는지에 대한 사역과는 더더욱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패괴 성품과 관련되지 않는, 극히 간단한 사역만 완성한 것이다. 그 단계의 사역은 경영의 핵심과 그리 큰 관계가 없었고, 본격적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과도 그리 큰 관련이 없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친히 사역할 필요가 없었다. 영이 하는 사역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측량할 수 없으며 사람들이 무서워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므로 직접 구원 사역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직접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역시 영의 사역을 사람과 가까운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즉,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평범한 정상인이 되어 사역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영의 사역을 대신해야 한다. 이 사역 방식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다. 이 세 단계 사역 중 두 단계 사역은 육신이 행한 것이며, 또 이 두 단계 사역은 경영 사역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두 번의 성육신은 서로 보충하며 완전케 한다. 첫 번째 성육신은 두 번째 성육신을 위해 기초를 다졌다. 두 차례 성육신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단계 사역을 성육신의 신분으로 행한 것은 전체 경영 사역에서 이 두 단계 사역이 실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의 성육신 사역이 없었다면 전체 경영 사역이 정체되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도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사역의 중요성은 인류의 필요성, 인류의 타락 상황, 사탄의 거역과 사역을 방해하는 정도에 근거한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자는 사역자의 사역 성질과 사역의 중요성에 따라 결정된다. 사역의 중요도를 놓고 볼 때, 사역 방식을 택함에 있어 하나님의 영이 직접 사역하는 것, 성육신하여 사역하는 것, 또는 사람을 통해 사역하는 것의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이 가운데서 제일 먼저 탈락된 것은 '사람을 통해 사역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는 사역의 성질, 영과 육신이 하는 사역의 성질에 근거해 최종적으로 육신이 사역하는 것이 영이 직접 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이로울 뿐만 아니라 장점이 훨씬 더 많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영이 사역할지, 육신이 사역할지를 결정할 때의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각 단계의 사역은 터무니없는 상상도 아니고,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행하는 것도 아니라, 모두 의의가 있고 근거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지혜가 깃들여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의 실상이다. 특히 성육신하여 친히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중대한 사역을 하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어떠함은 그가 사역할 때의 일거수일투족, 마음과 생각

속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어떠함이다. 사람은 이런 세밀한 마음과 생각을 상상하기 어렵고 믿기도 어려우며 더욱이 깨닫기도 어렵다. 사람이 사역할 때는 대체적인 원칙이 있다. 사람에게는 이것도 이미 상당히 만족스럽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비하면 실로 격차가 크다. 하나님의 행사는 위대하고 그의 사역 규모 역시 매우 거대하지만, 이런 사역들의 이면에는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세세하고 정밀한 계획과 안배가 많이 들어 있다. 그가 하는 각 단계 사역에는 원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언어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사람에게는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영의 사역이든, 성육신의 사역이든 모두 하나님의 사역 계획이 있다. 그는 근거 없이 사역하지 않고 무의미한 사역도 하지 않는다. 영이 직접 사역하는 데에는 그의 목적이 있고, 사람이 되어(그의 외형을 바꾸어) 사역하는 데에는 더더욱 그의 뜻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쉽게 신분을 바꿀 리 있겠느냐? 그가 어떻게 그리 쉽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이 될 리 있겠느냐?

육신이 하는 사역이 가장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은 사역을 근거로 말한 것이다. 마지막에 사역을 끝내는 것은 영이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이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어느 날 땅에 와서 사람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친히 전 인류를 심판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통과시킬지 모르니 누구도 빠질 생각을 말아야 한다고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단계의 성육신 사역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통과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심판 사역이라 말할 수 없다. 모든 인류의 패괴는 다 같지 않느냐? 사람의 본질은 다 같지 않느냐? 심판하는 것은 사람의 작은 결점이 아니라 인류의 패괴된 본질, 사탄이 패괴시킨 사람의 본질, 그리고 사람의 모든 죄업이다. 심판 사역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오롯이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을 심판함으로써 전 인류에 대한 심판 사역을 대표한다. 육신이 하는 사역은 일부 사람에게 친히 하는 사역으로 전 인류의 사역을 대변하며, 그런 다음 점차 확장한다. 심판 사역도 이리하다. 어느 한 부류의 사람이나 일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불의, 예를 들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등을 심판하는 것이다.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본질이며, 이 심판 사역이 바로 말세의 정복 사역이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이 바로 예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말세의 회고 큰 보좌 앞의 심판 사역이다. 지금 성육신한 하나님이 하는 사역 역시 회고 큰 보좌 앞의 심판이다. 오늘날 성육신한 하나님이 바로 말세에 전 인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이 육신과 육신의 사역, 말씀, 모든 성품이 그의 전부다. 비록 육신이 하는 사역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직접적으로 우주 전체에 미치지 못하지만 심판 사역의 본질은 모두 직접 전 인류를 심판하는 것이다. 단지 중국 선민만을 위해서, 또 몇 사람만을 위해서 심판 사역을 펼치는 것이 아니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사역하는 동안 사역의 범위가 우주 전체까지 미칠 수 없다 해도, 그가 하는 사역은 우주 전체의 사역을 대표한다. 또한 그가 육신의 사역 범위 안에서 하는 사역을

끝내면 이 사역을 즉시 전 우주 각 지역으로 확장할 것이다. 마치 예수가 부활해 승천한 후 복음이 전 우주 각 지역으로 전파된 것처럼 말이다. 영의 사역이든 육신의 사역이든 모두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행하지만, 우주 전체를 대변한다. 말세의 사역은 성육신의 신분으로 나타나 하는 사역이다. 그 육신의 하나님이 바로 회고 큰 보좌 앞에서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그가 영이든 육신이든, 결국 심판 사역을 하는 이는 말세에 인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겉모습이나 다른 여러 가지 면에 근거해 정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에 근거해 정한 것이다. 사람이 이에 대해 관념을 갖고 있더라도 성육신한 하나님이 전 인류를 심판하고 정복하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사실은 결국 사실이다. 누구도 “사역은 하나님이 한 것이지만 육신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 육신의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이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역이 다 끝난 이상, 이 사역 이후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사람을 심판하는 사역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성육신이 이미 전체 경영 사역을 모두 끝냈으므로 네 번째 단계의 사역이 있을 리가 없다. 사탄의 영을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패괴되고 육에 속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 사역은 영계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행한다. 사람 육체의 패괴를 심판하는 사역은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해야만 가장 적합하고,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만이 가장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심판한다면 여러 면에서 빈틈없이 할 수 없고 사람이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영은 사람과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없고, 더욱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스를 수 없는 성품을 더 또렷하게 보여 줄 수도 없다. 오직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인류의 패괴를 심판해야만 사탄을 철저히 물리칠 수 있다. 똑같이 정상 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불의를 직접 심판할 수 있다. 이것은 그가 본래 거룩하고 남다르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지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심판할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진리와 공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 반면, 진리와 공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이 사역을 한다면 그것은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다. 영은 본래 육체를 지닌 존재보다 위대하며, 하나님의 영은 본래 거룩하고 육체를 능가한다. 영이 직접 이 사역을 하면 사람의 모든 패역을 심판할 수 없고, 사람의 모든 불의를 드러낼 수도 없다. 심판 사역도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관념을 통해 행하는 것인데, 사람은 본래 영에 대해 관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사람의 불의를 더 잘 드러낼 수는 없고, 더욱이 사람의 불의를 확실히 들추어낼 수도 없다. 성육신 하나님은 그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원수이다. 그는 그에 대한 사람의 관념과 대적을 심판함으로써 인류의 패역을 모두 들추어낸다. 육신이 하는 사역은 영이 하는 사역보다 더 뚜렷한 성과를 낸다. 그러므로 인류 전체를 심판하는 사역은 영이 직접 하지 않고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며, 사람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 사람은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다가 순종하고, 핍박하다가 받아들이고, 관념을 갖고 있다가 알게 되고, 저버리다가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 성과다. 사람은 모두 그의 심판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만 차츰 그를 알게 된다. 또 대적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정복되고, 그의 형벌을 받는 과정에서 그에게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된다.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영의 신분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하는 사역은 가장 큰 사역이자 가장 심오한 사역이다. 세 단계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 두 단계 성육신 사역에 있다. 성육신하여 사역할 때는 장애물이 너무 많다. 사람이 매우 심하게 패괴된 데다, 특히 말세에 이 사람들에게 하는 사역이 더욱 힘들고 외부 환경이 열악하며 각 부류 사람들의 자질도 몹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역이 끝날 때는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고, 그 성과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육신으로 사역한 성과로, 이 성과는 영이 하는 사역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세 단계 사역은 육신 중에서 끝나며, 또 반드시 성육신 하나님이 끝내야 한다.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역은 모두 육신으로 해야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반드시 육신이 친히 해야 한다. 모든 인류가 육신의 하나님은 사람과 무관한 것 같다고 느끼지만 사실 이 육신은 인류 전체의 운명, 그리고 생존과 관계된다.

하나님이 어느 단계의 사역을 하든 모두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고, 그가 하는 사역은 모두 인류 전체를 마주한 것이다. 설령 육신으로 하는 사역일지라도 전 인류를 마주한다. 그는 전 인류의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과 비피조물의 하나님이다. 육신으로 하는 사역이 범위도, 사역하는 대상도 제한적이지만, 그가 매번 성육신하여 사역할 때마다 택한 사역 대상은 모두 지극히 큰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는 ‘단순하고 평범한’ 한 무리 사람을 택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육신으로 하는 사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한 무리를 택해 사역 대상으로 삼는다. 이 한 무리 사람들은 그가 육신으로 하는 사역의 범위가 제한적이기에 선택된 자들이고, 오로지 하나님이 입은 육신만을 위해 예비된 자들이며, 또 그가 육신으로 하는 사역을 위해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다. 사역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근거 없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다. 사역 대상은 반드시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인류 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대인은 인류 전체를 대표해 예수가 친히 행한 구속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중국인은 인류 전체를 대표해 성육신 하나님이 친히 행하는 정복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유대인이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근거가 있고, 중국인이 인류 전체를 대표해 하나님이 친히 행하는 정복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근거가 있다. 유대인 가운데서 구속 사역을 하면 구속의 의의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고, 중국인 가운데서 정복 사역을 하면 정복 사역의 완벽함과 성공적인 결과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 육신으로 사역하고 말씀하는 것이 보기에는 그저 일부 소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일부 소수 사람들 가운데서 우주 전체의 사역을 하고 인류 전체를 향해 말씀하는 것이다. 그가 육신으로 하는 사역이 끝나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한 사역을 널리 확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육신으로 하는 사역의 가장 큰 장점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말씀과 당부를 남길 수 있고, 인류에 대한 그의 정확한 뜻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 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그가 육신으로 한 모든 사역과 전 인류에 대한 그의 뜻을

더 정확하고 실제적으로 전해 줄 수 있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니 비로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진정으로 실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이 친히 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소망을 실현하게 되었다. 성육신 하나님은 ‘인류에게 여호와의 뒷모습만 보여 주던’ 시대를 끝내고, 인류가 막연한 하나님을 믿던 시대도 끝냈다. 특히 마지막으로 성육신한 하나님의 사역은 인류 전체를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아름다운 시대로 인도했다. 율법과 규례의 시대를 끝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하나님, 공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경륜 사역을 펼치고 인류의 비밀과 종착지를 보여 주는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고 경영 사역을 끝내는 하나님, 수천 년간 숨겨져 있던 하나님을 인류에게 공개하여 막연한 시대를 완전히 끝낸 것이다. 또한 전 인류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었던 시대와 사탄을 섬기던 시대를 끝내고, 전 인류를 새로운 시대로 완전히 인도해 들어갔다. 이런 사역은 모두 육신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대신하여 사역함으로써 거둔 성과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역을 해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시는 있는 듯 없는 듯한 것을 찾지 않게 되고, 다시는 막연한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한 사역을 확장할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가 육신으로 했던 모든 사역을 각 종교, 각 교파에 전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전 인류에게 전할 것이다. 또 그의 복음을 얻은 모든 사람은 그가 사역한 사실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직접 보고 들은 것으로, 뜬소문이 아닌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모두 그가 사역을 확장한 증거이자 사역을 확장하는 수단이다. 만일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의 복음이 모든 지역과 나라에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없고 단지 사람의 상상만 있다면 영원히 우주 전체를 정복하는 사역을 할 수 없다. 영은 사람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존재다. 영으로 사역하면 사람에게 더 많은 증거와 사역한 사실을 남길 수 없으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고, 영원히 막연하고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만 믿을 것이다. 또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친히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상상하는 것은 어쨌든 헛된 것이므로 결코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과 그 자신의 사역은 사람이 연기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들 가운데 와서 친히 사역해야만 하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사역을 땅에 옮겨 올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알게 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성육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다. 지금 이 정도까지 사역을 행하여 이미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정도까지 한 것도 이미 큰 노력으로 얻어 낸 성과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전체 경영 사역 가운데 90%를 완성했다. 이 육신은 그의 모든 사역을 더 좋은 시작으로 인도했다. 이 육신은 그의 모든 사역을 총결 짓고 널리 알렸으며, 마지막으로 완전히 보완했다. 이제 다시는 성육신 하나님이 와서 네 번째 단계의 사역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세 번째로 성육신하는 이 놀라운 사역이 있지도 않을 것이다.

육신으로 하는 각 단계의 사역은 사람처럼 어느 한 시기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체 시대 사역을 대변한다. 그러므로 그의 마지막 성육신 사역이 끝났다고 해서 그의 사역이 전부 끝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육신으로 하는 그의 사역은 그가 육신으로 사역하는 기간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대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가 전체 시대에 하는 사역은 육신에 거하는 동안 모두 끝낸 다음 여러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뿐이다. 성육신 하나님은 그의 직분을 다한 후,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그가 앞으로 할 사역을 맡긴다. 그래야만 그의 전체 시대 사역이 끊기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 사역이 전 우주 각 지역으로 확장되었을 때 비로소 성육신의 전체 시대 사역이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성육신의 사역은 새 시대를 여는 사역이며, 그의 사역을 잇는 것은 그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모두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의 직분 안에 있는 사역이며, 절대로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낡은 시대를 끝낼 수 없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도 없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단지 본분 내에 있는 것, 즉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일 뿐이다.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해 사역할 수는 없다. 오직 성육신 하나님만이 그가 해야 할 사역을 완수할 수 있을 뿐, 그 외에는 누구도 그의 사역을 대신할 수 없다. 물론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성육신의 사역에 대한 것이다. 이번에 성육신하여 먼저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 한 단계의 사역을 한 후, 다시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 사역을 더 많이 할 것인데, 그 목적은 사람을 정복하는 데 있다. 성육신 자체가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 데다가 그가 한 더 많은 사역 역시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은 더욱 예사롭지 않아졌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수많은 관념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정복 사역을 한다. 사람이 그를 어떻게 대하든 그가 직분을 다하고 나면 모든 사람이 그의 권세 아래에 복종할 것이다. 이 사실은 중국인 가운데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류 전체가 정복되는 과정도 이와 같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성과 역시 전 인류에게서 나타날 성과를 미리 보여 준다. 심지어 그가 앞으로 할 사역은 이 사람들에게서 하는 사역보다 점점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다. 육신의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기세가 대단하지도 않고 보일 듯 말 듯 희미하지도 않다. 그것은 매우 실제적이며,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누구에게도 감추지 않고 누구도 속이지 않는다. 사람이 보는 것은 모두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의 것이고, 사람이 얻는 것도 모두 실제적인 인식과 진리다. 사역이 끝날 때 사람은 그를 새롭게 알게 될 것이고, 진심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관념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그가 중국인에게서 거둔 사역 성과일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인류 전체를 정복하는 사역의 성과를 뜻한다. 이 육신, 이 육신의 사역, 이 육신의 모든 것은 전 인류를 정복하는 사역에 가장 이롭기 때문이다. 오늘도 그의 사역에 이롭고 앞으로도 그의 사역에 이롭다. 이 육신은 인류 전체를 정복하고, 또 인류 전체를 얻는다. 그의 사역은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역이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제한적인 범위만을 대표한다. 하나님은 사역을 할 때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해 말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말하는 것이다. 또 결말을 선포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결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결말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그는 인류 전체를 상대로 사역하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이번에 성육신한 하나님이 이미 인류 전체를 각기 부류대로 나누었고, 인류 전체를 심판했으며, 인류 전체를 위해 적합한 종착지를 예비했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중국에서만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는 이미 우주 전체의 사역을 모두 해결했다. 그는 인류 전체의 사역이 다 확장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씩 말하거나 하나씩 안배할 수 없다. 그러면 너무 늦지 않겠느냐? 지금은 이후의 사역을 충분히 앞당겨 완성할 수 있다. 사역하는 이는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는 무한한 범위의 사역을 유한한 범위에서 행한 후, 사람에게 그들이 해야 할 본분을 이행하게 한다. 이것이 그의 사역 원칙이다. 그는 사람과 한 시기만 함께 생활할 뿐, 전체 시대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사람과 함께할 수는 없다.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후의 사역을 미리 예언할 수 있다. 이후에는 그 말씀에 따라 인류 전체를 각기 부류대로 나눌 것이고, 그의 말씀에 따라 인류 전체가 그의 사역 속으로 한 단계씩 진입하게 될 것이다.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영이 아닌 말씀이 시대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다.

육신으로 하는 사역은 반드시 육신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사역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설령 사역하더라도 별로 큰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가 하는 사역이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대변하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고 싶어 하며, 하나님이 하는 사역에 권병과 지혜가 가득한지, 그가 하는 사역이 가장 가치 있고 의의 있는 사역인지 알고 싶어 한다. 그가 사역을 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 사탄을 물리치기 위함이며, 또한 만물 가운데서 그 자신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사역은 반드시 커다란 의의가 있어야 한다. 사람의 육체는 사탄에 의해 파괴되고, 가장 심하게 기만당했다. 육체는 극심한 해를 입은 대상이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으로 사역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구원의 대상이 육에 속한 사람이고, 사탄도 사람의 육체를 이용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사탄과의 싸움은 사실 사람을 정복하는 사역이며, 사람은 또 구원받는 대상이다. 따라서 성육신으로 사역할 필요성이 크다. 사탄이 사람의 육체를 파괴시켜 사람은 사탄의 화신이 되었고 하나님이 물리칠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사탄과 싸우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모두 땅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 되어 사탄과 싸워야 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사역이다. 그가 육신으로 사역하는 것도 사실은 육신으로 사탄과 싸우는 것이고, 영계에서의 그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는 영계에서의 사역을 모두 땅에 실체화했다. 그가 정복하는 대상은 그를 거역하는 사람이고, 그가 물리치는 대상은 그를 적대시하는 사탄의 화신(물론 이 역시 사람)이며, 또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대상 역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피조물의 외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했다. 사탄과 실제적인 싸움을 할 수 있고, 그를 거역할뿐더러 그와 같은 외형을 가진 사람을 정복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외형을 갖고 있는, 사탄에게 해를 입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의 원수는 사람이고, 정복할 대상도 사람이며,

구원할 대상 역시 창조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렇게 하면 그의 사역이 훨씬 편해져 사탄을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정복할 수 있고 더욱이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다. 비록 ‘육신’이 정상적이고 실제적일지라도 평범한 육신이 아니고 인성만 있는 육신도 아니며,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진 육신이다. 이것이 그와 사람의 다른 점이며, 하나님의 신분을 상징하는 표지이다. 이런 육신만이 그가 하려는 사역을 할 수 있고,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의 직분을 이행할 수 있으며,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하는 사역을 철저히 완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하는 사역은 영원히 공백 상태일 것이고, 영원히 허점일 것이다. 설령 하나님이 사탄의 영과 싸울 수 있고 이긴다고 해도 패괴된 사람의 옛 성품은 영원히 해결되지 못하고, 그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의 권세 아래에 진실로 복종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영원히 인류를 정복할 수 없고 인류 전체를 얻을 수 없다. 땅의 사역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의 경영은 끝날 수 없고, 인류 전체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러한 경영 사역은 영원히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에 따라 사라질 것이다. 그의 육신은 권병을 지니지 않았지만 그가 한 사역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그가 행하는 사역의 필연적인 흐름이다. 권병을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 자신이다. 육신이 아무리 정상적이고 평범해도 그가 해야 할 사역을 할 수 있다. 이 육신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육신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내면에 있는 본질이 그 누구와도 다르기 때문이고, 그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신분이 그 누구와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 이 육신이 인류에게 더없이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람이면서 더욱이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평범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하지 못하는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땅에서 그와 함께 생활하는 패괴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육신 하나님은 인류에게 있어 그 어떤 가치 있는 사람보다도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이 하지 못하는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잘 증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보다 더욱 완전하게 인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육신은 평범하고 정상적이지만 그가 인류에게 기여한 것과 인류의 생존에 대해 갖는 의의를 논한다면 아주 보배롭다. 이 육신의 실제 가치와 의의는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다. 육신은 비록 사탄을 직접 멸할 수 없지만 그는 사역의 방식으로 인류를 정복하고 사탄을 물리쳐 철저히 그의 권세 아래에 굴복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였기에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는 사탄을 직접 멸하지 않고 성육신하여 사역하면서 사탄에 의해 패괴된 인류를 정복한다. 그러면 피조물 가운데서 그 자신을 더 잘 증거할 수 있고, 패괴된 사람을 더 잘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 사탄을 멸하는 것보다 더 좋은 증거가 되며 설득력도 더 강하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창조주를 알아 가는 데 더 도움이 되고, 피조물 가운데서 그 자신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중에서

6) 왜 두 번의 성육신으로 성육신의 의의가 완전해졌다고 하는가?

성경 참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번째 나타나시리라”(히 9:28)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

관련된 하나님 말씀:

『첫 번째 성육신은 죄에서 사람을 속량했다. 이는 예수의 육신으로 사람을 속량해 온 것, 즉 사람을 십자가에서 구해 낸 것이다. 하지만 사람 안에는 여전히 사탄의 패괴 성품이 존재했다. 두 번째 성육신은 더 이상 속죄 제물이 되지 않고, 죄에서 속량해 온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한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완전히 정결케 되고, 성품이 변화됨으로써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야만 사람이 완전히 성결해질 수 있다. 율법시대가 끝나고 은혜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시작했다. 말세에 하나님은 인류의 패역을 심판하고 형벌하는 사역을 하여 인류를 완전히 얻고 정결케 한 뒤에야 구원 사역을 끝내고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3 단계 사역 중 두 차례만 성육신으로 친히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것이다. 3 단계 사역 중 한 단계는 사람의 생활을 이끌어 주는 사역이고, 나머지 두 단계는 구원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해야만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 있고 인간 세상의 고통을 체험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육신으로 살 수 있다. 그래야만 창조된 사람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도를 공급할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지, 직접 하늘에 간구하여 얻은 것이 아니다. 사람은 모두 육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에 접근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입은 육신뿐이다. 사람은 이 육신을 통해야만 모든 진리와 도를 깨닫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성육신은 사람의 죄를 충분히 벗겨 버릴 수 있고 사람을 완전히 정결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성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모든 사역을 끝내고 하나님이 성육신한 의의를 완전케 한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성육신의 비밀 4> 중에서

『예수가 사역할 때, 예수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여전히 막연하고 모호했다. 사람은 줄곧 그를 다윗의 자손으로 여겼고, 대선지자이자 사람의 죄를 속량하는 인자한 주님이라고 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았고, 소경도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죽은 자도 부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힌 사탄의 패괴 성품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것을 어떻게 벗어 버려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았다. 육체의 평안과 즐거움, 한 사람이 주를 믿으면 온 가족이 복을 받는 것, 병이 낫는 것과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 외에도 선행을 하고 경건한 겉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신자라고 불릴 자격이 있었다. 그런 신자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생전에 생명의 도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그저 죄를 짓고 자복하기만을 반복할 뿐, 성품이 변화되는 길은 없었다. 은혜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상태였다. 사람이 완전히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그 단계 사역이 끝난 후에 또 한 단계의 심판과 형벌 사역이 있는 것이다. 이 단계에는 말씀을 통해 사람을 정결케 하고 사람이 실행할 길을 얻게 한다. 이 단계에서도 귀신을 쫓아낸다면 아무런 성과도, 의미도 없을 것이다. 사람이 죄성을 벗어 버리지 못하고 그저 죄 사함을 받은 기초에만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속죄 제물을 통해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 십자가 사역이 끝났고 하나님이 사탄을 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 안에는 패괴 성품이 아직 존재한다.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인류를 얻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번 사역은 말씀으로 사람의 패괴 성품을 들추어내어 사람이 적합한 길을 따라 실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 단계 사역은 이전 단계의 사역보다 더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성과도 더 크다. 지금은 말씀으로 직접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사람의 성품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더 철저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성육신은 하나님이 성육신한 의의를 완전케 하였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확실히 완성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의 비밀 4> 중에서

『하나님은 처음 성육신했을 때 성육신의 사역을 완전히 끝내지 않았다. 다만 육신이 해야 할 첫 단계의 사역만 마쳤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육신의 사역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다시 한번 육신으로 돌아와서 육신의 모든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살아 내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도를 가장 정상적이고 평범한 육신으로 나타냄으로써 육신으로 끝내지 못한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입은 육신은 첫 번째의 육신과 본질 면에서 같지만, 첫 번째 육신보다 더 실제적이고 정상적이다. 이로 인해 두 번째의 성육신이 받는 고난은 첫 번째 성육신 때보다 더 크다. 그러나 그 고난은 육신의 직분으로 인해 생긴 것이지, 패괴된 인간이 받아야 할 고난과는 다르다. 또한, 그 고난은 육신이 정상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가장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육신으로 직분을 이행하기에 그 육신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육신이 정상적이고 실제적일수록 직분을 이행할 때 겪는 고난은 더 커진다. 하나님의 사역은 지극히 평범한 육신으로 발현되기에 초자연적인 모습이 조금도 없다. 육신이 정상적인 데다가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까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가 겪는 고난은 초자연적인 면을 가진 육신이 겪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다. 그 고난은 모두 육신이 실제적이고 정상적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다. 두 번의 성육신이 직분을 이행하면서 겪는 고난을 통해 성육신의 본질을 알 수 있다. 사역을 담당하는 육신이 정상적일수록 겪는 고난이 더 크고, 사역을 담당하는 육신이 실제적일수록 사람의 관념은

더욱 심해지며, 감당해야 할 위험도 커진다. 그러나 실제적인 육신일수록, 그리고 정상인의 완전한 이성과 요구를 지닌 육신일수록 하나님이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을 더 잘 담당할 수 있다. 예수는 육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육신으로 속죄 제물이 되었다. 즉, 정상 인성을 지닌 육신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사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구원한 것이다. 두 번째의 성육신은 완전한 육신으로 정복 사역을 하며, 사탄을 물리친다. 완전히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육신만이 완전한 정복 사역을 할 수 있고,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면과 정상적인 면을 통해 이루는 성과이지, 초자연적인 이적과 계시를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성육신한 하나님이 이행해야 하는 직분은 말씀을 하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 사람을 정복하고, 온전케 한다. 즉, 영이 육신으로 실체화하여 행하는 사역은 말씀을 하는 것이며, 육신의 기본 사역 또한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을 완전히 정복하고, 드러내며, 온전케 하고, 도태시키는 목적을 이룬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은 정복 사역을 통해 철저히 완전해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첫 번째의 속죄 사역은 성육신의 초기 사역에 불과하며, 정복 사역을 하는 육신이야말로 성육신의 모든 사역을 보완한다. ... 이 단계 사역에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 성과를 얻는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이며, 또 다른 이유는 이번 성육신의 사역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본능은 말씀하고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그가 정상 인성으로 하는 사역은 이적을 보이거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두 번째로 입은 육신은 첫 번째의 육신보다 훨씬 정상적이고, 또한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번 성육신이 예수의 성육신과 다르며, 성육신이기는 하나 완전히 같지는 않은 것이다. 예수는 정상적이고 평범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따라다녔다. 이번 성육신에게서는 사람의 병을 고쳐 준다거나 귀신을 쫓는다거나 물 위를 걷는다거나 40 일 동안 금식하는 등의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떤 이적과 기사도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예수가 했던 것과 같은 사역을 하지 않는다. 이는 그가 입은 육신의 본질이 예수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직분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망가뜨리지도, 방해하지도 않는다. 실제적인 말씀으로 정복하기에 이적으로 사람을 탄복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 단계는 성육신의 사역을 완전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육신’의 본질> 중에서

『무엇 때문에 예수의 그 단계 사역이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케 하지 못했다고 하겠느냐? 그것은 말씀이 완전히 육신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가 행한 사역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 중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구속 사역만 했을 뿐, 사람을 완전히 얻는 사역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에 두 번째로 성육신한 것이다. 이번 단계 사역도 평범한

육신으로 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한다. 그에게는 비범한 인성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완전한 사람, 완전한 육신으로 사역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비범한 면이 조금도 없는 육신이자,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그는 이적을 나타내지도, 권능을 행하지도 않으며, 예배당에서 종교의 실상을 폭로하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는다. 사람이 보기에 두 번째 성육신이 하는 사역은 첫 번째 성육신이 한 사역과 완전히 다르며, 심지어는 똑같은 점이 하나도 없다. 또한 이번 단계에서는 첫 단계의 사역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두 번째로 하는 사역은 첫 번째에 한 사역과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근원이 하나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들의 근원이 하나인지 아닌지는 육신으로 하는 사역의 성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육신의 외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3 단계 사역에서 총 두 번 성육신하였다. 또한 두 번의 성육신 사역은 모두 시대를 열고 새로운 사역을 하는 것으로, 두 번의 성육신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 사람의 육안으로는 이 두 육신의 근원이 하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다. 물론, 이는 사람의 육안으로 알아볼 수 없고, 사람의 사유로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본질은 원래부터 하나다. 그들의 사역은 하나의 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의 성육신의 근원이 하나인지를 알아보려면 육신의 출생 연대나 출생지, 혹은 육신의 다른 조건들을 볼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나타낸 신성 사역을 봐야 한다. 두 번째의 성육신 사역에서는 예수가 행한 사역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역할 때마다 이전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길을 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성육신한 이유는 첫 번째 육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긴 인상을 더 깊게 하거나 공고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 육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긴 형상을 보완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이며,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규례를 깨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잘못된 형상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하나님 자신이 행한 어느 한 단계의 사역도 사람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게 할 수는 없다. 일부만 알 수 있을 뿐, 완전히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성품을 다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불완전하다. 사람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남김없이 다 표현할 수 없을진대, 단 한 단계의 사역으로 어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밝힐 수 있겠느냐? 육신의 사역은 정상 인성에 가려져 있기에 사람은 오로지 신성의 말씀을 통해 그를 알 수 있을 뿐, 육신의 외형을 보고서는 그를 알 수 없다. 육신을 입고 온 그는 서로 다른 사역을 통해 사람에게 그의 사역이 단계마다 다르다는 점을 알게 한다. 그래야 사람은 육신으로 하는 그의 사역을 일정 범위에 규정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육신’의 본질> 중에서

『예수가 한 단계 사역을 했지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본질적 의미만 이루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은 육신과 함께하므로 둘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즉, 육신을 입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므로 성육신한 예수가 하나님의 첫 번째 성육신이라는 증거가 더 뚜렷해지는 것이다. 이번 단계의 사역은 ‘말씀이 육신 되었다’는 말의 함의를 이룬 것이다. 또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는 말의 의미와 더 깊게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말까지도 확신하게 만든다. 즉, 천지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며, 그의 말씀은 그와 함께하였으므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마지막 시대에는 그의 말씀의 위력과 권병을 한층 더 명확하게 드러내어 그의 모든 말씀을 보게 한다. 즉, 그의 모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는 사역이다. 너는 이런 것을 밝히 알아야 한다. 육신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과 말씀, 육신과 도의 관계를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간증이자 모든 이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두 번째로 성육신하여 하는 사역이자 마지막 성육신이다. 즉, 말씀이 육신 된 의의를 완전케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에서 하는 모든 사역을 철저하게 하여 선포하고, 하나님이 육신에 있는 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실행 4> 중에서

7) 그리스도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란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성경 참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1:1~2)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요 6:63)

관련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도는 아무나 갓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비롯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본질과 생명의 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자 끝없이 솟아나는 생명수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다. 창세 이후 하나님은 생명의 기운을 품고 있는 사역,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을 수없이 행하였으며,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술탄 대가를 치렀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영생이자 사람을 부활시키는 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매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시시각각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는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과 생존하는 근본이 되었으며, 또 사람이 생존해 나가는 데 풍부한 자원이 되어 주었다. 그는 사람을 소생시켜 모두가 굳건하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도록 했다. 사람은 그의 힘과 영원히 사그라지지 않는 그의 생명력에 의지해 한 세대 한 세대 이어 올 수 있었다. 하나님의 생명의 힘은 시종일관 변함없이 사람들을 지탱해 주고 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치른 적 없는 대가를 치렀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모든 힘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힘을 초월할 수 있다. 그의 생명은 영원하고 그의 힘은 비범하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적대 세력도 그의 생명력을 압도하지 못한다. 그의 생명력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며, 눈부신 빛으로 반짝인다. 천지가 크게 변해도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만물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생명은 계속 존재한다. 하나님은 만물이 생존하는 원천이자 만물이 의지해 살아가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하늘은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게 되었으며, 땅 역시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원천으로 숨 쉬고 있다. 생기를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재를 벗어날 수 없고, 활력을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병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인물이든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와 복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말세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영생의 도를 줄 수 있다> 중에서

『하나님 자신이 곧 생명이고 진리다.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는 공존한다. 진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생명도 얻지 못한다. 진리로 인도해 주고 붙들어 주고 공급해 주는 일이 없다면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글귀와 이치, 그리고 죽음뿐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나 존재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생명과 함께 공존한다. 진리의 근원을 찾지 못한다면 너는 생명의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할 것이다.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너에게는 분명 진리가 없을 것이며, 너의 몸뚱이는 상상과 관념으로 가득 찬 육체, 즉 구린내가 진동하는 육체에 불과할 것이다. 명심해라. 책의 글귀는 생명으로 삼을 수 없고, 역사적 기록은 진리로 삼아 섬길 수 없으며, 과거의 규례는 하나님이 현실에서 한 말씀의 실제 기록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땅에 임하여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한 말씀만이 진리이자 생명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현실적인 사역 방식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말세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영생의 도를 줄 수 있다> 중에서

『말세의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생명이고, 영원하고 영원한 진리의 도이다. 이 진리가 바로 사람이 생명을 얻는 길이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유일한 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말세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영생의 도를 줄 수 있다> 중에서

『이번에 온 하나님은 영체가 아닌 아주 평범한 몸으로 사역한다. 그 몸은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성육신한 몸이며, 또한 하나님이 다시 육신을 입고 돌아온 몸이고, 아주 평범한 육신이다. 너는 그에게서 남다른 점을 찾을 수 없으나 지금까지 들어 본 적이 없었던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이 보잘것없는 육신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진리의 말씀의 화신이고, 하나님이 하는 말세 사역의 담당자이며,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나타내 알게 하는 존재다. 너는 하늘의 하나님이 몹시 보고 싶지 않았더냐? 너는 하늘의 하나님을 몹시 알고 싶지 않았더냐? 너는 인류의 종착지를 몹시 보고 싶지 않았더냐? 그는 지금껏 아무도 알려 주지 못했던 이 모든 비밀을 너에게 알려 줄 것이고, 또한 네가 깨닫지 못한 진리도 알려 줄 것이다. 그는 너를 하나님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대문이자 너를 새 시대로 이끄는 인도자다. 이런 평범한 육신에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비밀이 많이 깃들여 있다. 그의 행사는 네가 분명하게 측량할 수 없지만, 그가 행하는 사역의 모든 목표를 통해 너는 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육신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세의 뜻을 대변하고, 말세의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너는 천지를 진동하는 듯한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불꽃 같은 그의 두 눈을 볼 수 없으며, 그의 철장(鐵杖)의 다스림을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너는 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류를 긍휼히 여기고 있음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도 엿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염려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은 말세 사역을 통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그가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

... 너희에게 오늘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육신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육신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생존할 기회를 얻었는데, 이 모든 복은 이 평범한 사람으로 인해 얻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만국이 모두 이 평범한 사람에게 경배하고,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순종할 것이다. 그가 가져온 진리와 생명과 길이 온 인류를 구원하였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였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소통시키고, 또 그가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영광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런 평범한 사람이 네가 믿고 앙모할 만한 가치가 없단 말이나? 이런 평범한 육신이 그리스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단 말이나? 이런 평범한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발현이 될 수 없단 말이나? 사람에게 재난을 면케 해 준 이러한 사람이 너희가 사랑하고 붙들 만한 가치가 없단 말이나? 만약 너희가, 그가 입으로 선포한 진리를 저버리고 또 그가 너희들 가운데에 거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너희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매우 큰 일을 하였다는 것을> 중에서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조용히 숨어 계시는 그 평범한 사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새 사역을 하고 계셨다. 그는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지도, 자신이 온 이유를 확실히 말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그의 계획과 단계에 따라 그가 하려는 사역을 하실 뿐이었다. 그의 말씀은 갈수록 잦아졌다. 위로, 권면, 일깨움, 경고에서 책망과 징계에 이르기까지, 부드럽고 온화한 말투에서 격하고 위엄 있는 말투에 이르기까지 모두 갑절로 공허를 느낄 수 있었고 또한 두려움에 가슴이 떨리기도 했다. 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전부 꿰뚫었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찢어 아프게 했으며,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게 했다. ...

우리는 어느새 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이끌려 하나님 사역의 절차 속으로 한 단계씩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채찍질, 그리고 죽음의 시험을 겪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위엄 있는 성품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허를 누렸으며,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과 지혜를 깨달았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도 보았다. 우리는 이 평범한 사람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며, 또한 사람의 본성과 본질도 알았고, 구원받고 온전케 되는 길을 보았다. 그의 말씀은 우리를 ‘죽게’ 하는 동시에 ‘부활’시켰고, 우리를 위로하는 동시에 가책과 죄책감을 배로 느끼게 했으며,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끝없는 고통을 안겨 주기도 했다. 우리는 때로 그의 손안에 있는 어린양마냥 그의 뜻대로 처분되었고, 때로는 그의 눈동자처럼 그의 사랑을 받았으며, 또 때로는 그의 원수처럼 그의 눈앞에서 그의 분노에 의해 찢터미로 변했다. 우리는 그가 구원하는 인류이고, 그의 눈에 구더기로 보이는 존재이자, 또 그가 주야장천으로 찾는 길 잃은 양이었다. 그는 우리를 공허히 여기고,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를 들어 세우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깨우치셨다. 또 그는 우리를 징계하거나 책망하고, 심지어 우리를 저주하기도 하셨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걱정하고 돌보고 지켜 주었으며,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모든

대가를 쏟아부으셨다. 우리는 이 작고 평범한 육신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종착지도 보게 되었다. ...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다양한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깨우치고, 마음의 소리를 전하셨다. 생명력을 가진 그의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를 주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깨닫게 하였다. 우리는 그의 말씀에 끌리기 시작했고, 그 말씀의 어조와 말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자신도 모르게 그 보잘것없는 사람의 마음의 소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심혈을 쏟아부었고, 우리 때문에 침식을 잊었으며, 우리 때문에 울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셨다. 또한 우리를 위해 병으로 신음하고, 우리의 종착지와 구원을 위해 굴욕을 견뎌왔으며, 또 우리의 무감각과 패역 때문에 마음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셨다. 이러한 소유와 어떠함은 평범한 사람에게 없는 것이자, 패괴된 사람은 절대 갖출 수도, 이를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는 평범한 사람에게 없는 관용과 인내심을 지니고 있었고, 그의 사랑은 그 어떤 피조물도 갖지 못한 것이었다. 그 말고는 어떤 이도 우리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어떤 이도 우리의 본성과 본질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지 못하며, 어떤 이도 인류의 패역과 패괴를 심판하지 못하고, 어떤 이도 하늘의 하나님을 대표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거나 사역할 수 없었다. 또한, 그 말고는 어떤 이도 하나님의 권병과 지혜와 존엄을 갖추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은 그에게서 남김없이 발현되었다. 그 말고는 어떤 이도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거나 빛을 가져다줄 수 없었다. 그 말고는 어떤 이도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공개하지 않은 비밀을 밝힐 수 없었고, 그 말고는 어떤 이도 우리를 사탄의 속박과 패괴 성품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할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대표한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와 하나님의 당부,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기원을 열었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사역을 가져왔으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미망 속에서 보내던 우리의 삶을 끝내셨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히 보게 하였고, 우리를 정복했으며, 우리의 마음을 얻으셨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각이 생겼고, 우리의 영도 소생한 듯했다. ‘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들 가운데서 살면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예수가 아닌가? 이분!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분이 바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시다! 이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광명을 보게 했으며, 우리의 마음이 더는 방랑하지 않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았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다> 중에서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대를 열고, 말씀으로 사역의 방식을 바꾸며, 말씀으로 전체 시대의 사역을 행한다. 이것이 말씀 시대에 하나님이 사역하는 원칙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각기 다른 위치에서 말씀함으로써 사람에게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기묘함을 보게

한다.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사람을 정복하고 온전케 하며 도태시키기 위한 목적을 더 잘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 시대에 말씀으로 사역하는 진정한 함의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알고, 사람의 본질을 알며, 사람이 진입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 시대에 행하려는 모든 사역을 이루는 한편, 사람을 드러내고 도태시키고 사람에게 시련을 준다. 사람은 말씀을 보고 들었기에 말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 나아가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게 된 것이다. ‘말씀’이라는 단어는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성육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천지를 진동시키고, 사람의 마음과 고정 관념, 그리고 옛 성품을 변화시켰으며, 온 세상의 낡은 면모를 변화시켰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말씀하며 사람을 구원한 분은 오직 오늘날의 하나님밖에 없다. 이로부터 사람은 말씀의 인도 아래에서 살고, 말씀의 양육과 공급으로 살게 되었다. 또한 말씀의 세계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의 저주와 축복 속에서 살게 되었으며, 더 많은 사람이 말씀의 심판과 형벌 속에서 살게 되었다. 이러한 말씀과 사역은 다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옛 창조 세계의 원래 모습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으며, 말씀으로 온 우주 사람을 인도하고 정복하고 구원하며,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옛 세상을 끝낸다. 이렇게 해야 전체 경륜의 모든 부분이 완성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나라시대는 말씀 시대이다> 중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진리의 성령’이 ‘육신’에 실체화되었다. 즉, 모든 진리, 길, 생명이 모두 육신으로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확실히 땅에 왔으며, 영이 육신으로 왔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사역을 통해 영이 육신에 실체화되었고, ‘도’가 ‘육신’ 되었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음을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다. 따라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란 말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다. 너는 오늘날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 되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한다. 이것이 너의 가장 좋은 간증이다. 이러면 내가 단순히 성육신 하나님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가고 있는 길이 생명의 도, 진리의 도임을 깨달았기에 진정으로 그에 대해 알게 되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예수가 한 단계 사역을 했지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본질적 의미만 이루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은 육신과 함께하므로 둘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즉, 육신을 입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므로 성육신한 예수가 하나님의 첫 번째 성육신이라는 증거가 더 뚜렷해지는 것이다. 이번 단계의 사역은 ‘말씀이 육신 되었다’는 말의 함의를 이룬 것이다. 또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는 말의 의미와 더 깊게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말까지도 확신하게 만든다. 즉, 천지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며, 그의 말씀은 그와 함께하였으므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마지막 시대에는 그의 말씀의 위력과 권병을 한층 더 명확하게

드러내어 그의 모든 말씀을 보게 한다. 즉, 그의 모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는 사역이다. 너는 이런 것을 밝히 알아야 한다. 육신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과 말씀, 육신과 도의 관계를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간증이자 모든 이가 알아야 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실행 4> 중에서

『내 말은 영원불변한 진리이며, 나는 사람의 생명 공급자이자 인류의 유일한 인도자다. 또한 내 말의 가치와 의의는 인류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 자체의 본질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 설령 이 세상에 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내 말의 가치와 인류에 대한 도움은 그 누구도 측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거역하고 반박하거나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는 오직 하나뿐이다. 바로 시간과 사실이 나를 증거하여, 내 말이 곧 진리이자 길이자 생명이며, 내가 한 모든 말은 옳은 것이고,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임을 실증할 것이다. 나는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사실을 알게 할 것이다. 즉, 나의 말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사람, 나의 말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나의 말에서 목표를 찾지 못하는 사람, 나의 말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내 말에 정죄받을 사람이고, 더욱이 내 구원의 은혜를 잃은 사람으로, 내 채찍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너희는 자신의 모든 행위를 숙고해야 한다> 중에서

8)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심판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인류가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시대, 사탄이 통치하는 흑암의 시대를 끝내시는가?

성경 참고:

“말일에 여호와와 그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빛에 행하자”(사 2:2~5)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계 11:17~18)

관련된 하나님 말씀:

『말세에는 성육신한 하나님이 와서 은혜시대를 끝냈다. 그는 와서 주로 말씀을 하며,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고, 말씀으로 사람에게 빛 비춤과 깨우침을 줘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 버린다. 예수가 왔을 때에는 이 단계 사역을 행하지 않았다. 그는 와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하였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이러할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예수가 와서 행한 사역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말세에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한편으로는 사람의 관념 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 사람 마음속에 더 이상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하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과 실제적인 사역을 통해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실제적이고 정상적으로 사역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실재를 알게 하고, 막연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육신이 한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것을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세에 이루려는 사역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현재 사역에 대한 인식> 중에서

『오늘날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온 목적은 천만년 동안 이어져 온 사람의 사상과 정신,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한 하나님의 형상을 바꾸기 위함이며, 이 기회에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즉, 사람의 ‘인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 방법과 태도를 바꿈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을 되돌리는 한편, 사람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바꾸고자 함이다.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방식이고, 정복하고 새롭게 바꾸는 것은 목적이다. 사람이 막연한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미신적인 사상을 타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자 현재의 간절한 뜻이다. 모두가 이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사역과 진입 7> 중에서

『오늘날, 내가 친히 인간 세상에 임하여 친히 음성을 발하니 그제서야 사람은 나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고, 생각 속에 있던 ‘나’의 지위를 제거하고 의식 속에 ‘실제 하나님’의 지위를 각인하게 되었다. 관념이 있고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으로서, 어느 누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어느 누가 하나님과 접촉하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느낌만 주는 하나님일 뿐이다. 내가 명확히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 어느 누가 진정으로 내가 확실히 존재한다고 여기겠느냐? 정말로 조금의 의심도 없겠느냐? 사람 마음속의 ‘나’와 실제의 ‘나’는 그야말로 차이가 너무 커서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내가 성육신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영원히 나를 알지 못할 것이다. 설령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고정 관념이 아니겠느냐? ...

... 사람은 사탄에게 유혹되고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관념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성육신하여 친히 전 인류를 정복하고 사람의 모든 관념을 폭로하며 모든 생각을 쫓아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이 다시는 내 앞에서 자신의 풍채를 뽐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관념으로 나를 섬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로써 사람의 관념 속에 있는 ‘나’를 철저히 제거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 제 11 편> 중에서

『육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성품을 변화시키려면 추구할 목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실제 행사와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오로지 하나님이 입은 육신만이 할 수 있고,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육신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필요성이며, 모든 파괴된 인류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요구하는 만큼 반드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들을 없애야 하고, 사람에게 파괴 성품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하는 만큼 반드시 먼저 이런 파괴 성품을 알게 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을 제거하기 위해 사람이 이 사역을 한다면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말로 들추어내고 벗겨 버리고 나아가 완전히 없앨 수 없다. 그렇게 하면 결국 사람에게 깊이 뿌리박힌 것을 없앨 수 없다. 오직 실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래 형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대신하여

사람이 차츰 깨닫게 해야만 원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사람이 지난날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즉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영의 직접적인 인도 때문이 아니고, 나아가 누군가의 가르침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성육신 하나님 덕분이다. 성육신 하나님의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모습과 사람의 상상 속에 있는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성육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는 사람의 관념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 성육신 하나님을 통해 부각해야만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관념이 모두 드러난다. 성육신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지 않는다면 사람의 관념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실제적인 것으로 부각하지 않으면 막연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역은 누구도 말로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말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 자신만이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을 뿐, 사람은 그 누구도 그것을 대신하지 못한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풍부해도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여 그의 형상과 어떠함을 모두 알려야만 사람이 그를 더 실제적으로 알 수 있고,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물론 하나님의 영 또한 이런 사역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패피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 중에서

『육신으로 하는 사역의 가장 큰 장점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말씀과 당부를 남길 수 있고, 인류에 대한 그의 정확한 뜻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 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그가 육신으로 한 모든 사역과 전 인류에 대한 그의 뜻을 더 정확하고 실제적으로 전해 줄 수 있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니 비로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진정으로 실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이 친히 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소망을 실현하게 되었다. 성육신 하나님은 ‘인류에게 여호와와 닮은 모습만 보여 주던’ 시대를 끝내고, 인류가 막연한 하나님을 믿던 시대도 끝냈다. 특히 마지막으로 성육신한 하나님의 사역은 인류 전체를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아름다운 시대로 인도했다. 율법과 규례의 시대를 끝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하나님, 공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경륜 사역을 펼치고 인류의 비밀과 종착지를 보여 주는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고 경영 사역을 끝내는 하나님, 수천 년간 숨겨져 있던 하나님을 인류에게 공개하여 막연한 시대를 완전히 끝낸 것이다. 또한 전 인류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었던 시대와 사탄을 섬기던 시대를 끝내고, 전 인류를 새로운 시대로 완전히 인도해 들어갔다. 이런 사역은 모두 육신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대신하여 사역함으로써 거둔 성과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역을 해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시는 있는 듯 없는 듯한 것을 찾지 않게 되고, 다시는 막연한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한 사역을 확장할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가 육신으로 했던 모든 사역을 각 종교, 각 교파에 전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전 인류에게 전할 것이다. 또 그의 복음을 얻은 모든 사람은 그가 사역한 사실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직접 보고 들은

것으로, 뜬소문이 아닌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모두 그가 사역을 확장한 증거이자 사역을 확장하는 수단이다. 만일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의 복음이 모든 지역과 나라에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없고 단지 사람의 상상만 있다면 영원히 우주 전체를 정복하는 사역을 할 수 없다. 영은 사람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존재다. 영으로 사역하면 사람에게 더 많은 증거와 사역한 사실을 남길 수 없으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고, 영원히 막연하고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만 믿을 것이다. 또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친히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상상하는 것은 어쨌든 헛된 것이므로 결코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과 그 자신의 사역은 사람이 연기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들 가운데 와서 친히 사역해야만 하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사역을 땅에 옮겨 올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알게 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성육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패괴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 중에서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대를 열고, 말씀으로 사역의 방식을 바꾸며, 말씀으로 전체 시대의 사역을 행한다. 이것이 말씀 시대에 하나님이 사역하는 원칙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각기 다른 위치에서 말씀함으로써 사람에게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기묘함을 보게 한다.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사람을 정복하고 온전케 하며 도태시키기 위한 목적을 더 잘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 시대에 말씀으로 사역하는 진정한 함의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알고, 사람의 본질을 알며, 사람이 진입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 시대에 행하려는 모든 사역을 이루는 한편, 사람을 드러내고 도태시키고 사람에게 시련을 준다. 사람은 말씀을 보고 들었기에 말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 나아가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게 된 것이다. ‘말씀’이라는 단어는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성육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천지를 진동시키고, 사람의 마음과 고정 관념, 그리고 옛 성품을 변화시켰으며, 온 세상의 낡은 면모를 변화시켰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말씀하며 사람을 구원한 분은 오직 오늘날의 하나님밖에 없다. 이로부터 사람은 말씀의 인도 아래에서 살고, 말씀의 양육과 공급으로 살게 되었다. 또한 말씀의 세계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의 저주와 축복 속에서 살게 되었으며, 더 많은 사람이 말씀의 심판과 형벌 속에서 살게 되었다. 이러한 말씀과 사역은 다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옛 창조 세계의 원래 모습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으며, 말씀으로 온 우주 사람을 인도하고 정복하고 구원하며,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옛 세상을 끝낸다. 이렇게 해야 전체 경륜의 모든 부분이 완성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나라시대는 말씀 시대이다> 중에서

『이번에 성육신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사역은 모두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복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치고, 너희를 온전케 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친다. 너희가 힘 있게 증거하면 그것은 사탄을 물리쳤다는 표징이 된다. 먼저 사람을 정복하고 마지막에 완전히 온전케 하는 이유는 다 사탄을 물리치기 위함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탄을 물리치는 동시에 온 인류가 이 공허한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하기 위함이다. 우주 전체의 사역이든 중국에서 하는 사역이든 그 목적은 사탄을 물리침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해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데 있다. 성육신 하나님, 그 정상적인 육신은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 존재한다. 즉,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하의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류를 정복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사탄을 물리치기 위함이다. 전체 경영 사역의 핵심은 사탄을 물리쳐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람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사람을 아름다운 종착지로 이끌어 간다> 중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의 본질은 사탄과 싸우는 것이고, 사탄과의 싸움은 대부분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구현된다. 사람을 정복하는 최종 단계 사역은 사탄과 싸우는 마지막 사역, 즉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하는 사역이다. 사람을 정복한다는 것은 사탄에 의해 파괴된 사탄의 화신을 정복하여 창조주에게 돌아오게 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사탄을 저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면 철저히 구원받게 된다. 그러므로 정복 사역은 사탄과 싸우는 마지막 사역이자 사탄을 물리치는 마지막 단계의 경영이다. 이 단계의 사역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사람을 완전히 구원할 수도, 사탄을 완전히 물리칠 수도 없으며, 인류는 영원히 아름다운 종착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으면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도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 경영 사역의 핵심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과 파괴로 사람은 사탄에게 속박당해 악한 자의 손아귀에 떨어졌다. 이로 인해 사탄은 경영 사역에서 물리칠 대상이 되었다. 사탄이 사람을 점령했고, 사람은 또 전체 경영의 밀천이기에 사람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와야 한다. 즉, 사탄에게 사로잡혀 간 사람을 다시 빼앗아 와야 한다. 그러려면 사람의 옛 성품을 변화시켜 본래 이성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사탄을 물리쳐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로잡혀 간 사람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다. 사람이 사탄의 권세와 결박에서 벗어나면 사탄은 수치를 당한다. 결국 사람을 빼앗아 오고, 사탄은 패하게 된다. 사람은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므로써 모든 싸움의 전리품이 되겠지만, 사탄은 싸움이 끝난 후에 징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사역도 끝을 맺게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람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사람을 아름다운 종착지로 이끌어 간다> 중에서

『나의 말이 완전해져 감에 따라 하나님나라도 땅에서 차츰 모습을 갖춘다. 사람도 서서히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고 땅에서 내 마음의 하나님나라를 세운다. 하나님나라에서 모든 백성이 정상인의 삶을 회복한다. 더는 얼음처럼 차가운 겨울이 아니고 사철이 봄 같은 세상이다.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쓸쓸함을 가까이하지 않고, 세상의 냉혹함을 인내하지 않는다. 사람 간의 다툼, 나라 간의 전쟁이 사라지고, 살육이 멈춘다. 살육으로 인한 피도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온 땅에 기쁨이 가득하고, 곳곳에 세상의 따뜻함이 넘친다. 나는 온 땅을 누비고, 보좌에서 즐기며, 수많은 별 사이에서 생활한다. 천사는 나에게 새 노래와 춤을 바치며, 더 이상 스스로의 ‘나약함’ 때문에 눈물로 얼굴을 적시지 않는다. 내게 더는 천사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나에게 고충을 토로하는 사람도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 제 20 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온전케 되고, 땅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는 바로 ‘일곱 우레가 크게 울릴’ 때이다. 지금은 그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날을 향해 ‘진격’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머지 않은 장래에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한 것은 모두 하나님이 이미 이룬 것이다. 여기에서 세상의 나라는 공중누각처럼 곧 무너지게 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마지막 날이 눈앞에 이르렀고, 큰 붉은 용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꾸러진다. 하나님 계획의 완벽한 성공을 위해 천사 역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자신의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있고, 성육신한 하나님 또한 친히 전쟁터에서 원수와 싸우고 있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있는 곳이 바로 원수가 멸망하는 곳이다. 중국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하나님 손에 멸망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게 조금의 인정사정도 봐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숙해질수록 큰 붉은 용이 더 빨리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람이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백성이 성숙해지는 것은 원수가 멸망할 징조이다. 이것은 ‘대결’에 대한 약간의 해석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의 비밀 해석 · 제 10 편> 중에서

『열국 백성이 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때, 나는 즉시 하늘의 모든 풍요로움을 세상에 베풀어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더없이 풍요로워지게 할 것이다. 옛 세상이 존재할 때, 나는 열국에 크게 진노하고 온 우주에 공개할 행정을 반포할 것이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형벌에 처해질 것이다.』

『내가 온 우주를 향해 말을 할 때 모든 이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즉, 온 우주 아래에서 행한 나의 모든 행사를 보는 것이다. 나의 뜻을 거스르는 자, 다시 말해 사람의 행위로 내게 맞서는 자는 나의 형벌 속에서 쓰러질 것이다. 나는 하늘의 못별을 모두 새롭게 바꿀 것이다. 나로 인해 해와 달도 새롭게 바뀌어 더 이상 예전의 하늘이 아닐 것이며, 땅의 만물도 새롭게 바뀔 것이다. 이는 나의 말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온 우주 아래의 열국을 다시 나누고, 나의 나라로 바뀌, 땅에 있는 나라를 영원히 소멸시키고 나를 경배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또한 땅에 있는 나라는 모두 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할 것이다. 온 우주 아래에 있는

사람 중 마귀에 속하는 자는 모두 멸함을 당할 것이며, 사탄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은 나의 불사름 속에서 쓰러질 것이다. 즉, 현재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종교계는 내가 만민을 형벌할 때 각각 다른 정도로 나의 나라로 돌아올 것이고, 나의 행사로 말미암아 정복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흰 구름을 탄 거룩한 자’가 이미 왔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각기 부류대로 나뉘지고, 각자의 행위에 따라 그에 맞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는 모두 멸망할 것이나 땅에서의 행위가 나와 관련이 없는 자는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땅에 존재하고, 아들과 백성들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만국 만민에게 나타나고, 땅에서 친히 음성을 발할 것이며, 나의 대업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여 모든 사람이 이를 직접 목도하게 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ی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 제 26 편> 중에서

설교 내용 추가

질문(1)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인자로 성육신하여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계의 많은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고 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11), “볼찌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계 1:7)라는 이 성경 말씀들에 근거한 거죠. 또 교계의 목회자들은 우리에게 구름을 타고 강림하지 않는 예수는 다 가짜이기에 저버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이 성경에 부합되는지, 올바른 인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말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자로 재림하신 것은 성경에 명확히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눅 12:40),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뜻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바 되어야 할찌니라”(눅 17:24~25)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전부 ‘인자가 오리라’ 혹은 ‘인자가 강림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인자’라고 하면 인간에게서 태어난, 정상 인성을 갖춘 사람을 가리킵니다. 영이라면 ‘인자’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자’라고 불릴 수 없는 것과 같죠. 어떤 사람은 천사를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천사는 영체이기 때문에 ‘인자’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영체에 속한 것은 전부 ‘인자’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인자’나 ‘그리스도’로 불리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육신 되신 것이기 때문이죠. 즉,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 인간 가운데서 생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리라’ 혹은 ‘인자가 강림하리라’라고 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말세에 재림하실 때 성육신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나라 복음에 관한 대표적인 문답(선집)»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재림은 ‘인자의 강림’이라고 여러 차례 예언하셨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평범한 정상 사람으로, 의식주행도 정상인과 같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영체와는 다릅니다. 그 영체는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으며, 수시로 사라졌다 나타났다 할 수 있고, 굉장히 비범하기 때문에 인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재림을 예언하실 때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바 되어야 할찌니라”(눅 17:2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큰 영광을 지니고 영체가 구름을 타고 공개적으로 나타나신다면, 모든 사람이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바 되어야 할찌니라”라는 말씀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인자로 나타나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황일 때에만 사람은 관념과

상상에 따라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또한 예수님은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 24:36), “만일 일까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 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계 3: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체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다 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 예언하신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도적 같이”라는 말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영체로 나타나신다면, 어떻게 예수님 본인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육신을 통해 인자가 되고 평범한 정상 사람이 되어야만 “아들도 모르고”라는 이 구절이 증명되는 것이죠. 직분을 다하기 전에는 예수님도 자신의 신분이 그리스도이며,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분을 다하신 그 때에야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나님나라 복음에 관한 대표적인 문답(선집)» 중에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예언만 고집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다른 더 중요한 예언의 참뜻을 알아보지도 않는다면 치우친 길로 가서 주님께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는 예언 말고도 ‘도적 같이’ 은밀히 강림하신다는 예언도 많습니다. 계시록 16 장 15 절에 “보라 내가 도적 같이 오리니”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25 장 6 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라고 했습니다. 또 계시록 3 장 20 절에 보면 “불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언은 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자로 은밀히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도적 같이’ 오신다는 말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오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봐도 모르고, 그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신 줄 모른다는 말이죠. 당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사역하신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평범한 인자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적 같이’라는 말로 인자의 나타나심과 사역을 비유하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육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사역하시고 얼마나 많은 진리를 선포하시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육신 하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대하면서 정죄하고 저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에 관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뜻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찌니라”(눅 17:24~25) 주님의 예언에 의하면, 주님은 재림하실 때 인자로 강림하십니다. ‘인자’라고 하면 성육신하심을 말하는 것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체가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체로 구름을 타고 공개적으로 강림하여 엄청난 기세로 전

우주를 뒤흔드신다면 사람들은 다 땅에 엎드릴 것이고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다시 버린 바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인자가 강림한다’, ‘도적 같다’고 예언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인자로 은밀하게 강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나라 복음에 관한 대표적인 문답(선집)» 중에서

오늘날,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중국 땅에서 20 년 넘게 전파됐습니다. 이미 각 종파에 전해졌죠. 그리고 중국 정부가 미친 듯이 탄압하고 체포하는 데다 매스컴을 통해 대대적으로 방송하게 되니 집집마다 사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만든 여러 동영상, 영화 등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전해졌죠.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증거하게 되니 교계의 인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미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마 25:6) 그런데 교계의 목회자들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에 대해 미친 듯이 정죄하고 대적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은 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는 예언만 붙잡고 있을까요? 왜 주님이 오셨다고 증거하는 말을 듣고도 전혀 알아보지 않는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많은 진리와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보고서도 왜 계속 고집스레 자기 관념과 상상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대적하고 정죄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소망하는 걸까요? 그들은 슬기로운 처녀일까요, 미련한 처녀일까요? 그들이 정말 슬기로운 처녀이고 진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상황을 보고도 목을 곧게 세워 대적하고 정죄할까요? 그것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참된 마음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는 참된 모습이란 말입니까?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들이 주님을 믿고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가식일 뿐이고, 복받고 천국에 가려는 것이야말로 진짜 속마음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여 생명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얻어 죄악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뭘까요? 주님이 언제 오셔서 자기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에서 벗어나 천국의 복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진짜 목적입니다. 이런 이유 말고 진리를 선포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저버릴 이유가 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주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듣지도 보지도 접촉하지도 않을까요? 무작정 부인하고 정죄하고 대적할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맞이하려는 사람은 참빛이 나타나길 바라고, 진리와 공의가 권세 잡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길 바라며, 죄악에서 벗어나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 얻어지길 바라죠. 그러나 주님이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기만 기다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버린 사람, 특히 지위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광적으로 정죄하고 대적하는 교계의 지도자들은 모두 다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세 사역에서 드러난 불신파이고 적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하시는 구원 사역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전례 없는 재난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울 것입니다. 그때면 주님이 구름 타고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는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불찌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계 1:7)

-«하나님나라 복음에 관한 대표적인 문답(선집)» 중에서

질문(2)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지만 성육신의 진리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주께서 재림 때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인자로 나타나 사역하시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사람이 없을 것이며,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육신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답변:

성육신이란 무엇일까요? 성육신의 본질은 또 무엇일까요? 이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모르는 진리이자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지만,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이러한 진리와 비밀을 열어 주시기 전까지는 성육신과 성육신의 본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

성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정상 인성과 정상 사유가 있는 육신에 실체화되신 것이며, 평범한 인간으로 세상에 임하여 사역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정상 인성은 물론, 완전한 신성을 갖추셨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정상적인 육신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인류를 이끌고 구원할 수 있는 육신입니다. 그분께는 완전한 신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완전한 신성은 하나님의 영이 지닌 고유한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본질,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하심, 지혜, 전능, 나아가 권병과 능력이 모두 육신에 실체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육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자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 사역을 하시는 실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인자에 불과하겠지만, 그분은 창조된 인류와 본질적으로 다르십니다. 창조된 인류에게는 인성만 있을 뿐, 신성의 본질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정상 인성은 물론, 완전한 신성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계시며, 완전히 하나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신분으로 모든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 소유와 어떠하심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진리와 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된 인류 중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사역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소유와 어떠하심을 선포하실 때도 전부 육신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펼치든 언제나 정상 인성, 즉 정상적인 육신으로 행하셨으며, 초자연적인 면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미 육신에 임하셨으며 평범한 사람이 되셨음을 증명합니다. 이 평범한 육신이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실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지녔기에 하나님을 대표하실 수 있으며, 진리를 선포하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한 신성을 지녔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사람을 위해 진리로 공급하고 양육하고 목양해 주며 전 인류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한 신성이 있기에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갖추셨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성육신, 즉 실체의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가장 큰 비밀은 육신의 형상이 위대한지 아니면 평범하고 정상적인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평범해 보이는 사람 안에 완전한 신성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춰진 신성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날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은밀히 사람들 가운데 강림하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겉모습만 보고 그분이 곧 그리스도요 성육신이심을 알아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인성 안에 신성이 감춰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던 사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고 인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권병과 능력이 있음을 발견한 후에야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후에야 인류는 그분이 정말 성육신한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현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진리를 선포하지도, 사역을 하지도 않으셨다면 아무도 그분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며, 만약 그분이 자신을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증거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그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관념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면 비범한 육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인들처럼 위풍당당하고 위대하고 출중한 풍채에 권병과 능력이 느껴지는 말씀은 물론, 이적과 기사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 성육신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외모에 일반인 같은 사람이라면, 게다가 정상 인성을 갖췄다면 그것은 결코 성육신이 아닐 거라고 여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말씀하고 사역하셨을 당시를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발하셔도 유대교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의논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겉모습이 정상 인성을 지닌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하고 크신 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성육신이라면 반드시 정상 인성을 지녀야 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으신 육신이 평범하고 정상적인 육신임을,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사람임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입으신 육신이 정상 인성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비범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면 성육신의 의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반드시 정상 인성을 지니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말씀’이 ‘육신’ 되셨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성육신은 반드시 정상 인성을 갖추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육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의 겉모습을 보면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며, 그분의 인성은 전혀 초자연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관념과 상상을 척도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면 반드시 그분이 하시는 사역과 말씀을 상고해 봐야 합니다.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분이 선포하신 진리와 행하시는 사역이 정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알고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구하지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본다고 해도 그리스도에 대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령 그리스도와 함께 지낸다고 해도 그분을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대할 것이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정죄하는 일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면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적 본질을 알고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진심으로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품, 소유와 어떠하심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질과 전능과 지혜를 발견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고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실로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고 마음으로 실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예수님이 전하신 도와 선포하신 말씀, 밝혀 주신 천국의 비밀, 나아가 인류에 대한 그분의 요구가 전부 진리이며, 하나님의 음성이자 하나님의 생명 성품, 소유와 어떠하심의 발현임을 알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 예수님이 보여 주신 이적도 전부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을 나타낸 것으로, 창조된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베드로, 요한, 마태, 나다나엘 등 진리를 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그분이 곧 약속의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았으며, 결국 주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반면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도를 듣고 예수님이 나타내신 이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아무 세력도, 명망도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광적으로 날뛰며 대적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행위로 인해 진리와 하나님을 증오하는 적그리스도의 본성이 날날이 폭로되었고, 패괴된 인간의 우매함과 무지함도 전부 드러났습니다. 오늘날 성육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정상 인성을 입고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패괴된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갖추야 할 모든 진리를 말씀하셨고, 말세에 하나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심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패괴된 인간의 사탄 본성을 심판하고 패괴된 인간의 실태를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6 천년 경륜에 대한 비밀도 전부 밝혀 주셨습니다. 또한, 인류에게 죄악에서 벗어나 정결케 되고 구원받는 길을 가리켜 주셨으며, 하나님의 고유한 공의 성품,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하심, 나아가 유일무이한 권병과 능력 등을 나타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역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그대로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는 교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대할 뿐, 그분이 선포하신 모든 진리를 조금도 구하거나 알아보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진리에 대해 알아보지 않고 자신의 관념과 상상만을 고집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일 수도, 그분께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세의 구원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성육신의 진리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일 수 없거니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쉽게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대적할 수 있어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에 관한 진리를 구하고 그 비밀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에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입니다!

-《하나님나라 복음에 관한 대표적인 문답(선집)》 중에서

질문(3) 말세에 하나님은 왜 인자로 성육신하셔서 심판 사역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체와 성육신하신 인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주님을 믿는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 예수님의 영체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거라고, 즉 죽음에서 부활해 40 일간 사람에게 나타나셨던 그 영체로 다시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취하신 육신의 형상과 뚜렷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체는 물질세계의 제약이나 지리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사람 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기에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육신의 정상 인성으로 말씀하고 사역하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시든, 사람들과 함께하시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이라고 느꼈지요. 사람이 본 것은 전부 예수님의 그 육신이 지극히 실제적으로 행하고 고통받고 대가를 치르며,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룬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의 영체가 역사하셨다면 정상적으로 사람과 접촉하고 대화하실 수 있었을까요?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고통을 받으며 대가를 치르실 수 있었을까요?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영체가 역사하셨다면 우리 인류가 자유롭게 그분을 접할 수 있었을까요? 패괴 성품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관념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감히 수시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전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정상 인성을 지니고 물질세계의 제약과 지리적 공간적 제약을 받으며 사유 역시 매우 정상적이기에 영체의 역사를 접한다면 틀림없이 공포를 느끼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이며, 사유 역시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성과를 거두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영체의 역사는 정상 인성으로 펼치는 역사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만세와 만대에 하나님의 선민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영체의 역사를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영체가 직접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과 함께하며 교회들을 목양한다면 분명 적절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돌아오신 것은 심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고 온전케 하시는 한편, 사람을 드러내고, 내치며, 모든 사람을 각기 부류대로 나눈 후 상선벌악하시기 위함이지요. 만약 하나님이 영체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면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전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영체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면 모든 사람이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이고, 땅에는 혼란이 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재난 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일은 또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세에 육신을 입고 인자가 되어 정상 인성을 갖추셔야만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생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야만 실제로 진리를 선포하는 한편,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여 철저히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성육신한 예수님은 정상 인성으로 사역하심으로써 인류를 구속하는 결실을 거두셨습니다. 반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체는 그저 사람들 앞에 나타남으로써 예수님이 성육신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믿음을 공고히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체는 그저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뿐,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정상적인 인성을 갖추셔야만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실 수 있고, 사람을 구속하고 구원하는 성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세 심판 사역으로 사람을 철저히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성육신하셔서 정상 인성으로 사역하셔야만 하며, 예수님의 영체로 사람 앞에 나타나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는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

... 예수님의 영체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기는 했지만, 사람에게 준 느낌은 '신묘막측하여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영체에 접을 먹고 전전긍긍했으며, 그분을 경원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체는 사람과 정상적으로 함께할 수 없고, 사람들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역사하거나 말씀할 수 없기에 인류를 구원하는 결실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다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실제로 사람과 접하며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생활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든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늘 예수님 주변에 모여 앉아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주님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주님의 직접적인 양육과 목양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민이 있든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크나큰 생명의 공급을 얻었고, 하나님의 친근함과 사랑스러움을 느꼈으며, 그로 인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성육신한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접하고 체험하고 알 기회를 얻게 되며, 하나님의 기묘와 지혜, 사람에 대한 실제적인 구원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역하시는 한 가지 측면의 의의이자 실제적인 가치입니다. 이런 사역 성과를 영체는 이루실 수 없습니다.

앞에서 교제한 내용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인자가 되어 정상 인성으로 사역하셔야만 실제로 사람을 심판하고 정복하고 정결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영체가 역사하셨다면 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성육신한 하나님이 인자의 몸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시던 초기에 우리 인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처럼 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관념을 갖고, 그리스도에 대한 존중, 존경, 순종의 마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마음대로 거짓말하며 그분을 기만하고 판단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을 대적하고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오만 방자함과 패역, 대적이 그리스도 앞에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람의 패괴 성품과 패역, 대적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때 드러나는 패역과 대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적나라하다. 그리스도가 인자이며 정상 인성을 지닌 인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불경스레 대하고, 하나님이 육신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패역이 남김없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임함으로 인류의 패역이 모두 파헤쳐졌고, 그리스도의 임함으로 인류의 본성이 다 부각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맹수를 굴 밖으로 유인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 중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인류의 실상에 근거해 진리를 선포하심으로써 사람을 심판하고 드러내고 책망하고 훈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는 참으로 실제적이며, 또한 사람을 몹시도 잘 드러냅니다.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실적 ‘증거’ 앞에 철저히 탄복할 것이며, 자신의 거역과 대적을 시인할 것입니다. 또한, 거스름을 용납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을 보고, 고분고분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에 정복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은 그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원수이다. 그는 그에 대한 사람의 관념과 대적을 심판함으로써 인류의 패역을 모두 들추어낸다. 육신이 하는 사역은 영이 하는 사역보다 더 뚜렷한 성과를 낸다. 그러므로 인류 전체를 심판하는 사역은 영이 직접 하지 않고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며, 사람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 사람은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다가 순종하고, 핍박하다가 받아들이고, 관념을 갖고 있다가 알게 되고, 저버리다가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 성과다. 사람은 모두 그의 심판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만 차츰 그를 알게 된다. 또 대적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정복되고, 그의 형벌을 받는 과정에서 그에게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된다.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영의 신분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패괴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 중에서) 그러므로 말세에는 성육신한 하나님이 심판 사역을 하셔야만 인류를 철저히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성과를 거두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나라 복음에 관한 대표적인 문답(선집)》중에서

질문(4) 율법시대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말세의 심판 사역은 사람을 쓰지 않고 반드시 친히 성육신하셔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답변:

말세에는 왜 반드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심판 사역을 하셔야 하는가, 이것은 진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현현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이자, 우리가 들림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핵심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진리를 알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실 때 왜 사람을 쓰시지 않고 반드시 성육신하여 행하실까요? 그것은 심판 사역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심판 사역은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나타내 사람을 정복하고 정결케 하고 구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이지요.

...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은 다방면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품, 소유와 어떠하심을 나타내며, 모든 비밀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인류의 사탄 본성을 심판하고, 패괴된 인류의 언행을 폭로·해부하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본질과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는 성품을 전 인류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은 하나님 말씀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한 것처럼 드러나고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사람에게 하나님을 공의 성품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과 하늘에서 온 큰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 선 검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찢어 건드릴 수 없이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자신의 패괴된 본모습과 본질을 깨닫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진실로 회개하고, 진리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신하며, 사탄의 권세에서 철저히 벗어나 하나님께 구원받고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행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심판을 체험하면서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는 위엄과 진노를 띠고 구구절절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우리의 사탄 본성, 심지어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패괴 성품까지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본질 안에 오만 방자하고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교활하고 간사한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살아가던 우리는 살아 있는 귀신처럼 사람의 면모를 조금도 갖추지 못해 하나님의 미움과 증오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건드릴 수 없는 부끄러움에 빠져린 후회를 했습니다. 비열하고 사악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된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체험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고, 더럽힘을 용납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거스를 수 없는 공의 성품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고심과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되었으며, 사탄에 의해 패괴된 우리의 본질과 본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났으며, 기꺼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면서 패괴 성품이 조금씩 정결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심판 사역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 성품과 소유, 어떠하심을 나타내 심판 사역을 행하셔야만 우리가 참빛과 하나님의 현현을 볼 수 있고,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은 반드시 진리를 선포하는 한편, 하나님의 공의 성품, 전능, 지혜를 나타내 사람을 정복하고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세 심판 사역은 하나님이 친히 현현하여 행하시는 사역이자, 시대를 열고 끝내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행하셔야지,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사람을 써서 모든 사역을 하셔야지, 성육신으로 사역하셔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정말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인류가 과연 진심으로 하나님의 강림을 환영하는 것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늘 하나님이 사람을 써서 사역하시기를 바랄까요? 그것은 사람의 사역이 사람의 관념과 입맛에 너무나도 잘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쉽게 사람을 숭배하고 높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역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보통 사람의 관념이나 상상,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진리이자 길이자 생명이며,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모두 사탄에 의해 깊이 패괴되었고 사탄의 성품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하여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알아보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숭배하고 맹신하는 사람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간주해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겠습니까? 인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는 게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세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하여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패괴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이 제기한, 하나님은 왜 사람을 써서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시기 않느냐는 물음에 더 대답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신적 본질을 지니고 있지 않기에 진리를 선포하지도, 하나님의 성품, 소유와 어떠하심을 나타내지도 못하며,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인류는 모두 사탄에 의해 패괴되어 죄를 짓는 본성을 갖고 있는데, 무슨 자격으로 다른 이를 심판하겠습니까? 더럽혀지고 패괴되어 자기 자신조차 정결케 하거나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이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겠습니까? 패괴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면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굴욕을 자초할 뿐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며, 또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자 길이자 생명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행하셔야지, 다른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율법시대의 사역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써서 하셨을까요? 율법시대의 사역은 말세 심판 사역과 그 성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율법시대의 사람은 처음 난 인류로, 그렇게 심각하게 패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은 그저 율법과 계명을 반포하여 처음 난 인류가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역은 사람의 성품 변화와 관련이 없으므로 많은 진리를 선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써서 하나님이 반포하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한편,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들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육신하실 필요 없이 모세를 써서 율법시대의 사역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은 깊이 패괴된 인류를 구원하는 것으로, 그저 말씀 몇 편을 선포하고 율법을 반포한다고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수많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 소유와 어떠하심을 완전히 나타내야 하며, 진리와 길, 생명을 모두 인류에게 열어 줘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얼굴을 마주하고 나타나신 것처럼 인류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그들을 철저히 정결케 하고 구원하고 온전케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친히 사역을 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몇 편의 말씀을 전달하는 건 허락하셔도,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 소유와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모든 진리를 선포하는 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패괴된 인류는 그런 사역을 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써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진리를 나타낸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쉽습니다. 인류는 패괴 성품을 갖고 있고 관념과 상상을 드러낼 수 있기에 사역할 때도 불순물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쉽게 사람의 소유와 어떠함을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하심으로, 사람의 불순물을 진리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욕되게 하기 쉽습니다. 이 밖에,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써서 자신의 모든 성품과 진리를 나타내신다면, 사람의 불순물로 인해 우리는 복종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반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탄이 빌미를 잡고 참소하며, 우리를 선동해 하나님께 불만을 품게 하고, 반기를 들게 하여 독립 왕국을 세우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생기는 결과입니다. 특히 말세에 깊이 패괴된 인류를 구원할

때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역하셔도 사람이 잘 받아들이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써서 사역하시면 인류는 더욱 받아들이거나 순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아닙니까? 교계의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정죄하는 그들의 모습이 지난날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교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패괴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

하나님이 말세에 육신을 입고 심판 사역을 하시는 의의는 매우 큼니다. 말세에 하나님은 성육신으로 땅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서 생활하시면서 인류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 소유와 어떠하심을 모두 공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혐오하시는지, 어떤 사람에게 노하고 어떤 사람을 징벌하시는지, 하나님의 희로애락과 사람에 대한 요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인류는 어떤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 등등을 모두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정확한 추구 목표를 갖게 되었고, 더는 막연한 신앙 속에서 찾아 헤매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은 ‘인류에게 여호와의 뒷모습만 보여 주던’ 시대를 끝내고, 인류가 막연한 하나님을 믿던 시대도 끝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과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각종 시련과 연단을 체험하고, 중국 공산당의 광기 어린 추적과 잔혹한 박해를 겪으며 온갖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공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위엄과 진노, 전능과 지혜를 보았으며,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직접 뵈는 것처럼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체를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 전능과 지혜, 소유와 어떠하심은 조금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따라 죽을 때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으며,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상상을 철저히 없애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와 공훈이어서 늘 사람을 사해 주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심판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비와 공훈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의와 위엄, 진노임을 진실로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든 그분을 거스르는 자는 반드시 징벌받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처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을 실제로 알게 되었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훈을 느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를 참되게 깨닫고, 하나님의 낮춤과 감춤, 고심, 많은 사랑스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희로애락과 신실함, 아름다움과 선함, 권병, 주재, 모든 것에 대한 감찰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소유와 어떠하심은 모두 우리에게 나타나 마치 하나님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마주한 듯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는 관념과 상상으로 하나님을 믿거나 따르지 않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진실한 경외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하여 진리를 선포해 심판 사역을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죄악에서 벗어나 정결케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진실로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 보든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은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하여 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사람의 관념과 상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써서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신다면, 결코 이러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나라 복음에 관한 대표적인 문답(선집)» 중에서

질문(5) 패괴된 인간은 왜 반드시 성육신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하는지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 교제 부탁드립니다.

답변:

패괴된 인류는 왜 반드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사람의 육체가 사탄에게 미혹되고 패괴되었기에 인류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면서 전혀 선과 악, 미와 추를 구분하지 못하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도 파악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탄의 철학과 법칙, 본성에 기반해 살면서 오만 방자하고, 유아독존으로 제멋대로 행동하고, 무법천지이며, 완전히 사탄의 화신, 사탄에게 물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말종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본질을 손금 보듯 꿰뚫어 보고 계시며, 인류가 어느 지경까지 패괴되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사탄 본성과 패괴된 성품을 폭로하고 해부하실 수 있으며,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는 한편, 사람을 철저히 정복하고 정결케 하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창조된 그 어떤 사람도 인류의 패괴된 본질을 명확히 알 수 없으며, 더욱이 인류에게 올바른 사람이 되는 진리를 베풀어 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깊이 패괴된 인류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철저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친히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 갖춰야 할 모든 진리를 알려 주셔야만, 또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며 사탄의 간계와 각종 그릇된 논리와 사설을 꿰뚫어 보게 하셔야만, 사람이 사탄을 저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역하시는 것 자체가 각 부류 사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사람은 모두 오만 방자하고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진리를 선포하실 때, 분명 갖가지 관념을 갖고 대적할 것이며 심지어는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패괴된 인류의 실상이 여기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드러낸 패괴와 본성, 본질에 근거해 심판을 행하시는데, 이렇게 해야만 사람을 정복하고 구원하고 온전케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심판 가운데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되고 정결케 됩니다. 사람은 철저히 정복되어야 비로소 성육신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결심을 세워 진리를 추구하기 시작하며, 더는 사탄의 철학이나 법칙으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탄을 철저히 물리치실 것이고, 패괴된 인류는 하나님이 사탄을 물리치신 전리품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패괴된 인류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오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역만이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성육신하신 하나님만이 철저히 인류를 정복하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써서 사역하시면 절대로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패괴된 인류는 반드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얼굴을 마주하여 심판하고 정결케 하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사람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마주하여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말세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정결케 되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과를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철저히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시는 가장 좋은 방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육신하셨기에 우리 인류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실제 사역을 체험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정확한 하나님 말씀의 공급과 직접적인 목양, 양육을 받으면서 조금씩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하지 않았다더라면 이런 실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패괴된 인류를 구원하실 때, 인류의 언어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뜻, 성품, 나아가 소유와 어떠하심을 정확하게 알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찾거나 구하지 않고도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요구와 실행의 길을 알게 되며, 동시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은혜시대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번까지 하오리이까”(마 18:21)라고 묻자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네게 이르노니 일곱번 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할찌니라”(마 18:22)라고 답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 사람을 붙들어 주고 양육하실 수 있으며, 사람에게 가장 실제적이고 명확한 공급을 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세에 육신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실제 상태에 맞춰 진리를 선포하시는 한편, 하나님의 성품 및 소유와 어떠하심을 나타내 사람을 붙들어 주고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믿음에 존재하는 오차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알려 주시며, 사람에게 가장 실제적이고 정확한 생명 공급과 양육을 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상태로 살면서도 그것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심판하여,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우리의 사탄 본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을 얻으려는 속셈으로 하나님을 따르면서 스스로 옳바르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점을 겨냥해 우리를 폭로하셨으며, 하나님을 믿을 때 마땅히 가져야 할 관점에 대해 알려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심판을 겪으며 하나님을 오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또 사람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고심을 알려 주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풀어 주셨습니다. 이에, 모든 하나님의 선민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도움과 공급이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기만 하면 찾거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가장 실제적인 양육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 소유와 어떠하심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졌기에 어떻게 추구해야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깨닫고, 사탄의 간계를 꿰뚫어 볼 수 있었으며, 사탄에 의해 깊이 패괴된 자신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차츰 죄악과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 성품이 변화하고, 진정한 인생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진리의 실재를 살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은 사람에게 가장 실제적인 공급과 양육을 해주었습니다. 사람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심판 사역에 많은 관념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인류에게 생명의 도와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주셨고, 꼭 필요한 지지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 하나님은 말세에 성육신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 육신은 평범하고 정상적인 인자이시기에 비범한 기개나 위대한 형상이 없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많은 관념을 지닌 채 그분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저버리지만,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진리와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심판 사역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의 공급과 진리를 얻게 해 주었고, 하나님의 현현을 완전히 보여 주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과 거룩한 본질을 보았으니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생생하게 생활하시는 것을 보았고, 우리가 확실히 보좌 앞으로 들림 받았다는 것을 느꼈으며,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한 채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고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공급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을 체험하면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고심을 차츰 깨달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겪으신 고난과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고 구원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난날 너무나도 패역하고 제멋대로였던 스스로를 증오하며, 하나님께 참된 사랑과 순종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체험하면서 우리는 지금의 이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전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구원임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말세 그리스도는 확실히 패괴된 인류의 가장 큰 구원이자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칭찬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나라 복음에 관한 대표적인 문답(선집)》 중에서

질문(6) 은혜시대,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어 사람을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또다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며 심판 사역으로 사람을 철저히 정결케 하고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두 번이나 성육신하여 인류 구원 사역을 하실까요? 두 번의 성육신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답변:

하나님은 왜 두 번이나 성육신하여 인류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두 번의 성육신이 인류의 구원에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구속 사역이든,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말세 심판 사역이든 모두 사람이 대신할 수 없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행하셔야 합니다. 은혜시대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고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셨지요. 이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세에 돌아오신 예수님이 왜 또다시 성육신하여 인자의 모습으로 사역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측면의 진리를 알려 주시지도, 이러한 비밀을 밝혀 주시지도 않는다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

은혜시대에 처음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오직 구속 사역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율법의 저주와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해 주셨지요. 우리는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구속 사역이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의 참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는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죄짓는 본성과 사탄 성품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자백하고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죄의 본성과 본질을 알지 못했으며, 죄보다 더 깊은 패괴 성품은 더더욱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알게 된 죄는 율법을 어기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죄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 심각한 죄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사탄 성품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사탄의 본성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우리의 본성은 사탄의 어떤 독소로 이뤄져 있는지, 사탄의 철학과 논리 법칙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등 사탄에 속하는 것들을 우리는 왜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은 죄들이 예수님께 사함 받았다면 왜 우리는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또 범하는 것일까요? 죄를

사함 받으면 정말 정결케 된 걸까요? 이것은 은혜시대의 그 누구도 명확히 알지 못했던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절감하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주님을 믿은 후에도 늘 거짓말을 하고 허영을 탐하며 진리를 혐오하고 사악한 것을 숭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만 방자하고 교활하고 간사하며, 이기적이고 탐욕스럽지요. 사탄의 패괴된 성품 속에서 살면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생하며 사역하는 것은 다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는 기쁨을 느끼며 확신을 갖고 주님을 믿지만, 천재(天災)와 인재(人災)가 임하거나 집안에 불행한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반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의 관념과 상상에 맞지만 않으면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죄 사함만 받았을 뿐, 완전히 죄악에서 벗어나 정결케 된 것은 아니며,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얻어진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돌아오신 예수님이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종교인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독하며, 공공연하게 적대시하고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정죄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들림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악한 세력이 천국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진리를 증오하는 그 적그리스도들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실까요?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믿어 죄를 사함 받기는 했지만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며, 하나님께 얻어져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 된 것은 더더욱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정결케 되고 완전히 하나님께 얻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시 한 번 성육신하여 사람을 철저히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죄를 사함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라도 한 것처럼, 주님께 들림 받아 천국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우리, 이 패괴된 인류가 너무 순진하고 유치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념과 상상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사탄에 의해 패괴된 인류에게 그저 죄와 관련된 문제만 존재할까요? 죄를 짓는 근원은 무엇인지, 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왜 죄를 증오하시는지, 인류는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사탄에 의해 깊이 패괴되었지만, 어느 지경까지 패괴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서 깊이 패괴된 인류의 본모습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인류는 진리를 선포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이 사실은 인류가 이미 사탄의 후예, 사탄의 부류가 되었으며, 인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최소한의 이성과 양심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정상 인성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는 이미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죄 사함을 받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본성도 하나님께 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득한 사탄 성품이 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탄에게 속하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심판과 형벌로 해결하십니다.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재난으로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과 심판이 없으면 파괴된 인류는 정복될 수 없으며, 더욱이 땅에 엎드려 진실로 통회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육신을 입고 심판 사역을 하셔야 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에 늘 의문과 관념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깊이 파괴된 인류의 본모습을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이 지니는 의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참도를 찾거나 알아보지도 않지요.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

성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고,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정상 인성이 있어야 하며, 또 반드시 정상 인성으로 말씀하고 사역하셔야 합니다. 설령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신다고 해도 정상 인성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매우 정상적인 것 같지요.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상 인성이 없거나 정상 인성으로 사역할 수 없다면 그것은 성육신이 아닙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육신에 실체화하여 정상 인성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행하심으로써 사람을 구속하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의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의 성육신이 갖는 의의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의의는 두 번의 성육신으로 성육신의 의의가 완전해지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사역이 이루어졌으며, 인류 구원의 경륜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두 번의 성육신을 통해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성육신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고, 말세 심판 사역을 위해 길을 닦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실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첫 번째 성육신은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케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면, 하나님의 두 번째 성육신은 말세 심판 사역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인류를 사탄의 권세하에서 철저히 구원하고, 사탄의 성품과 권세에서 벗어나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 얻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말세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모든 진리를 선포하셨고, 육신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으며, 육신에서 전하려는 모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사역을 이룬 것입니다. ... 하나님은 두 번의 성육신을 통해 육신에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 즉 인류를 철저히 구원하는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성육신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성육신은 없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성육신 사역은 철저히 끝났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두 번의 성육신을 통해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의 성육신으로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케 하셨다’,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은혜시대의 구속 사역만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인류 구속 사역에 불과하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사역을 이루지 않으셨다는 것은 모르지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행하신, 인류를 철저히 구원하는 모든 진리를 선포하지는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 16:12~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다시 육신을 입고 인자가 되셨습니다. 말세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사역을 하시는 한편,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모든 진리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을 선포하셨지요. 이로써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신분으로 전 우주를 향해 말씀하셨으며, 인류 구원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전 인류에 대한 요구, 인류의 종착지를 모두 선포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 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이 창세 이래 처음으로 전 인류를 향해 한 말씀이자, 처음으로 매우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피조물인 인류를 향해 한 말씀이다. 물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여러 편으로 전 인류를 향해 말씀하는 것 역시 전례 없던 일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선포한, 사람을 폭로하고, 인도하고, 심판하고, 사람과 마음을 나눈 첫 번째 저작이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자취와 거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인류에 대한 염려를 담은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이는 하나님이 창세 이래 처음으로 셋째 하늘에 서서 인류를 향해 한 말씀이며, 또 처음으로 그의 고유한 신분으로 말씀을 통해 인류에게 나타나 선포한 마음의 소리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내용 소개> 중에서)

『나는 인간 세상에 인류의 마지막 날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내 모든 성품을 인류에게 널리 알려 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모두 ‘마음껏 감상하게’ 하고, 내가 정말로 인간 세상에, 만물이 번식하는 땅에 왔음을 보여 줄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며, 인류를 창조한 후 처음 하는 ‘고백’이다. 나는 너희 모두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두길 바란다. 나의 채찍이 다시 한 번 인류에게, 나를 적대시하는 모든 인류에게 다가왔으니 말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너는 종착지를 위해 충분한 선행을 예비해야 한다> 중에서)

하나님이 두 번의 성육신으로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케 하셨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험이 없기에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두 번의 성육신을 통해 하신 사역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육신하셨을 때,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 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말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으며,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지요. 또한, 예수님은 시험이 임하자 광야에서 40 일간 금식하기도 하셨고, 바다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이적을 나타내고 산에 올라 변형될 수 있었기에 성육신하셨음에도 사람 눈에는 보통 사람 같지 않고 비범해 보였습니다. 늘 이적과 기사가 함께했으니까요. 이 밖에, 예수님은 오직 한 단계의 인류 구속 사역만을 행하고, 구속 사역의 진리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로 공훈과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셨지요. 사람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모든 진리를 선포하지도, 인류에게 거스름을 용납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성육신은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케 하셨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예수가 한 단계 사역을 했지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본질적 의미만 이루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은 육신과 함께하므로 둘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즉, 육신을 입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함께하므로 성육신한 예수가 하나님의 첫 번째 성육신이라는 증거가 더 뚜렷해지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실행 4> 중에서) 하나님의 말세 성육신은 첫 번째 성육신과 다릅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전혀 나타내지 않고, 초자연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사역하시며 진리를 선포해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경륜의 모든 비밀을 밝히시는 한편, 하나님의 고유한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 소유와 어떠하심, 하나님의 뜻과 인류에 대한 요구를 모두 드러내셨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사탄 본성과 각종 패괴 성품을 심판하고 폭로하여 사람을 정복하고 온전케 하시며, 사람을 드러내고 내치시며, 각기 부류대로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인류에게 베푸신 모든 진리는 다 육신의 정상 인정 안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면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말씀하고 사역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말씀은 모두 진리로서 권병과 능력이 있으며,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패괴된 본질과 본모습을 심판하고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시며, 사람을 손금 보듯 꿰뚫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고, 거스름을 용납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한 성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깨우침과 권면을 통해 우리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공훈과 염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 방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를 깨달았으며,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고심을 느끼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구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과 일, 사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또 하나님의 회로애락이 모두 긍정적인 것의 실제임을, 하나님 성품의 선포이자 생명 본질의 자연스러운 드러남임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고지상함과 위대함, 낮춤과 감춤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과 본모습을 진실로 이해하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났으며, 하나님께 진실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두 번째 성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사역하심으로써 이루신 성과입니다. 두 번째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 되셨음을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평범하고 정상적인 육신이 바로 진리의 성령의 화신이지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곧 진리이자 길이자 생명이시고, 유일하신 참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사역하심으로 비로소 성육신의 의의가 완전케 되었습니다.

.....

이제 하나님이 두 차례 성육신하심으로써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케 하신 것에 대해 모두 깨달은 바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모두 성육신의 사역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구속 사역으로, 선포하신 진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체험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한계가 있었지요. 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시면서 패괴된 인류에게 하실 공의로운 심판의 모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을 보았고,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한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세에 성육신하여 육신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을 철저히 끝내셨으며, 육신으로 선포해야 할 모든 진리를 선포하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사실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의 성육신으로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두 번의 성육신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기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성육신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며, 세 번, 네 번 성육신하시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의 성육신으로 이미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으며, 육신으로 선포해야 할,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진리를 다 선포하셨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두 번의 성육신을 통해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나라 복음에 관한 대표적인 문답(선집)》중에서

질문(7) 하나님은 두 번 성육신하시면서 그리스도가 곧 진리, 길, 생명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곧 진리, 길, 생명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가 곧 진리와 길과 생명이심을 정말로 알게 된다면 너무 귀한 것이죠! 이걸 그리스도에 대해 진실한 인식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래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실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순종해야 진실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진리와 길과 생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선포로 말미암았기에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진리와 길과 생명이 아닙니다. 이걸 쉽게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검증하시는 기준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아는지의 여부에 근거합니다. 이걸 하나님께 칭찬받는 유일한 기준이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들림 받아 가장 먼저 이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재난 속에서 연단받습니다. 그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다 미련한 처녀에 속하니깐요. 마치 주님이 오셨을 때 진리를 좋아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실되게 따르는 사람을 따로 모아서 직접 가르쳐 훈련시키시며 종교인과 배만 불리려고 믿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막연한 하나님만 믿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눈멀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깐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온전케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라고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생명의 도는 아무나 갖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비롯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본질과 생명의 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자 끝없이 솟아나는 생명수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다. 창세 이후 하나님은 생명의 기운을 품고 있는 사역,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을 수없이 행하였으며,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숏한 대가를 치렀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영생이자 사람을 부활시키는 도이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말세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영생의 도를 줄 수 있다> 중에서) 『하나님만이 생명의 도를 지니고 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이라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도라면 하나님 자신이 곧 영생의 도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말세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영생의 도를 줄 수 있다>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진리와 길과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도를 갖추셨습니다. 성경에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요 1:1)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진리, 길, 생명입니다. ‘말씀’이 ‘육신’ 된 것은 하나님 영이 육신에 실체화된 것이며 즉 진리, 길, 생명이 육신에 오신 겁니다. 다음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진리의 성령’이 ‘육신’에 실체화되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즉, 모든 진리, 길, 생명이 모두 육신으로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확실히 땅에 왔으며, 영이 육신으로 왔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실행 4> 중에서) 하나님은 두 번 성육신하셔서 자신이 진리와 길과 생명이라고 증거하셨는데 이것은 인류에게 주신 큰 계시입니다. 즉, 그리스도만이 진리와 길과 생명이시고 그리스도의 역사와 말씀, 소유와 어떠하심은 진리와 길과 생명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실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신분으로 하신 하나님 자신의 사역인데 시대를 여시고 끝마치며 전 인류를 향해 전체 시대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한 단계 사역을 위해 하시는 완전한 말씀이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하심,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와 뜻을 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다 진리어서 사람의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은혜시대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선포하셔서 인류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할 자격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공훈과 자비를 보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구속 사역이 가져온 효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죄를 사해 주시고 죄에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하셔서 은혜시대를 여시고 율법시대를 마치셨습니다. 말세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모든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심판 사역을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전능과 지혜를 보게 하십니다. 또 사람의 생명 성품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철저히 벗어나 진실로 하나님께 얻어지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나라시대를 여시고 은혜시대를 마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 그리고 나타내신 모든 것은 다 진리입니다. 인류에게 가리켜 주신 길과 가져오신 생명의 공급과 구원은 그 누구도 갖추거나 선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류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며 진리와 길과 생명이시고 인류의 유일한 구속과 구원이십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진리와 길과 생명을 갖출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 <<하나님나라 복음에 관한 대표적인 문답(선집)>> 중에서

질문(8) 말세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하나님나라 시대를
여시고 사탄이 통치하던 옛 시대를 끝내셨다고 증언하는
여러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 사역으로 인류가 막연한 하나님을 믿던 시대와
사탄이 통치하던 어둠의 시대를 끝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답변: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시면서 인류를 정결케 하는 모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마련해 주신 종착지 등의 모든 비밀을 다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사역으로 인류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시대를 끝마치시고,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고 통치하는 흑암하고 사악한 시대도 끝마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확실히 시대를 끝마치고, 시대를 개척하는 사역입니다.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오늘날, 내가 친히 인간 세상에 임하여 친히 음성을 발하니 그제서야 사람은 나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고, 생각 속에 있던 ‘나’의 지위를 제거하고 의식 속에 ‘실제 하나님’의 지위를 각인하게 되었다. 관념이 있고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으로서, 어느 누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어느 누가 하나님과 접촉하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느낌만 주는 하나님일 뿐이다. 내가 명확히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 어느 누가 진정으로 내가 확실히 존재한다고 여기겠느냐? 정말로 조금의 의심도 없겠느냐? 사람 마음속의 ‘나’와 실제의 ‘나’는 그야말로 차이가 너무 커서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내가 성육신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영원히 나를 알지 못할 것이다. 설령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고정 관념이 아니겠느냐?』(<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제 11 편> 중에서) 『사람은 사탄에게 유혹되고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으며 ‘관념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성육신하여 친히 전 인류를 정복하고 사람의 모든 관념을 폭로하며 모든 생각을 쫓아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이 다시는 내 앞에서 자신의 풍채를 뽐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관념으로 나를 섬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로써 사람의 관념 속에 있는 ‘나’를 철저히 제거할 것이다.』(<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제 11 편> 중에서)

『반면, 하나님나라 건축은 신성으로 직접 일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내 말을 아는 것을 기초로 나의 소유와 어떠함을 알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육신에 거하는 나를 알게 함으로써 전 인류가 막연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끝내고,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늘의 하나님’의 지위를 끝내는 것이다. 즉,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육신을 통해 나의 행사를 알게 함으로써 내가 땅에 거하는 시대를 끝내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제 8 편> 중에서)

『육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성품을 변화시키려면 추구할 목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실제 행사와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오로지 하나님이 입은 육신만이 할 수 있고,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육신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필요성이며, 모든 패괴된 인류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요구하는 만큼 반드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들을 없애야 하고, 사람에게 패괴 성품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하는 만큼 반드시 먼저 이런 패괴 성품을 알게 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을 제거하기 위해 사람이 이 사역을 한다면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말로 들추어내고 벗겨 버리고 나아가 완전히 없앨 수 없다. 그렇게 하면 결국 사람에게 깊이 뿌리박힌 것을 없앨 수 없다. 오직 실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래 형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대신하여 사람이 차츰 깨닫게 해야만 원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사람이 지난날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즉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영의 직접적인 인도 때문이 아니고, 나아가 누군가의 가르침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성육신 하나님 덕분이다. 성육신 하나님의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모습과 사람의 상상 속에 있는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성육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는 사람의 관념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 성육신 하나님을 통해 부각해야만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관념이 모두 드러난다. 성육신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지 않는다면 사람의 관념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실제적인 것으로 부각하지 않으면 막연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역은 누구도 말로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말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 자신만이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을 뿐, 사람은 그 누구도 그것을 대신하지 못한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풍부해도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여 그의 형상과 어떠함을 모두 알려야만 사람이 그를 더 실제적으로 알 수 있고,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물론 하나님의 영 또한 이런 사역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패괴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 중에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자는 내 말의 목적을 헤아리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할 것이다. 모두가 내가 한 말을 받아들여 나를 더 깊이 알게 될 때는 모든 백성들이 나를 살아 낼 때이며, 육신에서의 내 사역이 완성되고, 내가 육신에서 온전히 신성으로 살아가는 때이다. 이때는 모두가 육신에 거하는 나를 알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한다. 이것이 바로 ‘열매’이다. ... 최종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강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6 천년 경륜의 핵심이자 6 천년 경륜의

결정체이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육신의 의의를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육신에 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행한 일을 알게 됨으로 막연하게 믿었던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제와 오늘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의 비밀 해석·제 3 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전, 즉 2 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전 인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것에 대해 전혀 인식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대자연이 인류를 만들었다고 여기고 있고 또 대부분은 각종 악령과 우상을 숭배하면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며 가짜 신을 숭배하고 있기에 곳곳에서 절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종 악령과 사탄을 참하나님으로 여기고 있고 심지어 전 인류는 사탄을 숭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인류는 완전히 사탄에게 통제되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며 흑암과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율법시대의 사역을 시작하셔서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 사역하셨을 뿐, 성육신으로 오셔서 친히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율법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효과에만 도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여전히 사탄을 숭배하고 섬기고 있고, 여전히 흑암과 죄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하나님은 처음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구속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가르치셨고 진리를 선포하셔서 인류에게 구세주의 나타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에야 인류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재자이심을 인정했습니다. 또 그때에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패괴된 인류 중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악령을 믿고 사탄을 따르는 사람은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사탄은 계속 인류를 미혹하고 패괴시킵니다. 심지어 교계의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인식이 없고,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기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역사를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것처럼 처음으로 구세주의 나타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또 성육신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시기에 하나님은 최종에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과 동심합의하는 한 무리 사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한 무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체험했기에 하나님의 공의 성품에 대해 진실한 인식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으며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얻어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패괴된 인류 중에서 처음으로 온전케 하여 얻은 사람이자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으로 처음 만드신 이긴 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이 인간 세상에

전해지고 확장되면서 인류는 점차 깨어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흥취가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도를 찾고 구하면서 패괴된 전 인류는 점차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음성을 발하고 말씀을 하심으로 가져온 효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성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이 완전해져 감에 따라 하나님나라도 땅에서 차츰 모습을 갖추다. 사람도 서서히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고 땅에서 내 마음의 하나님나라를 세운다. 하나님나라에서 모든 백성이 정상인의 삶을 회복한다. 더는 얼음처럼 차가운 겨울이 아니고 사철이 봄 같은 세상이다.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쓸쓸함을 가까이하지 않고, 세상의 냉혹함을 인내하지 않는다. 사람 간의 다툼, 나라 간의 전쟁이 사라지고, 살육이 멈춘다. 살육으로 인한 피도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온 땅에 기쁨이 가득하고, 곳곳에 세상의 따뜻함이 넘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제 20 편> 중에서)

『내가 하나님나라에서 정식으로 왕권을 잡을 때, 백성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에게 의해 온전케 될 것이다. 세상의 각 나라가 분열될 때는 내 나라 건축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 때이기도 하다. 즉, 내가 형상을 바꾸어 전 우주를 마주할 때이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내 영광스러운 얼굴과 본모습을 볼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제 14 편> 중에서)

『최종적으로 그는 전 우주의 사람들 속에 있는 불결하고 불의한 것들을 모조리 깨끗이 불사를 것이며, 그것을 통해 그가 공홀과 자비의 하나님이자, 지혜롭고 기묘하며 거룩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 줄 것이다. 그는 전 인류 가운데 악한 자들을 불사르고 심판하며 징벌할 것이다. 또 온전케 될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연단, 시련을 주면서도 위로해 주고 붙들어 주며 말씀으로 공급하고 책망하고 훈계할 것이다. 그리고 도태될 사람들에게는 징벌을 내리며 그에 따른 보응을 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두 번의 성육신으로 성육신의 의의가 완전해지다> 중에서)

『열국 백성이 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때, 나는 즉시 하늘의 모든 풍요로움을 세상에 베풀어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더없이 풍요로워지게 할 것이다. 옛 세상이 존재할 때, 나는 열국에 크게 진노하고 온 우주에 공개할 행정을 반포할 것이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형벌에 처해질 것이다.』

내가 온 우주를 향해 말을 할 때 모든 이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즉, 온 우주 아래에서 행한 나의 모든 행사를 보는 것이다. 나의 뜻을 거스르는 자, 다시 말해 사람의 행위로 내게 맞서는 자는 나의 형벌 속에서 쓰러질 것이다. 나는 하늘의 못별을 모두 새롭게 바꿀 것이다. 나로 인해 해와 달도 새롭게 바뀌어 더 이상 예전의 하늘이 아닐 것이며, 땅의 만물도 새롭게 바뀔 것이다. 이는 나의 말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온 우주 아래의 열국을 다시 나누고, 나의

나라로 바뀌, 땅에 있는 나라를 영원히 소멸시키고 나를 경배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또한 땅에 있는 나라는 모두 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할 것이다. 온 우주 아래에 있는 사람 중 마귀에 속하는 자는 모두 멸함을 당할 것이며, 사탄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은 나의 불사를 속에서 쓰러질 것이다. 즉, 현재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종교계는 내가 만민을 형벌할 때 각각 다른 정도로 나의 나라로 돌아올 것이고, 나의 행사로 말미암아 정복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흰 구름을 탄 거룩한 자’가 이미 왔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각기 부류대로 나뉘지고, 각자의 행위에 따라 그에 맞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는 모두 멸망할 것이나 땅에서의 행위가 나와 관련이 없는 자는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땅에 존재하고, 아들들과 백성들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만국 만민에게 나타나고, 땅에서 친히 음성을 발할 것이며, 나의 대업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여 모든 사람이 이를 직접 목도하게 할 것이다.』 (<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 제 26 편 >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역사는 사람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시대를 끝마쳤고, 사탄이 전 인류를 통치하고 패괴시키는 인류의 흑암하고 사악한 시대를 끝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권세를 잡는 하나님나라시대를 개척하셨습니다. 왜 교계는 하나님의 말세 역사에서 드러나 도태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교계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막연한 하나님, 관념 속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 하나님의 진실한 형상과 성품은 그들의 마음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육신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며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악인은 반드시 징벌받을 것이다> 중에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나신’ 사실을 이루셨고 전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성품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전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속에서 살게 되면서 정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인류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과 사탄에 속하는 사람은 다 말씀의 드러냄 속에서 각기 부류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소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의 공급으로 점차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하고 전 인류의 운명을 주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은 사람이 범하는 것을 용납치 않는다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만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사탄에 속한 사람은 사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상선벌악(賞善罰惡)하셔서 재난으로 사탄에 속한 모든 종류를 훼멸하실 것인데, 그 어떤 사악한 세력도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 속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을 하나님나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곧 이루게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나라시대는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사람에게 나타내는 시대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나라시대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대이고 공개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시대이기에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땅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예언을 완전히 응한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계 21:3~4)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나라에서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더없이 행복하다. 물은 백성들의 행복한 삶에 덩실덩실 춤을 추고, 산들은 백성들과 함께 나의 풍성함을 누린다. 모든 사람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분발하며, 나의 나라에서 충성을 다한다. 하나님나라에서는 더 이상 패역과 대적을 찾아볼 수 없다. 하늘과 땅은 서로 의지하고, 사람과 나는 서로에게 애뜻하며, 오손도손 정답게 살면서 서로에게 기댄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 백성들아! 환호하라!> 중에서) 하나님나라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살아남은 인류가 땅에서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거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또한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세에 성육신하셔서 이루시는 사실이고 또한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약속과 축복입니다.

— 시나리오 문답 중에서

2.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계획-3 단계 사역

1) 하나님은 왜 인류 구원 사역을 하시는가?

관련된 하나님 말씀:

『처음에 하나님은 안식 가운데 있었다. 그때 땅에는 인류도 만물도 없었으며, 하나님은 그 어떤 사역도 행하지 않았다. 인류가 생겨나고 또 패괴된 뒤에야 하나님은 경영 사역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안식하지 않고 인류 가운데서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다. 하나님은 인류의 패괴로 인해 안식을 잃었고, 또 천사장의 배반으로 인해 안식을 잃었다. 사탄을 물리치지 않고 패괴된 인류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사람에게 안식이 없으면 하나님께도 없다. 하나님이 다시 안식에 들어갈 때, 사람 역시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안식에 들어간 삶이란 전쟁도 더러움도 없고 불의도 남아 있지 않은 삶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사탄(적대 세력)의 방해도 사탄의 패괴도 없으며,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의 침범도 없이 만물이 각기 부류대로 나뉘어 창조주를 경배하고, 하늘과 땅 모두 평온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안식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갈 때 땅에는 더 이상 불의한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적대 세력의 침범도 없을 것이다. 인류 또한 새로운 경지에 들어가 더 이상은 사탄에 의해 패괴된 인류가 아니라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다가 다시 구원받은 인류가 될 것이다. 인류가 안식하는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인류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에 안식을 잃은 것이지 처음부터 안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중에서

『사실은 이렇다. 땅이 없었을 때는 하늘에서 천사장이 가장 큰 천사였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를 다스렸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사장에게 준 권병이었다. 하나님 외에는 천사장이 천사 중에서 가장 컸다. 그 후에 인류가 창조되자 천사장은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더 큰 일을 저질렀다. 그가 배반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병을 뛰어넘어 인류를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천사장이 하와를 유혹해 죄를 범하게 한 것은 땅에서 따로 왕국을 세워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천사장이 보니 많은 것들이 자기 말을 따르고 있었다. 천사도, 땅의 사람도 모두 그의 말을 따르고 있었다. 땅의 날짐승과 길짐승, 나무, 숲, 산천 만물을 모두 사람, 즉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들도 천사장의 말을 따르고 있었다. 그때부터 천사장은 하나님의 권병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했으며, 나중에는 또 많은 천사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갖가지 더러운 귀신이 되게 했다. 인류가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은 천사장이 패괴시켰기 때문 아니더냐?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류를 패괴시켰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처럼 된 것이다. ... 지금 땅의 만물과 전 인류는 모두 사탄의 권세 아래 속하며,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누워 있다. 하나님은 만물에게 자신의 행사를 나타냄으로써 사람이 그를 알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치고 그의 원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자 한다. 이 모든 사역은 그가 나타내는 행사를 통해 이뤄진다. 모든 피조물이 사탄의 권세 아래로

돌아갔으므로 그는 피조물에게 자신의 전능을 나타냄으로써 사탄을 물리치려고 한다. 사탄이 없었다면 그의 행사를 나타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사탄의 방해가 없었다면 그는 인류를 만든 뒤 에덴동산에서 생활하도록 인도했을 것이다. 어째서 사탄이 배반하기 전에는 그가 천사나 천사장에게 자신의 행사를 전혀 나타내지 않은 것일까? 만약 처음부터 천사와 천사장이 그를 알고 그에게 순종했다라면 그런 무의미한 사역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탄과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내면에 패역한 성품만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행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사탄과 싸워야 하기에 자신의 권병과 모든 행사로 사탄을 물리쳐야 했다. 그렇게 사람 가운데서 하는 구원 사역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을 보여 준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너는 온 인류가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 알아야 한다> 중에서

『전 인류의 상공은 혼탁하고 어두워 맑은 느낌이 전혀 없으며, 인간 세상 또한 칙흑같이 캄캄해 거기서 살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고개를 들어도 햇빛을 볼 수 없다. 발밑의 길은 질퍽거리고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하며, 도처에 송장이 즐비하다. 어두컴컴한 구석에는 죽은 자의 백골이 가득하고, 음산한 모퉁이에는 온갖 귀신이 머물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도처에 귀신들이 출몰한다. 더럽기 그지없는 온갖 짐승의 후손들이 서로 참혹하게 싸우고 죽이니, 그 소리가 간담을 서늘케 한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상, 이러한 ‘인간 낙원’ 가운데 어디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겠느냐? 사람은 또 어디에서 인생의 종착지를 찾겠느냐? 이미 오래전에 사탄에게 짓밟힌 인류는 본래 사탄의 형상을 연기하는 존재이며, 나아가 사탄의 화신이자 사탄을 위해 ‘힘 있는 간증’을 하는 증거물이다. 이런 인류, 이런 인간 말종, 이런 ‘패괴된 인류 족속’의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내 영광이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내 증거는 어디서부터 논하겠느냐? 나와 맞서며 인류를 패괴시킨 그 원수는 내가 창조한, 내 영광과 나를 살아 내는 모습이 충만했던 인류를 더럽히고 또 내 영광을 빼앗아 갔다. 그것이 사람에게 한 일이라고는 사탄의 추태로 가득한 독소와 선악과의 과즙을 채워 넣은 것뿐이었다. 태초에 나는 ‘인류’를 창조하였다. 즉,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만들었다. 아담에게는 형상이 있었고 생기와 활력이 넘쳤으며 더욱이 내 영광이 함께했다. 그날은 본래 내가 사람을 창조한 영광의 날이었다. 이어서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생겨났다’. 그녀 역시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내가 창조한 사람은 나의 생기로 충만했고 나의 영광으로 가득했다. 아담은 내 손에서 ‘난’ 존재로, 본래 내 형상을 대표한다. 그렇기에 ‘아담’이란 본디 나의 활기가 넘치고, 나의 영광이 가득하며, 형태도 모양도 있고, 영과 생기를 갖춘 나의 피조물이란 뜻이었다. 또한 내가 창조한, 유일하게 나를 대표할 수 있고 내 형상을 지니고 나의 생기를 받은, 영이 있는 피조물이라는 뜻이었다. 한편, 하와는 내가 태초에 정해 놓았던, 두 번째로 지음 받은 생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와’란 내 영광을 이어 가고 나의 생기가 가득하며, 나아가 내 영광을 지닌 피조물이라는 의미이다. 하와는 본래 아담에게서 왔으므로 그녀에게도 내 형상이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내 형상대로 지음 받은 두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와’란 영이 있고 뼈와 살이 있는 산

사람이라는 의미로, 인류 중에 내 두 번째 증거이자 두 번째 형상이었다. 이들은 인류의 조상이면서 인류의 보배롭고 성결한 존재로, 본래 영이 있는 산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악한 자가 인류 조상의 자손을 짓밟고 약탈했으며, 나아가 인간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어 이 ‘후손’들이 더 이상 내 존재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더욱 혐오스러운 것은 그 악한 자가 사람을 패괴시키고 짓밟는 동시에 나의 영광과 증거, 내가 사람에게 준 생기, 내가 사람에게 불어넣은 숨결과 생명, 그리고 인간 세상의 내 모든 영광과 내가 인류에게 기울인 모든 심혈까지 무자비하게 빼앗아 갔다는 사실이다. 인류는 광명을 잃고, 내가 준 모든 것을 잃었으며, 내가 베풀어 준 영광을 버렸는데 어떻게 나를 피조물의 주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늘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또 땅에도 내 영광이 나타나고 있음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그들의 선조가 경외하던 하나님을 자신들의 창조주로 여길 수 있겠느냐? 뜻밖에도 이 가련한 ‘손자, 손녀들’은 내가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준 영광과 형상, 증거, 나아가 인류가 생존하도록 베풀어 준 생명까지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악한 자에게 ‘증여’하였다. 또한 그 악한 자의 존재를 조금도 개의치 않고 나의 이 모든 영광을 다 그것에게 주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말종’이라는 호칭의 유래 아니겠느냐? 이런 인류, 이런 악귀, 이런 산송장, 이런 사탄, 이런 원수에게 어떻게 나의 영광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나는 내 영광은 물론이고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나의 증거와 이전에 인류에게 베풀었던, 원래 내게 속했던 모든 것을 다시 빼앗아 올 것이다. 즉, 사람을 철저히 정복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내가 지은 사람은 본래 내 형상과 영광을 지닌 성결한 사람으로, 사탄에게 속하지도 짓밟히지도 않았으며, 오롯이 나를 나타내는 존재로서 사탄의 독소가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오로지 내 손으로 지은 사람이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본래 다른 것에 속하지 않은 성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게다가 나는 그런 사람을 나의 기쁨과 영광으로 여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은 사탄에 의해 패괴되고 오늘날 사탄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태초에 지은 그런 인류도 아니다. 나는 인간 세상의 내 영광을 빼앗아 올 것이므로 인류 가운데서 ‘요행히 살아남은 자들’을 철저히 정복함으로써 내가 사탄을 물리친 영광의 증거로 삼을 것이다. 나는 오로지 내 증거만을 나의 결정체로, 나의 기쁨으로 삼는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진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중에서

2) 인류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3 단계 사역의 근본 취지

관련된 하나님 말씀:

『나의 전체 경륜, 즉 6 천 년 경륜은 최초의 율법시대, 은혜시대(구속시대), 최후의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 총 세 시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나의 사역 내용은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각 단계의 사역은 모두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한 것이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사탄과 싸울 때 사탄이 꾸민 간계에 따라 행한 것이다. 이는 사탄을 물리쳐 나의 지혜와 전능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 사탄의 간계를 드러내 사탄의 권세하에서 살아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또 이는 나의 지혜와 전능을 나타내고, 추하기 그지없는 사탄의 물골을 드러내는 동시에, 나아가 피조물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었다. 즉, 나는 피조물로 하여금 내가 만물의 주재자임을, 사탄은 인류의 원수이자 변절자이고 악한 자임을 분명히 알게 하는 한편, 선과 악, 진리와 그릇된 이치, 거룩함과 더러움, 위대함과 비열함을 뚜렷이 구분하게 하려 했다. 나는 이 무지한 인류가 나를 증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인류를 패괴시킨 건 ‘내’가 아니며, 오직 창조주인 나 자신만이 인류를 구원하고 사람에게 누릴 것들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또한 내가 바로 만물의 주재자이며, 사탄은 창조된 후 배반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내가 6 천 년 경륜을 세 단계로 나누어 사역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피조물이 나를 증거하고, 나의 뜻을 깨달으며, 내가 진리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구속시대 사역의 실상> 중에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인류 창조 이후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리하고, 창세부터 은혜시대가 정식으로 시작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사역들을 행하였는지 간단하게 훑어보면서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찾아보기로 하자. 이를 토대로 하나님의 경륜 절차를 좀 훑어보면서 하나님의 경영 사역이 생기게 된 배경, 기원과 발전 과정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하나님이 경영 사역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 즉 하나님의 경영 사역의 핵심과 근본 취지도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이러한 내용을 알려면, 우리는 아득하고 고요한, 인류가 없던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하나님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을 때 첫 번째로 가졌던 생각은 바로 살아 있는 사람, 즉 살아 숨 쉬는 사람을 창조하여 그와 함께 생활하고, 그의 동반자가 되어 주며, 그의 곁에 함께하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 살아 있는 사람은 그의 말과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와 대화할 수도 있는 존재여야 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처음으로 친히 흙을 취해 마음속으로 그리던 첫 번째 살아 있는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살아 있는 존재에게 아담이란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렇게 살아 숨 쉬는 사람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 그는 처음으로 가족과 동반자가 생긴 즐거움을 느꼈고, 처음으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으며, 또 처음으로 염려하는 마음도 느끼게 되었다. 그 살아 숨

쉬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었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위안을 느끼게 해 준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생각이나 말씀이 아닌, 손으로 친히 행한 일이었다. 그런 생명체, 살아 숨 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뼈와 살이 있고 형상을 갖춘 데다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전에 경험해 본 적 없었던 즐거움을 처음으로 느꼈고, 진정으로 자신의 책임감을 느꼈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그 생명체에 대한 염려가 생겼다. 그러면서 또한 그 살아 있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감화를 받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그 생명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또 처음으로 그런 사람을 더 많이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는 하나님에게 첫 번째 생각이 들면서부터 생긴 일련의 일들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다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가 처음으로 행한 그런 일들로 인해 당시에 즐거움을 느꼈든, 책임감을 느꼈든, 아니면 사람에 대한 염려를 느꼈든, 그와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사람은 없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처음으로 전례 없던 외로움과 슬픔을 진정으로 느꼈다. 그는 사람이 그의 사랑과 염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의 마음을 받아 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여전히 슬프고 고통스러웠다. 그가 사람을 위해 일련의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전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기쁜 와중에도, 사람이 그에게 가져다준 즐거움과 위안은 어느새 여태껏 단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했던 슬픔과 외로움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당시 하나님의 심정과 생각이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의 마음은 즐거움에서 슬픔으로, 슬픔에서 아픔으로 변했으며, 아울러 초조함까지 어려 있었다. 그에게는 그런 사람, 그런 인류가 더 이상 그의 말씀을 대답 없이 듣기만 하는 사람, 그가 일할 때 어떻게 그와 협력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 더욱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도 전혀 무관심한 그런 인류가 아니라, 가능한 한 일찍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뜻을 깨달아 그를 따르는 사람, 그와 한마음 한뜻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 행한 일련의 일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지금의 인류에게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

하나님은 만물과 인류를 창조한 후에도 결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한시라도 지체할세라 그의 경영을 전개해 나갔고, 또한 한시라도 빨리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기뻐하는 자를 얻으려고 했다.

.....

...하나님은 인류를 경영하고 구원하는 이번 사업을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할 때 그저 생각으로만 하는 것도, 말로만 하는 것도, 더욱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도 아니라, 계획과 목적, 기준을 갖고 그의 뜻을 담아 이 모든 일을 한다. 이로써 하나님의 이번 인류 구원 사역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얼마나 중대한 의의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사역이 얼마나 어렵든, 이 사역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얼마나 크든, 인류가 얼마나 나약하든, 인류의 패역이 얼마나 깊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쁘게 움직이며 자신의 심혈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역을

경영하고 있다. 또한 모든 것을 안배하고, 그가 만들려는 모든 사람과 행하려는 모든 사역을 주재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례 없던 일이다. 하나님은 처음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이토록 큰 대가를 치르면서 인류를 경영하고 구원하는 큰 사업을 벌인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기울인 심혈과 지불한 대가, 자신의 소유와 어떠한, 자신의 지혜와 전능, 자신의 모든 성품을 남김없이 인류에게 조금씩 나타내고, 조금씩 공개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고 공개하는 것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전 우주에서 하나님이 경영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 이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웠던 적이 없었고,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질 못한다.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그가 경영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인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인류를 그 무엇보다도 중히 여긴다. 비록 그가 그런 인류를 위해 많은 대가를 치렀고, 또 그런 인류가 그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그를 거역할지라도, 그는 그 어떤 원망도 후회도 없이 여전히 사람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며 그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사람이 언젠가는 그의 말씀의 부르심에 깨어나고, 그의 말씀에 감동을 느끼며, 그가 바로 창조주임을 알게 되어 그의 곁으로 돌아올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무엇을 대가로 삼고 무엇을 목표로 하든지 간에, 그가 하는 사역의 근본 취지는 변하지 않는다. 이 근본 취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요구, 그리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이 보기에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절차에 따라 사람 마음에 심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명확하게 알며,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의 근본 취지 중 하나이다. 또 한편으로 사탄은 하나님 사역의 부각물이자 봉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사탄에게 넘겨진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사탄의 시험과 공격 속에서 사탄의 사악함과 추함과 비열함을 보게 함으로써 사탄을 증오하고 부정적인 것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은 점차 사탄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사탄의 참소, 교란과 공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순종,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심에 기대어 사탄의 공격과 참소를 완전히 이기면, 사람은 완전히 사탄의 권세에서 구출된다. 사람이 구출됐다는 것은 사탄이 패했다는 선언이며, 그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의 먹이도, 사탄이 삼키려고 하는 대상도 아닌 사탄이 포기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람은 정직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탄과 철저히 결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사탄에게 수치를 주고, 사탄의 간담을 서늘케 하며, 또한 사탄에게 완전한 실패를 안겨 준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경외심으로 사탄을 물리쳐, 사탄으로 하여금 그에 대해 확실히 손을 놓게 만든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최종 목표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하나님의 경영이란 이런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이고, 무엇이 창조주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어째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이런 인류를 사탄에게 내주어 사탄이 제멋대로 파괴시키게 한 뒤, 다시 사탄의 손아귀에서 단계적으로 빼앗아 옴으로써 인류가 완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탄을 저버릴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이다. 이는 어찌면 신화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어찌면 이해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사람이 이것을 신화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수천 년 동안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나아가 이 우주 궁창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생겨났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람의 육안으로는 이 물질세계 뒤에 숨어 있는 더 기묘하고 무서운 세계를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의의와 하나님의 경영 사역의 의의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인류를 원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류가 사탄에 의해 파괴되지 않은 아담과 하와 같은 인류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경영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는 인류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인류는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더 이상 사탄을 아비로 삼지 않고, 사탄의 추악한 몰골을 간파하여 저버린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고, 추함과 거룩함의 차이를 알며, 하나님의 위대함과 사탄의 사악함 역시 깨닫는다. 그런 인류는 더 이상 사탄을 위해 힘쓰지 않고, 사탄에게 절하지도 사탄을 섬기지도 않는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얻어진 인류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류 경영 사역의 의의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사람은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중에서

『하나님은 창조한 인류를 땅에 두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였으며, 또한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었다. 마지막에 그는 인류를 정복하고 철저히 구원하며 사람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역, 즉 사람의 원래 형상과 모습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행한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세우고 사람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킨다 함은 땅에서의 권병과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의 권병을 회복함을 의미한다. 사람은 사탄에 의해 파괴된 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피조물로서의 기능을 잃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수가 되었다. 사람이 모두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면서 사탄의 지배를 받기에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서 사역할 수 없었고, 피조물의 경외는 더더욱 받지 못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으므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을 경배하며 사탄을 마음속 우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리를 잃게 되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지은 의의를 잃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의의를 되찾으려면 반드시 사람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키고, 파괴 성품을 없애야 한다. 또한

사람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되찾아 오려면 필히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을 조금씩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 마지막에 패역한 자식들을 철저히 멸하는 까닭도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잘 경배하고 땅에서 더욱 잘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지은 이상 사람이 그를 경배하게 할 것이고, 사람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이상 불순물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도록 철저히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권병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그를 경배하고 순종하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의 원수가 모두 그의 권병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 남기며,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가 세우려는 나라는 그 자신의 나라이며, 그가 원하는 인류는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완전히 순종하며 그의 영광을 가진 인류이다. 패괴된 인류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가 사람을 지은 의의는 사라지고,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가졌던 권병은 없어질 것이며, 땅에는 더 이상 그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님을 거역한 원수들을 멸하지 않는다면 그는 완전한 영광을 얻을 수 없고, 땅에 그의 나라를 세우지도 못할 것이다. 인류 가운데의 패역자들을 철저히 멸하고 온전케 된 자들을 모두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그의 사역이 완성되고 그의 대업이 이루어졌다는 표징이다. 인류가 처음의 모습을 회복하고, 각자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며, 자신의 본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모든 안배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땅에서 그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얻고 그를 경배하는 나라를 세우게 된다. 또한 하나님이 땅에서 영원히 승리하고 그를 적대하던 자들이 영원히 멸망하면, 그는 처음에 사람과 만물을 지은 뜻을 회복하고, 땅에서 가졌던 권병과 만물 가운데서 가졌던 권병, 그리고 원수 가운데서 가졌던 권병도 회복하게 된다. 이것은 그가 완전히 승리했다는 표징이다. 그때부터 인류는 안식에 들어가 정상 궤도의 삶을 살 것이며, 하나님 또한 사람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땅의 더러움과 패역, 애곡 소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땅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며,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 그리고 그가 지은 만물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중에서

『지금까지 6 천 년에 걸쳐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행사도 많이 나타냈는데, 가장 주된 목적은 사탄을 물리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늘의 만물, 땅 위의 만물, 바닷속의 만물, 더 나아가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보여 준다. 또 사탄을 물리침으로써 그의 모든 행사를 사람에게 보여 주며, 사람들이 모두 그를 칭송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그의 지혜를 찬미하게 한다. 땅 위, 하늘, 바닷속의 만물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전능과 모든 행사를 찬미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외칠 것이다. 이것이 사탄을 물리치고 정복했으며 더욱이 인류를 구원했다는 증거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원수를 물리쳐 승리하고 돌아왔음을 찬미하며, 그를 가리켜 승리를 거둔 위대한 왕이라고 찬미할 것이다. 사탄을 물리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에 그의 사역이 6 천 년 동안 지속된 것이다. 하나님은 사탄을 물리침으로써 인류를 구원하고, 사탄을 물리침으로써 자신의 모든 행사와 모든 영광을 나타낸다. 그는 영광을 얻을 것이고, 모든 천사들이 그의 모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하늘의 사자, 땅의 인류, 땅의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가 하는 사역이다. 하늘과 땅의 피조물은 모두 그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는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해 돌아와 인류의 찬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일거양득의 사역이다. 결국에는 인류 전체가 그에게 정복될 것이며,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마지막에 모두 멸망될 것이다. 다시 말해, 사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멸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너는 온 인류가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 알아야 한다> 중에서

3) 율법시대 하나님 사역의 목적과 의의

관련된 하나님 말씀:

『태초에 인류를 창조한 후 이스라엘 사람을 사역할 기반으로 삼았고, 이에 모든 이스라엘 땅은 여호와가 땅에서 행하는 사역의 근거지가 되었다. 여호와가 행한 사역은 율법을 정해 직접 사람을 인도하고 목양함으로써 사람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여호와를 정상적으로 경배하게 하는 것이었다. 율법시대의 하나님은 사람이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였다. 그는 그저 처음 사탄에 의해 패괴된 사람을 인도하고 가르치며 목양하기만 했기에, 그가 말씀한 내용은 단지 율례와 법도, 그리고 사람됨에 대한 상식이었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진리는 아니었다. 그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은 사탄에 의해 깊이 패괴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가 행한 율법 사역은 구원 사역의 첫걸음이자 최초의 구원 사역으로, 사람의 생명 성품 변화와는 거의 관련이 없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 하나님의 직분과 사람의 본분의 구별> 중에서

『‘여호와’란 내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때 택한 이름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저주하며, 사람의 생활을 인도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하나님 선민)의 하나님이자, 크나큰 능력을 지닌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임을 의미한다. ... 다시 말해, 여호와만이 이스라엘 선민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이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족속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호와를 경배하였고, 그를 위해 제단에 제물을 드렸으며, 성전 안에서 제사장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들이 소망한 것은 여호와의 재현이었다. ... ‘여호와’란 이름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생겨난 고유한 이름이다. 각 시대, 각 단계 사역마다 내 이름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 대표적 의의가 있다. 즉, 각 이름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다. ‘여호와’는 율법시대를 대표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자신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을 일컫는 존칭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구주’는 이미 ‘흰 구름’을 타고 돌아왔다> 중에서

『하나님은 율법시대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인류를 인도하는 사역을 했고, 땅에서 첫 단계의 사역을 전개했다. 그 단계의 사역은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으며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은 땅에서 하나님이 사역할 근거지를 넓히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그 근거지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밖으로 사역을 확장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서 외부로 사역을 확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로 사람들은 점차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여호와가 천지 만물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스라엘 밖으로 사역을 확장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땅은 여호와가 땅에서 사역한 첫 성지이다. 하나님이 땅에서 처음으로 사역한 곳은 이스라엘 전역이었고, 그것은 율법시대에 한 사역이었다.』

『최초의 인류는 아무것도 몰랐기에 하나님은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인류의 생존 원칙과 생활에 필요한 규례들로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 주어야 했다. 이런 말씀의 규정들과 규례들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점진적으로 알아 가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 점차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거둔 다음에야 하나님이 그 이후의 사역을 점차적으로 행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율법시대의 이러한 규례들과 하나님이 행한 사역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의 기초 중의 기초이고, 하나님 경륜의 시작 단계 사역인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율법시대의 사역

(하나님 말씀 전편 발췌)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행한 사역은 하나님이 땅에서 할 사역의 발원지, 자신이 거할 성지를 인류 가운데 세우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역 범위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이스라엘 밖에서는 사역하지 않았는데, 사역 범위를 줄이기 위해 적합한 사람을 택했던 것이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곳이다. 여호와는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고, 그곳은 그가 땅에서 사역하는 근거지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아의 후손이자 아담의 후손이며, 여호와가 땅에서 사역하는 데 기반이 되는 사람들이기도 했다.

당시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의의와 목적, 그리고 절차는 온 땅에서 그의 사역을 펼치기 위함이었으며, 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방까지 사역을 확장하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점에서 면으로 확장하는 방식은 그가 온 우주에서 사역하는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확장하여 온 우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최초의 이스라엘 사람은 노아의 후손이었었는데,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여호와가 준 생기뿐이었다. 물론 의식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사람에 대한 그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으며, 창조주를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욱 알지 못했다. 규례나 율례가 있는지,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담의 후손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남편은 땀 흘려 일하며 가족을 건사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여호와가 창조한 인류를 위해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밖에 몰랐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생기와 생명만 가진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창조주를 흠족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아는 것이 너무 없었다. 그러므로 교활하거나 간사한 마음도 없고, 시기하거나 분쟁한 적도 매우 드물었지만, 창조주인 여호와에 대해서는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인류의 선조는 여호와의 것을 먹고 누릴 줄만 알았지, 여호와를 경외할 줄도, 여호와가 그들이 경배해야 하는 분인

줄도 몰랐다. 이런 자들을 어찌 피조물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여호와를 창조주이다.”, “그가 인류를 창조한 이유는 자신을 나타내고 영화롭게 하며, 대표하게 하기 위함이다.” 등의 말씀이 빈말이 되지 않겠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가 어찌 여호와의 영광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겠느냐? 어찌 여호와의 영광을 빛내는 존재가 되겠느냐? 그렇다면 사탄, 그 악한 자가 “나는 나의 형상대로 인류를 만들었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트집을 잡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한 것을 모욕하는 표시가 되지 않겠느냐? 여호와는 그 단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인류를 창조한 후,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어떤 지시나 인도도 하지 않았다. 그는 홍수로 세상을 멸한 후부터 노아의 후손이자 아담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을 본격적으로 인도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사역과 말씀으로 이스라엘 전역 모든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주었다. 나아가 여호와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그의 생명을 갖추게 하고, 사람을 흠에서 소생시켜 창조된 인류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불태우고 저주할 수 있고 그의 채찍으로 인류를 다스릴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낮과 밤의 시간에 맞춰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하고 사역함으로써 인류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도 보여 주었다. 여호와가 행한 사역은 그저 피조물로 하여금 사람은 본래 여호와가 땅에서 취한 흠에서 비롯되었으며, 또한 여호와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그가 먼저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이유는 이스라엘 외의 나라들과 족속들(사실은 이스라엘 외의 나라들과 족속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갈라져 나온 나라들과 족속들이다. 그들의 조상 역시 아담과 하와이다.)이 이스라엘을 통해 여호와의 복음을 받게 함으로써 온 우주 아래의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만약 여호와가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지 않고, 인류를 창조한 후 그들이 땅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했다면, 육적 본성(여기에서 본성이란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영원히 알지 못한다는 것, 즉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한 이유는 더더욱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킴)을 지닌 사람으로서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했다는 것도, 여호와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도 영원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한 후, 그들을 한동안 인도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전 인류는 무(無)로 돌아갔을 것이다. 아니, 인류뿐만 아니라 창조된 천지 만물까지 모두 무로 돌아갔을 것이며, 이 땅은 사탄에게 짓밟혔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여호와가 바라던 ‘이 땅, 그의 창조물 가운데서 설 자리, 즉 성지를 갖는’ 소망은 깨지고 만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한 후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고, 그들에게 말한 이유는 모두 자신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그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이유는 단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세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먼저 사역한 것은 만물을 창조한 것과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것은 다 그의 경영과 그의 사역,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인류 창조의 의의를 더 깊게 하기 위함이었다. 여호와는 노아 이후, 땅의 인류의 삶을 2 천 년 동안 이끌어 주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만물의 주인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여호와를 증거하고 순종하고 경외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윗과 여호와의 제사장들처럼 악기를 연주하며 여호와를 찬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호와가 2 천 년의 사역을 행하기 전까지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며 계속 타락해 갔다. 그리하여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 사람은 모두 음란하고 패괴되어 마음에 여호와가 없었으며, 그의 도는 더더욱 담아 두지 않았다. 그들은 여호와가 행하려는 사역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식견은커녕 이성조차 없던 그들은 그저 숨만 쉬는 기계 같아, 사람, 하나님, 만물, 생명 등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땅에서 독사처럼 유혹하는 일을 많이 했고, 여호와를 거스르는 말도 수없이 많이 했다. 하지만 그들이 무지했기에 여호와는 어떤 형벌도,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다만 홍수로 세상을 멸한 후 노아가 601 세가 되던 해에 정식으로 노아에게 나타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인도해 주었을 뿐이다. 즉, 여호와는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날짐승과 길짐승, 그리고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율법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끌어 주었는데, 그 기간은 총 2 천 5 백 년에 달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본격적으로 사역한 기간이 2 천 년이었고, 이스라엘 및 이스라엘 밖에서 동시에 사역한 기간이 5 백 년이었다. 두 기간을 합쳐 2 천 5 백 년이 되는 것이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자신을 섬기려면 성전을 짓고, 제사장 의복을 입어야 하며, 새벽부터 맨발로 성전에 들어가야 한다고 알려 주었다. 이는 그들이 신발로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혀 성전 위에서 떨어지는 불에 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 여호와의 안배에 순종했고, 성전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의 계시도 받았다. 다시 말해, 그들은 여호와가 말씀한 후에 백성들을 이끌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또한 여호와는 그들에게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아야 하며, 여호와의 때, 즉 여호와의 유월절에 미리 준비해 둔 초태생의 송아지와 어린양을 제단에 바쳐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고 알려 주었다. 이를 통해 그들을 단속하고,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했으며,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가늠했다. 이 밖에도 여호와는 그들을 위해 안식일을 정했다. 자신이 만물을 창조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을 첫날로 정했는데, 그날은 그들이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치고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미하는 날이었다. 그날이 되면, 여호와는 제사장들을 모두 소집하여 제단 위의 제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먹게 함으로써 여호와 제단 위의 제물을 누리도록 했다. 또한 여호와는 그들을 복이 있는 자, 자신과 더불어 분깃이 있는 자, 자신의 선민이라 했다(이것 또한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과 맺은 언약이었음).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여호와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율법시대에 여호와는 수많은 계명을 정했고 모세를 통해 그를 따라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포했다. 그 계명은 여호와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으로, 애굽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 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들에게 하는 여호와의 요구였다. 안식일을 지키는지, 부모를 공경하는지, 우상을 숭배하는지 등을 원칙으로 죄와 의로움을 판단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에게는 여호와의 불이 임했고, 어떤 이는 돌에 맞아 죽었으며, 어떤 이는 여호와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 것들은 모두 계명을 지켰는지에 따라 결정되었다. 일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었고, 제사장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돌에 맞아 죽어야 했다. 그것은 모두 여호와가 인정하는 바였다. 여호와가 계명과 율법을 정한 것은 사람의 삶을 인도하는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율법으로 갓 난 인류를 통제하는 것은 앞으로 행할 사역의 기초를 다지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행한 사역을 근거로 첫 시대를 율법시대라 부르는 것이다. 여호와는 수많은 말씀과 사역을 했지만, 사람을 긍정적으로 인도하기만 했다. 즉, 그 무지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고, 생활할 줄 알며, 여호와의 도를 깨닫도록 이끌어 준 것이다. 여호와가 행한 사역 대부분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도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준행하게 한 것이었다. 이는 파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므로 성품의 변화라든가 생명의 성장 등을 논할 수는 없다. 그는 다만 율법을 통해 사람을 단속하고 통제했을 뿐이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여호와는 단지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이자 하늘의 하나님이었으며, 구름 기둥이자 불기둥이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하라고 한 것은 오늘날의 사람이 알고 있는 율법과 계명뿐이었는데, 사실 그것은 규례라고도 할 수 있다. 여호와가 행한 사역은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이 갖춰야 할 것들을 많이 베풀어 주고 친히 알려 주기 위함이었다. 지음 받은 후, 사람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것들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호와는 사람이 땅에 살면서 갖춰야 할 것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으며, 그것을 통해 여호와의 인도를 받은 인류를 그들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보다 낮게 하였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베풀어 준 것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준 것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행한 사역은 단지 사람을 인도해 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를 인정하게 한 것뿐이다. 정복하는 것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라 그저 인도해 준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가 율법시대에 행한 사역의 전부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행한 사역의 배경이자 실상이며 본질이다. 또한 이는 모든 사람을 여호와의 수중에서 다스리는 6 천 년 경륜의 시작 사역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6 천 년 경륜에 더 많은 사역이 생겨난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중에서

4) 은혜시대 하나님 사역의 목적과 의의

성경 참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하려 하심이라”(요 3:17)

관련된 하나님 말씀:

『예수는 은혜시대의 모든 사역을 대표한다. 그는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또한 은혜시대를 열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 사역을 완성했고, 율법시대를 끝내고 은혜시대를 열었기에 ‘사령관’, ‘속죄 제물’, ‘구속주’라고 불린다. 그러므로 예수와 여호와가 행한 사역의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원칙은 동일한 것이다. 여호와는 율법시대를 열어 땅에서 사역할 근거지, 즉 발원지를 세웠으며 율법과 계명도 반포하였다. 이는 여호와가 행한 두 가지 사역으로, 율법시대를 대표한다. 한편 예수가 은혜시대에 행한 사역은 율법을 반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런 방식으로 은혜시대를 열면서 2 천 년간 지속된 율법시대를 끝냈다. 그는 은혜시대를 열러 온 개척자지만, 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니 뭐니 해도 구속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행한 사역 또한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새 시대를 연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 사역을 완성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떠났다. 그때부터 율법시대가 끝나고, 은혜시대가 시작되었다.

예수의 사역은 그 시대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 이뤄졌다. 그는 그의 사역에 따라 인류를 구속하고 사람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겸손, 인내, 사랑, 경건함, 포용, 긍휼 그리고 자비의 성품을 가져왔으며,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 그리고 온갖 누릴 것들을 베풀어 주었다. 사람이 누리는 모든 것은 평안과 희락이었고, 예수의 관용과 사랑이었으며, 그의 긍휼과 자비였다. 당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함, 영적인 위로, 예수에 대한 의존감 등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은 다 그들이 살던 시대와 관련이 있다. 은혜시대에 사람은 이미 사탄에 의해 패괴되어 있었다. 온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행하고 그 성과를 내려면, 반드시 풍성한 은혜와 한없는 포용, 인내, 나아가 사람의 죄를 충분히 사해 줄 수 있는 속죄 제물이 있어야 했다. 은혜시대의 사람은 죄를 사해 주는 속죄 제물, 즉 예수만 보았을 뿐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포용한다는 것만 알았으며, 그들이 본 것 또한 예수의 긍휼과 자비뿐이었다. 이는 다 그들이 은혜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구속되기 전에 반드시 예수가 베풀어 주는 수많은 은혜를 누려야 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들은 은혜를 누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가 베풀어 준 포용과 인내를 누림으로써 속죄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예수의 포용과 인내로 인해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자격을 얻었고, 그가 베풀어 준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예수가 ‘의인을 구속하려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속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하러 온 것’이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성육신한 예수가 심판과 저주의 성품을 지니고 와서 사람이 범하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영원히 구속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며, 영원히 죄에

속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6 천 년 경륜은 율법시대에서 정지되고, 그 상태로 6 천 년 동안 지속되면서 사람의 죄는 갈수록 많아지고 깊어졌을 것이고 따라서 인류를 창조한 의의도 사라졌을 것이다. 사람은 율법하에서만 여호와를 섬기게 되지만 인류의 죄는 최초로 지음 받은 인류의 죄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예수가 인류를 사랑하고 사람의 죄를 사해 줄수록, 사람에게 충만한 공훈과 자비를 가져다줄수록, 사람은 예수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더 생기고, 예수가 비싼 값을 들여 사 온 길 잃은 양이라 일컬어지게 된다. 반면 사탄은 그 사역에 끼어들 수 없다. 예수는 자애로운 어머니가 품속의 갓난아기를 대하듯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했기에, 노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대했다. 예수는 그들 가운데서 진노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들의 우매함과 무지함을 보지 않고 그들의 죄를 포용해 주었고 나아가 ‘사람을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그의 마음으로 감화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의 포용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구속시대 사역의 실상> 중에서

『성육신한 예수에게는 감정이 없었지만, 늘 제자들을 위로해 주고 공급해 주며, 도와주고 붙들어 주었다. 그는 많은 사역을 행하면서 수없이 고통을 겪었지만 사람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사람의 죄를 한결같이 인내하며 포용해 주었다. 이에 은혜시대 사람들은 그를 ‘사랑스러운 구주 예수’라고 친근하게 불렀다. 당시의 모든 사람이 본 예수의 소유와 어떠함은 공훈과 자비였다. 그는 사람의 과오를 기억하지 않았고, 그 과오를 갚대로 사람을 대하지도 않았다.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그는 늘 풍성한 음식을 베풀어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주었다. 사람들에게 그를 믿고,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진실함과 간절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 그는 심지어 썩은 시체를 살리기까지 하였다. 이를 통해 죽은 자도 그의 손에서 부활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처럼 그는 언제나 사람들 가운데서 묵묵히 참으면서 구속 사역을 행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속죄 제물이 된 것이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열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십자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자신의 공훈과 자비, 거룩함을 모두 인류에게 베풀어 준 것이다. 그는 언제나 관용으로 사람을 대하고 보복하지 않았으며, 사람의 죄를 사해 주고 회개하도록 가르쳤다. 또한 사람에게 인내와 포용과 사랑을 갖고, 그가 걸은 길을 걸으며, 십자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형제자매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마리아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었다. 그가 행한 사역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냄을 원칙으로 삼았는데, 이러한 사역은 모두 그의 구속을 위한 것이었다. 예수는 어디를 가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 가난한 자를 풍족하게 하고 앓은뱅이를 걷게 했으며, 눈이 먼 자를 보게 하고 귀가 먼 자를 듣게 했다. 심지어는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자, 즉 죄인을 멀리하지 않고 불러 모아 그들과 동석하며 늘 참아 주었다. 나아가 “목자는 양 백 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나머지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다닐

것이다. 그러다가 찾으면 몹시 기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기까지 했다.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자를 사랑하기를 어미 양이 새끼를 사랑하듯 했다. 우매하고 무지한 그들은 예수의 눈에 모두 죄인이었으며, 사회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는 도리어 남들이 무시하는 그 죄인들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겼다. 예수는 그들을 사랑했기에 제단에 바쳐진 어린양처럼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그들의 종이 된 것처럼, 그들에게 마음대로 사용되고 죽음 당할지라도 무조건 순종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사랑스러운 구주 예수였다. 하지만 그는 높은 곳에 서서 사람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은 긍휼과 사랑이 아닌, 혐오와 반감으로 대했다. 그가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행한 사역은 그리 많지 않았다. 때때로 훈계하고 질책했을 뿐, 그들 가운데서는 구속 사역을 행하지 않았고 이적과 기사도 행하지 않았다.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 그는 그 죄인들을 위해 끝까지 참고 십자가에 달려 온갖 모욕을 받은 후에야 온 인류를 완전히 구속했다. 이것이 그가 행한 모든 사역이다.

예수가 사람을 구속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계속 죄 속에서 살면서 죄의 자손과 귀신의 후손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온 땅은 사탄이 기거하고 살아가는 곳으로 변했을 것이다. 구속 사역을 행할 때는 반드시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했다. 그래야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최종적으로 온전케 되어 완전히 얻어질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그 단계의 사역이 없었다면, 6 천 년 경륜도 전개될 수 없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사람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기만 했다면, 사람의 죄는 온전히 사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땅에 와서 3 년 반 동안 사역하며 구속 사역의 반만 완수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 있는 육신의 형상이 되었고, 그 악한 자에게 넘겨진 후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고 인류의 운명을 주관했다. 그는 사탄의 손에 넘어간 뒤에야 인류를 속량할 수 있었다. 예수는 세상에서 33 년 반 동안 비웃음, 비방과 버림을 당했으며, 심지어는 머리 들 곳도 안식할 곳도 없이 고난을 겪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로 인해 온전한 자기 자신, 즉 거룩하고 무고한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온갖 고난을 다 겪었던 것이다. 집권자들은 그를 희롱하고 채찍질했으며, 병사들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말 한 마디 없이 끝까지 참으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속했다. 그리고 나서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가 행한 사역은 은혜시대만 대변할 뿐, 율법시대는 대변하지 못하며 말세 사역도 대신할 수 없다. 이것이 은혜시대에 예수가 행한 사역의 본질이며, 인류가 겪은 두 번째 시대인 구속시대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구속시대 사역의 실상> 중에서

『‘예수’란 본래 임마누엘을 가리키며, 자비와 긍휼이 충만한, 사람을 속량하는 속죄 제물임을 의미한다. 예수는 은혜시대 사역을 행했고 은혜시대를 대변하지만, 경륜의 일부 사역만 대변할 뿐이다. ... 오직 예수만이 인류의 구속주이고, 인류를 죄에서 속량한 속죄 제물이다. 다시 말해, 예수란 이름은 은혜시대에서 비롯되었고, 은혜시대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다. 또한, 은혜시대의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 생겨난 이름이고, 온 인류를 속량하기 위해 생겨난 고유한 이름이다. 그러므로 ‘예수’란 이름은 구속 사역과 은혜시대를 대표하는 이름이다. ... ‘예수’는 은혜시대를 대표하며, 은혜시대에 속량받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 이름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구주’는 이미 ‘흰 구름’을 타고 돌아왔다> 중에서

『예수가 당시에 행한 사역은 전 인류를 속량하는 것이었다.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를 믿기만 하면 속량받았고, 그를 믿기만 하면 죄에 속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것은 조금씩 벗어 버려야 한다. 구원을 얻었다 함은 사람이 예수에게 온전히 얻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속하지 않고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죄에 속하지 않게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사역 이상 2> 중에서

5) 하나님의 말세의 심판과 형벌의 사역이 진정 인류를 구원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역이다

성경 참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계 14:7)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벧전 4:17)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사 2:4)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찌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요 12:47~48)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 16:12~13)

관련된 하나님 말씀:

『예수는 인간 세상에 와서 율법시대를 끝내고 은혜시대를 열었다. 말세에 하나님은 다시 성육신하였으며, 이번 성육신은 은혜시대를 끝내고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를 열었다. 두 번째 성육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하나님나라시대로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직접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예수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수많은 사역을 했다. 그러나 그는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하고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되었을 뿐, 사람의 패괴 성품을 다 벗기지는 않았다.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하려면 예수가 속죄 제물이 되어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하여 사탄에 의해 패괴된 사람의 성품을 완전히 벗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은 후 다시 성육신하여 사람을 새 시대로 인도하고, 형벌과 심판의 사역을 시작했다. 이 사역은 인류를 더 높은 경지로 인도했다.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더 높은 진리를 누리고, 더 큰 축복을 얻고, 진정으로 빛 속에서 살며, 진리와 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서문> 중에서

『나는 여호와라고 칭한 적이 있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불린 적도 있다. 사람들은 나를 우러러 구주 예수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예전에 알던 여호와나 예수가 아니라, 말세에 다시 돌아와 시대를 끝내는 하나님이자 나의 모든 성품과 권병, 존귀, 영광을 가득 지니고 땅끝에서 나타난(원문: 興起) 하나님 자신이다. 사람은 나와

접촉한 적도 없고, 나를 알아본 적도 나의 성품을 안 적도 없으며,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나를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이가 바로 말세에 사람들 앞에 나타났으나 또 사람들 가운데 은밀히 거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는 사람들 눈앞에서 생생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는 마치 뜨거운 해 같고 불꽃 같으며, 능력이 충만하고, 권병을 가득 지니고 있다. 세상의 온갖 것이 나의 말에 심판받고, 불사름 속에서 정결케 될 것이다. 최후에 만국은 반드시 나의 말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도 하고 산산이 부서지기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말세의 모든 사람은 내가 바로 돌아온 구세주이고, 온 인류를 정복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내가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된 적이 있지만, 말세에는 또 만물을 불사르는 뜨거운 해와 같은 불꽃이자 만물을 드러내는 공의로운 태양이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말세에 행하는 사역이다. 내가 이 이름을 택하고 이런 성품을 지닌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이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뜨거운 해이자 불꽃임을 알게 하고, 유일한 참하나님인 나를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구속주만도 아니라, 천지와 바닷속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인 내 본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구주’는 이미 ‘흰 구름’을 타고 돌아왔다> 중에서

『마지막 사역은 말씀 사역이다. 사람은 말씀을 통해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지금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은 변화는 은혜시대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 얻은 변화보다 훨씬 크다. 은혜시대에 안수기도를 하면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갔지만 사람 안의 패괴 성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기는 했지만, 사람 안에 존재하는 사탄의 패괴 성품을 없애는 사역은 없었기에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받았을 뿐, 죄짓는 본성은 그대로 남아 사람 안에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사람 안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성육신 하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은 것이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로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고 죄성을 완전히 벗어 버리며, 죄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죄 사함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탄의 패괴된 옛 성품 안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사람을 사탄의 패괴 성품에서 완전히 구원해야 하며, 죄성을 완전히 벗겨 버리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게 하여 성품이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생명이 자라나는 길과 생명의 도, 성품이 변화되는 과정을 알게 해야 하고, 그 길을 따라 실행하게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성품의 변화를 받고 빛 비춤 아래에서 살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고, 사탄의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게 하며,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죄에서 완전히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가 사역할 때, 예수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여전히 막연하고 모호했다. 사람은 줄곧 그를 다윗의 자손으로 여겼고, 대선지자이자 사람의 죄를 속량하는 인자한 주님이라고 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았고, 소경도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죽은 자도 부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힌 사탄의 패괴 성품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것을 어떻게 벗어 버려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았다. 육체의 평안과 즐거움, 한 사람이 주를 믿으면 온 가족이 복을 받는 것, 병이 낫는 것과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 외에도 선행을 하고 경건한 겉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신자라고 불릴 자격이 있었다. 그런 신자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생전에 생명의 도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그저 죄를 짓고 자복하기만을 반복할 뿐, 성품이 변화되는 길은 없었다. 은혜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상태였다. 사람이 완전히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그 단계 사역이 끝난 후에 또 한 단계의 심판과 형벌 사역이 있는 것이다. 이 단계에는 말씀을 통해 사람을 정결케 하고 사람이 실행할 길을 얻게 한다. 이 단계에서도 귀신을 쫓아낸다면 아무런 성과도, 의미도 없을 것이다. 사람이 죄성을 벗어 버리지 못하고 그저 죄 사함을 받은 기초에만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속죄 제물을 통해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 십자가 사역이 끝났고 하나님이 사탄을 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 안에는 패괴 성품이 아직 존재한다.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인류를 얻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번 사역은 말씀으로 사람의 패괴 성품을 들추어내어 사람이 적합한 길을 따라 실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 단계 사역은 이전 단계의 사역보다 더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성과도 더 크다. 지금은 말씀으로 직접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사람의 성품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더 철저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성육신은 하나님이 성육신한 의의를 완전케 하였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확실히 완성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의 비밀 4> 중에서

『사람이 속량받기 전에 이미 사탄의 많은 독소가 사람 안에 심어져 있었다. 사람은 수천 년 동안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고, 내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것은 그저 속량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비싼 값을 치르고 사람을 사 온 것이다. 하지만 사람 내면에 있는 독성은 제거되지 않았다. 이렇게 더러운 사람은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을 섬길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심판하고 형벌하는 이번 단계의 사역으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더럽고 패괴된 본질을 완전히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자격이 주어진다. 오늘날 행하는 이 모든 사역은 사람을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말씀의 심판과 형벌, 연단으로 패괴를 벗겨 정결케 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정결케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편이 낫다. 사실 이번 단계 사역은 정복 사역이자 두 번째 구원 사역이다. 사람은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통해 하나님께 얻어지는데, 이는 말씀으로 연단하고 심판하고 들춰내며, 사람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 관념, 속셈 또는 개인적인 소망을 모두 드러내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의 비밀 4> 중에서

『이번에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형벌과 심판을 위주로 그의 성품을 나타내며, 이를 기반으로 사람에게 더 많은 진리를 가져다주고 더 많은 실행 방법을 알려 줌으로써 사람을 정복하고 구원하며 패괴 성품을 벗겨 버리는 목적을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나라시대 하나님 사역의 실상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서문> 중에서

『말세의 그리스도는 다방면의 진리로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의 본질을 폭로하며 사람의 언행을 분석한다. 그런 말씀에는 다방면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본분,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정상 인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 등등이 있다. 이런 말씀은 다 사람의 본질과 패괴 성품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는지를 폭로하는 말씀들은 사람이 원래 사탄의 화신이고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라는 점을 더더욱 겨냥해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는 심판 사역은 두세 마디 말로 사람의 본성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폭로하고 책망하며 훈계하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방식의 폭로와 책망, 훈계는 일반적인 언어로 대체할 수 없으며, 사람에게 전혀 없는 진리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어야 심판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심판이어야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으며,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탄복하고 하나님에 대해 진정으로 알게 할 수 있다. 심판 사역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알게 되고 패역의 진상에 대해 알게 된다. 심판 사역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사람이 알 수 없었던 비밀을 많이 이해하게 된다. 또한 사람의 패괴된 본질과 근원을 알게 되고, 사람의 추악한 몰골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사역 성과는 심판 사역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사실, 심판 사역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길과 생명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어 놓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는 심판 사역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그리스도는 진리로 심판의 사역을 한다> 중에서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대를 열고, 말씀으로 사역의 방식을 바꾸며, 말씀으로 전체 시대의 사역을 행한다. 이것이 말씀 시대에 하나님이 사역하는 원칙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각기 다른 위치에서 말씀함으로써 사람에게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기묘함을 보게 한다.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사람을 정복하고 온전케 하며 도태시키기 위한 목적을 더 잘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 시대에 말씀으로 사역하는 진정한 함의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알고, 사람의 본질을 알며, 사람이 진입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 시대에 행하려는 모든 사역을 이루는 한편, 사람을 드러내고 도태시키고 사람에게 시련을 준다. 사람은 말씀을 보고 들었기에 말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 나아가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게 된 것이다. ‘말씀’이라는 단어는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성육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천지를 진동시키고, 사람의 마음과 고정 관념, 그리고 옛 성품을 변화시켰으며, 온 세상의 낡은 면모를 변화시켰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말씀하며 사람을 구원한 분은 오직 오늘날의 하나님밖에 없다. 이로부터 사람은 말씀의 인도 아래에서 살고, 말씀의 양육과 공급으로 살게 되었다. 또한 말씀의 세계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의 저주와 축복 속에서 살게 되었으며, 더 많은 사람이 말씀의 심판과 형벌 속에서 살게 되었다. 이러한 말씀과 사역은 다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옛 창조 세계의 원래 모습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으며, 말씀으로 온 우주 사람을 인도하고 정복하고 구원하며,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옛 세상을 끝낸다. 이렇게 해야 전체 경륜의 모든 부분이 완성된다. 전체 하나님나라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역하고, 말씀으로 사역의 성과를 거둔다. 이적이거나 기사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사역한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양분을 얻고 공급을 받으며, 인식을 얻고 진실한 체험을 하게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나라시대는 말씀 시대이다>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사실 사람이 사탄을 저버리고 조상을 저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말씀의 심판은 사람의 패괴 성품을 들추어내고 사람에게 인생의 본질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한 차례 또 한 차례 계속되는 심판이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 모든 심판은 사람의 운명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여 사람이 그런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사람은 인생과 이 더러운 세상에 대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을 알게 되며, 사탄이 패괴시킨 인류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이렇게 형벌하고 심판할수록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찌를 수 있고, 사람의 영을 불러 깨울 수도 있다. 이런 심판의 목적은 아주 깊이 패괴되고 가장 심하게 속은 사람의 마음과 영을 깨우는 것이다. 사람에게에는 영이 없다. 다시 말해, 사람의 영이 이미 오래전에 죽어 하늘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며, 더욱이 자신이 죽음의 나락에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자신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 지옥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자신의 썩은 시체가 사탄에 의해 패괴된 후 죽음의 음부에 떨어진 존재임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지상 만물이 이미 인류에 의해 파괴되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오늘날, 창조주가 땅에 와서 구원 가능한 패괴된 사람들을 찾고 있음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온갖 연단과 심판을 겪었지만 사람은 시종일관 무감각하여 거의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사람은 너무도 타락하였다! 이러한 심판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자비한 우박과도 같겠지만 사람에게에는 가장 이로운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고 고해의 심연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며, 이렇게 사역하지 않으면 사람을 음부에서 건져 내기 힘들다. 사람의 마음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사람의 영이 사탄에게 짓밟혔기 때문이다. 극도로 타락한 너희들을 구원하려면 온 힘을 다해 불러 깨우고 심판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차디찬 너희의 마음을 깨울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온전케 된 사람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중에서

『시대를 끝내는 마지막 사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형벌과 심판으로 나타나며, 온갖 불의를 드러내어 만민을 공개적으로 심판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온전케 한다. 이런 성품이라야 시대를 끝낼 수 있다. 말세가 되었으니 만물은 각기 부류대로 나뉠 것이며, 각각의 성질에 따라 서로 다른 부류로 나뉠 것이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결말과 종착지를 드러내는 때이다. 사람이 형벌과 심판을 겪지 않는다면, 사람의 패역과 불의는 모두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만물의 결말은 오직 형벌과 심판을 통해서만 오롯이 드러나고, 사람은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만 본모습을 드러낸다. 사람은 악한 자는 악한 자끼리, 선한 자는 선한 자끼리 각기 부류대로 나뉠 것이다. 형벌과 심판을 통해 만물의 결말을 드러내어 상선벌악하며, 그리하여 만인이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게 한다. 이런 사역은 모두 공의로운 형벌과 심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이 극도로 패괴되었고 사람의 패역은 너무나 심해서, 오직 형벌과 심판을 위주로 하는, 말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만이 사람을 철저히 변화시키고 온전케 할 수 있으며 악을 드러낼 수 있다. 이로써 모든 불의한 자들을 강하게 징벌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사역 이상 3> 중에서

『하나님이 심판과 형벌의 사역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의 증거를 위한 것이다. 그가 사람의 패괴 성품을 심판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의 거스를 수 없는 공의 성품을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낡은 인식에서 새로운 인식으로 바꿀 수도 없다. 그의 증거와 그의 경영을 위해, 그는 자신의 전부를 사람들에게 공개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의 공개적인 현현으로 그를 알게 하고, 성품 변화를 이루며, 그를 힘 있게 증거하게 한다. 사람의 성품은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변화된다.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도 없다. 사람의 성품 변화는 사람이 이미 사탄의 속박과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 사역의 모델과 표본이 되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으며,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하며 사람들에게 한 요구는 바로 그를 알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증거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의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사역을 알라는 것이요, 사람의 고정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그의 모든 말씀과 사역에 순종하라는 것이요, 사람을 구원하는 그의 모든 사역과 사람을 정복하는 모든 행사를 증거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런 증거야말로 정확하고 실제적이며, 사탄을 수치스럽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의 심판과 형벌, 책망과 훈계를 겪고 그를 알게 된 자를 통해 그를 증거하게 한다. 그는 사탄에 의해 패괴된 자를 통해 그를 증거하게 하고, 성품 변화로 그의 축복을 받은 자를 통해 그를 증거하게 한다. 그는 사람의 입에 발린 찬양을 바라지 않고, 그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탄의 부류가 그를 찬양하고 증거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성품이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자격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고의로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중에서

『너는 무엇이 심판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이해했느냐? 만일 이해했다면 고분고분 심판받기를 권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기회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 이끌려 그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없을 것이다. 심판받기만 하고 끝까지 정결케 되지 못하는 자들, 즉 심판 사역에서 도망간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혐오받고 버림받을 것이다. 그들의 죄상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무겁고 더 많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하나님의 반역자이기 때문이다. 봉사할 자격조차 없는 그들은 더 무거운 징벌, 게다가 영원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입으로는 그에게 충성한다고 하면서 그를 배반하는 어떠한 변절자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다 징벌받는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성품의 발현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고 드러내는 목적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심판 기간 동안 많은 악행을 쌓은 사람을 악령이 득실거리는 곳에 두어 악령이 마음대로 그 육체를 훼손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육체에서는 시체 냄새가 진동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다. 하나님은 충성하지 않은 거짓 신자와 거짓 사도 그리고 거짓 일꾼들의 각종 죄상을 일일이 그들의 기록 책에 적어 두었다가 적합한 때에 그들을 더러운 귀신들 속에 던질 것이다. 더러운 귀신들이 마음대로 그들의 온몸을 더럽혀 영원히 환생하지 못하고 다시는 빛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한동안 봉사했지만 끝까지 충성하지 않고 외식한 자들을 악인들 가운데 두어, 악인들과 한 패거리인 오합지졸이 되게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그들을 멸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적이 없거나 작은 힘도 바친 적이 없는 자들을 한쪽에 내버려 두고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시대를 바꿀 때 모두 멸해 버릴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땅에서 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고 마지못해 건성으로 대한 자들은 백성들을 위해 힘을 쓴 사람들 속에 넣어 둘 것이다. 이들 중 적은 수만이 살아남을 것이며, 대부분은 봉사조차 제대로 못 한 자들과 함께 멸망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와 한마음 한뜻이 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들들 그리고 그가 제사장으로서 예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어갈 것이다. 이들은 다 하나님이 사역해서 얻은 결정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눈 부류에 속하지 못한 자들은 다 이방인의 행렬에 들게 된다. 그들의 결말이 어떨지는 너희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내가 할 말은 다 했으니, 어떤 길을 택할지는 너희들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도 기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공의 성품은 누구에게나 무정하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그리스도는 진리로 심판의 사역을 한다> 중에서

『열국 백성이 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때, 나는 즉시 하늘의 모든 풍요로움을 세상에 베풀어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더없이 풍요로워지게 할 것이다. 옛 세상이 존재할 때, 나는 열국에 크게 진노하고 온 우주에 공개할 행정을 반포할 것이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형벌에 처해질 것이다.』

내가 온 우주를 향해 말을 할 때 모든 이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즉, 온 우주 아래에서 행한 나의 모든 행사를 보는 것이다. 나의 뜻을 거스르는 자, 다시 말해 사람의 행위로 내게 맞서는 자는 나의 형벌 속에서 쓰러질 것이다. 나는 하늘의 못별을 모두 새롭게 바꿀 것이다. 나로 인해 해와 달도 새롭게 바뀌어 더 이상 예전의 하늘이 아닐 것이며, 땅의 만물도 새롭게 바뀔 것이다. 이는 나의 말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온 우주 아래의 열국을 다시 나누고, 나의 나라로 바뀌, 땅에 있는 나라를 영원히 소멸시키고 나를 경배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또한 땅에 있는 나라는 모두 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할 것이다. 온 우주 아래에 있는 사람 중 마귀에 속하는 자는 모두 멸함을 당할 것이며, 사탄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은 나의 불사를 속에서 쓰러질 것이다. 즉, 현재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종교계는 내가 만민을 형벌할 때 각각 다른 정도로 나의 나라로 돌아올 것이고, 나의 행사로 말미암아 정복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흰 구름을 탄 거룩한 자’가 이미 왔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각기 부류대로 나뉘지고, 각자의 행위에 따라 그에 맞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는 모두 멸망할 것이나 땅에서의 행위가 나와 관련이 없는 자는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땅에 존재하고, 아들과 백성들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만국 만민에게 나타나고, 땅에서 친히 음성을 발할 것이며, 나의 대업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여 모든 사람이 이를 직접 목도하게 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은 온 우주를 향해 한 말씀 · 제 26 편> 중에서

『말세에 심판과 형벌을 하는 사역, 즉 정결케 하는 마지막 사역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최후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정결케 되는 마지막 단계의 사역을 거친 후에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다. 마지막에 얻어지는 그들은 최후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형벌과 심판 사역은 본질이 인류를 정결케 하고 마지막 안식의 날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전 인류는 각기 부류대로 나뉘 수도,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 사역은 인류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중에서

6) 하나님의 각 단계 사역 간의 관계

관련된 하나님 말씀:

『여호와로부터 예수까지, 그리고 예수부터 이 단계의 사역까지 세 단계 사역이 이어져 오면서 하나의 완전한 경영이 되었는데, 이는 모두 한 분의 영이 행한 사역이다. 창세 이래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역하면서 인류를 경영하고 있다. 그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며, 시대를 펼치는 분이자 시대를 끝내는 분이다. 3 단계 사역은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한 분의 영이 행한 것임에 틀림없다. 3 단계 사역을 따로 갈라놓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역 이상 3> 중에서

『말세 사역은 3 단계 사역 중 마지막 단계 사역이자 새 시대의 사역으로, 전체 경영 사역을 뜻하지는 않는다. 6 천 년 경륜은 3 단계 사역으로 나뉘는데, 어느 단계든 한 부분만 대변할 뿐, 세 시대의 사역을 대변하지는 못한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대변할 수는 없다. 또 그가 율법시대의 사역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율법 아래의 하나님일 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호와라는 사람에게 율법을 제정해 주고 계명을 반포했으며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쌓게 했다. 그가 한 사역은 율법시대만 대변한다. 그가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게만 하는 하나님, 성전에만 거하는 하나님, 제단 앞에만 있는 하나님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율법 아래의 사역은 한 시대밖에 대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율법시대의 사역만 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거하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야 한다면 하나님을 규정할 것이다. 만약 은혜시대의 사역을 하지 않고 율법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사람은 하나님께 공홀과 자비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반대로 율법시대의 사역을 하지 않고 은혜시대의 사역만 했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속량하고 사람의 죄를 사해 주기만 하는 분이라고, 그는 거룩하고 무고한 분이며,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분이라고만 알았을 것이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 시대는 하나님의 성품 중 일부만을 대변한다. 율법시대를 대변하는 성품이 있고, 은혜시대를 대변하는 성품이 있으며, 이번 단계를 대변하는 또 다른 성품도 있다. 이 3 단계 사역을 종합해야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나타나며, 사람은 3 단계 사역을 알아야 비로소 전면적으로 알게 된다. 3 단계 사역 중에 어느 한 단계도 빠져서는 안 된다. 너는 3 단계 사역에 대해 알아야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율법시대의 사역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율법 아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구속 사역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인류를 속량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전부 사람이 규정한 것이다. 은혜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속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번 단계에서 하나님은 주로 말씀 사역을 한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공홀히 여긴 적이

없이 형벌과 심판만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말세의 사역은 여호와가 했던 사역, 예수가 했던 사역, 그리고 사람이 알지 못했던 모든 비밀을 사람에게 밝혀 주고, 나아가 인류의 종착지와 결말을 드러내며, 인류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구원 사역을 끝낸다. 말세 사역은 마무리하는 사역으로, 반드시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다 열어 분명히 깨닫고 완전히 알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각기 부류대로 나뉠 수 있다. 사람은 6 천 년 경륜이 끝난 뒤에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알게 된다. 그것은 그의 경영이 끝났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의 비밀 4> 중에서

『지금 하는 사역은 은혜시대 사역이 앞으로 나아간 것이자, 전체적인 6 천 년 경륜에 포함된 사역이 앞으로 발전한 것이다. 은혜시대는 끝났으나, 하나님의 사역은 앞으로 나아가며 깊이를 더해 가고 있다. 이 단계의 사역을 은혜시대와 율법시대의 기초 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오늘날의 사역은 은혜시대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율법시대 사역의 발전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 세 단계의 사역은 고리에 고리가 맞물리듯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 단계 사역을 예수가 행한 사역의 기초 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느냐? 예수의 사역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면 이번 단계에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앞 단계의 구속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러므로 사역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발전한 것이며, 이에 따라 지금의 사역 또한 예전보다 더 발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단계의 사역은 율법시대의 기초 위에, 그리고 예수가 이룬 사역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렇게 한 단계씩 세워진 것이지, 이 단계 사역이 따로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 세 단계의 사역을 종합해야 비로소 6 천 년 경륜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두 번의 성육신으로 성육신의 의의가 완전해지다> 중에서

『마지막 이 단계 사역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앞 두 단계 사역과 합쳐져 하나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3 단계 사역 중 한 단계 사역만으로는 구원 사역을 전부 완성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마지막 이 단계 사역으로 사람을 철저히 구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앞 두 단계의 사역 없이 마지막 단계 사역만으로 인류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3 단계 사역 중 어느 단계의 사역도 단 하나만 가져와서 온 인류가 유일하게 알아야 할 이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구원 사역은 총 3 단계로 이루어진 사역이지, 그중의 어느 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구원 사역이 하루라도 완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영은 절대로 끝날 수 없다. 하나님의 어떠함과 성품, 지혜는 모든 구원 사역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미리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의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구원 사역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 성품과 어떠함의 일부를 발현하는 것이지, 매 단계에 곧바로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을 완전하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3 단계 사역이 완성되어야 구원 사역이 모두 끝나는 이상, 사람이 하나님의 전부를 알아 가는 것 역시 3 단계 사역을 떠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한 단계 사역에서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부 사역에서 발현된 성품에 불과하므로 그 전이나 그 후에 발현된 성품과 어떠함은 대변하지 못한다.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은 한 시기나 한 장소에서 되도록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인류의 발전 상황에 따라 점차적으로 심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 사역은 한 단계씩 하는 것이지 한 단계에서 바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닌 모든 지혜의 결정체는 어느 한 단계가 아닌 3 단계 사역에 있다고 한다.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과 지혜는 3 단계 사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단계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있고, 하나님 사역의 지혜가 기록되어 있다. ... 이 3 단계 사역 중 각 단계의 사역은 모두 이전 단계 사역을 바탕으로 행한 것이지, 구원 사역 이외의 다른 사역을 따로 행한 것은 아니다. 시대나 사역의 내용이 크게 다를지라도 사역의 핵심은 변함없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구원 사역을 점차 심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3 단계 사역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중에서

『하나님은 전체 경륜의 사역을 모두 친히 행한다. 세상을 창조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친히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인류를 창조할 수 없는 것이다. 온 인류를 구속한 두 번째 단계도 하나님이 친히 한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끝을 맺는 사역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더더욱 그가 친히 해야 한다. 모든 인류를 속량하고, 정복하고, 얻고, 온전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신분을 대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도 없다.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 인류를 얻기 위해, 또 인류가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한다. 모든 경륜과 사역을 위해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행해야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사람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사람을 아름다운 종착지로 이끌어 간다> 중에서

『3 단계 사역은 하나님 한 분이 행한 것으로, 최대의 이상이자 하나님을 알아 가는 유일한 길이다. 3 단계 사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오로지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3 단계 사역은 시대도, 장소도 다르고, 행한 사역도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 한 분이 행한 사역이다. 이는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이상 가운데 가장 큰 이상이다. 사람이 이것을 철저히 깨닫는다면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3 단계 사역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중에서

7) 하나님은 3 단계 사역에 어떻게 깊이를 더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시는가?

관련된 하나님 말씀:

『전체 경영은 세 단계로 나뉜다. 하나님은 단계별로 사람에게 합당한 요구를 하는데, 시대가 달라지고 발전함에 따라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도 갈수록 높아진다. 그리하여 경영 사역도 점차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이 사실을 알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사람에게 대한 요구는 더 높아졌고, 사람에게 요구하는 증거 역시 더 높아졌다. 사람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협력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영광을 받는다. 사람의 협력은 바로 사람이 해야 하는 증거이고, 사람이 해야 할 증거는 바로 사람의 실행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이 상응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진실한 증거가 있을지는 사람의 협력, 증거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사역이 끝날 때, 즉 전체 경영이 모두 끝날 때, 사람은 더 높은 수준으로 증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이 종결될 때, 사람의 실행과 진입 또한 절정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과거에는 사람에게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고 인내하며 겸손해질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안배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 요구는 사람이 환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단계의 요구는 전체 경영에서 사람에게 단계적으로 제시되었다. 사역은 단계별로 더 깊어졌고, 사람에게 대한 요구도 단계별로 더 높아졌다. 전체 경영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사람에게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전 인류는 사탄의 권세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며, 나아가 사역이 완전히 끝날 때는 전 인류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게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실행> 중에서

『하나님은 창세 이후 그의 경영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경영 사역의 핵심이 바로 ‘사람’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의 경영 사역은 1 분 1 초나 눈 깜빡할 사이, 또는 1~2 년이 아니라 수천 년에 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해와 달, 각종 생물, 인류의 양식과 생활 환경 같은, 사람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더 많은 것들을 창조해야 했다. 이것이 하나님 경영의 시작이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인류를 사탄에게 내주었고, 그리하여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점차 하나님의 첫 번째 시대 사역, 즉 율법시대의 이야기가 생겨나게 되었다.... 율법시대가 이어진 수천 년 동안 율법시대의 인도에 익숙해지고 무심해진 인류는 차츰 하나님의 보살핌에서 멀어졌다. 그로 인해 율법을 지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보호가 사라졌고, 그들은 성전에서 제단을 지키며 생활할 뿐이었다. 사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들을 떠난 지 오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율법을 고수하며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는 자신들만이

여호와와 백성이자 선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조용히 그들을 버리고 떠났다....

.....

여호와와 율법시대 사역에 이어 하나님은 또 예외 없이 두 번째의 새 사역, 육신을 입는 사역을 시작했다. 즉, 성육신하여 사람으로 10 년, 20 년이란 오랜 시간을 보내며 신자들 가운데서 사역하고 말씀한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자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를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인정했다. ... 하나님의 두 번째 사역이 완성되었을 때, 즉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죄에서(사탄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오는 사역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인류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았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사람의 죄가 더 이상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고, 사탄이 사람을 참소하는 빌미가 되지 못했다. 하나님 자신이 실제적인 사역을 하고, 죄 있는 육신의 형상이 되어 미리 겪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속죄 제물이었다. 그렇게 해서 인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육신, 즉 죄 있는 육신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속량되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사탄에게 잡혀갔던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하나님께 구원받게 되었다. 당연히 이 사역은 율법시대보다 진일보하고 한층 더 깊어진 하나님의 경영이었다.

.....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는 더 현실적이지만 사람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사역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채찍이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면모 또한 사람에게 더 뚜렷하게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인류는 속량받은 뒤 정식으로 하나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편하게 누리며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인류는 오히려 하나님의 ‘호된 공격’을 받았다. 이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와 같은 세례를 ‘누려야’ 했다. 이런 대우를 받자 사람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가 비싼 대가로 사 온 양인데, 하나님은 어째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걸까? 설마 하나님이 그분 방식으로 나를 조롱하고 드러내시려는 걸까?’ 그렇게 수년을 겪으며 보냈고, 인류는 연단과 형벌의 고난을 통해 풍상고초를 다 겪어 본 사람으로 거듭났다. 비록 과거의 ‘광채’와 ‘낭만’은 잃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됨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사람을 구원한 그 고심을 알게 되었다. 사람은 차츰 자신의 야만성을 증오하는 한편, 길들이기 어렵고 하나님을 수없이 오해하며 하나님께 지나치게 바랐던 스스로를 증오하기 시작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지나간 일은 사람이 참회하는 기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은 사람이 새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사람은 날마다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몸이 건강해지면서 우뚝 일어나 전능자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줄곧 내 곁에 있었다. 그의 미소와 아름다운 얼굴은 여전히 그렇게 감동적이었다. 그의 마음은 늘 그렇게 자신이 만든 인류를 염려하고 있었으며, 그의 두 손은 늘 처음처럼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사람은 마치 에덴동산에 있던 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의 사람은 더 이상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더 이상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다. 또한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보며 가장 귀한 제물을 바친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람은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중에서

『예수가 행한 사역은 성경 구약의 사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에 불과했다. 그는 그것으로 한 시대를 개척하고, 한 시대를 이끌었다. 그는 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라고 했겠느냐? 하지만 그가 행한 사역에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인들이 실행한 율법이나 그들이 지켰던 계명과 다른 것이 수없이 많았다. 그는 율법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케 하러 왔기 때문이다. 완전케 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실제적인 것들이 포함된다. 그는 규례를 고수한 것이 아니라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으로 행하고 더 융통성 있게 행하였다. 이스라엘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때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가 말했듯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왔으니 그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는 구약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온 것이며, 율법을 바꾸기 위해 온 것이기도 했다. 오늘날의 사역은 완전히 지금 상황에 맞춰 행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여호와가 율법시대에 했던 사역을 기초로 하는 것이지, 그 범위를 초월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하고, 음란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 아니더냐? 지금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십계명에만 국한되지 않는, 예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계명과 율법이지, 그것들을 폐한 것이 아니다. 각 단계의 사역은 모두 이전 단계의 사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너희는 당시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것, 예를 들어 제사를 드리고, 부모를 공경하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남을 때리거나 욕하지 않으며, 간음하지 않고,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않으며, 죽은 것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는 것 같은 요구를 바탕으로 실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전 것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행하는 동안, 비록 이전의 율법을 언급하지 않고 너희에게 새로운 요구를 했다 할지라도, 이런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높아졌다. 폐해졌다는 것은 시대에 뒤처졌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부 계명은 영원히 지켜야 한다. 이전의 계명은 사람이 실천할 수 있게 되어 이미 사람의 어떠함이 되었다. 예를 들어, 금주와 금연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것을 바탕으로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과 너희의 분량, 그리고 지금 행하는 사역에 근거하여 다시 새로운 계명을 정하는 것이다. 새 시대의 계명을 반포하는 것은 옛 시대의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기초로 더 높이 끌어올려 사람으로 하여금 더 완전하고 실제적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계명과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데 국한되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하라고 한다면, 심지어 여호와가 정한

율법을 외우라고 한다면, 너희에게는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한계가 있는 몇 가지 계명을 지키거나 수많은 율법을 외운다고 해도 너희의 옛 성품은 여전히 깊이 뿌리박혀 있어 파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갈수록 타락할 수밖에 없으며, 아무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간단한 몇 가지 계명이나 수많은 율법은 너희가 여호와와 행사를 깨닫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외우기만 해도 여호와와 행사를 볼 수 있었으며, 여호와께 일편단심으로 충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너희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구약시대의 몇 가지 계명들은 너희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바치게 하거나 너희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너희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어 음부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내가 행하는 정복 사역은 오로지 너희의 패역과 옛 성품만을 겨냥한다. 그렇기에 여호와와 예수의 타이르는 말씀은 오늘날의 이 엄한 심판의 말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엄한 말씀이 없다면 수천 년 동안 거역해 온 너희, ‘전문가들’을 정복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구약의 율법은 너희에게서 효력을 잃은 지 이미 오래다. 오늘날 심판의 위력은 당시 율법의 위력을 훨씬 뛰어넘었다. 너희에게는 간단한 율법의 제약보다 심판이 가장 적합하다. 너희는 시초의 인류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패괴된 인류이기 때문이다. 지금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두 오늘날 사람의 실제 상태와 자질, 그리고 실제 분량에 근거한 것으로,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 너희의 옛 성품을 변화시키고 너희의 관념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역 이상 1> 중에서

『지금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도 십자가의 길이자 고난받는 길이지만, 실행하는 것과 오늘날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은 율법 아래 사람이냐 은혜시대 사람들과 크게 다르다. 오늘날 사람에 대한 요구는 예전과 다르며, 율법시대 사람들에게 했던 요구와는 더더욱 다르다.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때, 율법 아래 사람들에게 어떻게 요구했느냐? 그저 안식일을 지키고 여호와와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충분했다. 안식일이 되면 아무도 일하지 않았고, 누구도 여호와와 율법을 어길 수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안식일이 되어도 평소처럼 일한다. 예배를 해야 하면 예배하고, 기도를 해야 하면 기도하며, 조금도 통제받지 않는다. 은혜시대 사람들은 세례받고 금식하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발을 씻어야 했다. 지금은 이런 규례들을 모두 폐했고 사람에게 더 높은 요구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이 끊임없이 깊어지고 사람의 진입도 끊임없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예수가 안수기도를 했지만 지금은 말씀을 다 했는데 안수를 해서 뭐 하겠느냐? 말씀으로 직접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때는 안수로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의 병도 고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성령이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사역의 성과를 거둔다. 너희에게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알려 주었으니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말씀이 바로 그의 뜻이고 그가 하려는 사역이다. 그가 한 말씀을 통해 그의 뜻을 알고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안수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실천하면 된다. 어떤 이는 “안수를 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받을 분깃이 있도록 안수로 축복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이는

다 과거의 낡은 실행 방법이다. 시대가 바뀌었으므로 지금은 모두 없어졌다. 성령은 무턱대고 역사하거나 규례에 맞추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역사한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새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새 사역이 동반된다. 모든 단계의 사역이 다 그렇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지금까지 중복된 적이 없다. 은혜시대에는 예수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수기도를 하고, 사람에게 축복하는 사역을 적지 않게 행하였다. 오늘날에도 또 그렇게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때는 성령이 그렇게 했다. 은혜시대였기 때문에 사람은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어떤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이 믿기만 하면 은혜를 얻을 수 있었다. 누구든 지극히 선대했던 것이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하나님의 사역도 발전하여 형벌과 심판으로 사람의 패역과 사람 내면의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없앤다. 과거에는 속량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했다. 사람이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베풀어 주어야만 사람을 죄에서 속량하고 은혜로 죄를 사해 줄 수 있었다. 이번 단계는 형벌과 심판, 말씀의 채찍질, 말씀의 징계와 폭로로 사람 내면의 불의한 것들을 드러낸 뒤 구원받게 하는, 속량보다 더 깊어진 사역이다. 은혜시대의 은혜는 이미 사람이 충분히 누렸고 체험했으므로 더 이상 누리게 하지는 않는다. 그런 사역은 시대에 뒤떨어졌기에 이제는 하지 않는다. 지금은 말씀의 심판으로 사람을 구원한다. 사람이 심판과 형벌, 연단을 받아 성품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모두 내가 한 이런 말 때문이 아니겠느냐? 모든 단계의 사역은 전 인류의 발전 상황과 시대에 따라 행한다. 이는 다 의미 있는 사역이며, 최종적인 구원을 위한 것이다. 또 훗날 인류가 아름다운 종착지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사람을 각기 부류대로 나누기 위한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의 비밀 4> 중에서

『말세 사역에서 말씀의 위력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위력을 넘어섰으며, 말씀의 권병은 이적과 기사와 권병을 능가하였다. 말씀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패괴 성품을 다 들추어냈다. 너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어도 말씀으로 들추어내면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진심으로 탄복하게 된다. 이것이 말씀의 권병 아니겠느냐? 이는 모두 오늘날의 말씀 사역으로 얻은 성과다. 그러므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사람을 죄에서 완전히 구원할 수 없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람을 완전히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병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데 그친다. 하지만 사람의 육은 여전히 사탄에게 속하며, 사람의 내면에는 여전히 사탄의 패괴 성품이 남아 있다. 즉, 정결케 되지 못한 사람은 계속 죄에 속하고 더러움에 속한다. 오직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야만 하나님께 얻어지고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고 사람을 속량해 온 것은 그저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하나님께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정결케 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패괴된 사람이다. 사람의 내면에는 여전히 더러움이 남아 있고 대적과 거역이 남아 있다. 다만 속량받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할 수

있다. 사람이 속량받기 전에 이미 사탄의 많은 독소가 사람 안에 심어져 있었다. 사람은 수천 년 동안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고, 내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것은 그저 속량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비싼 값을 치르고 사람을 사 온 것이다. 하지만 사람 내면에 있는 독성은 제거되지 않았다. 이렇게 더러운 사람은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을 섬길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심판하고 형벌하는 이번 단계의 사역으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더럽고 패괴된 본질을 완전히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자격이 주어진다. 오늘날 행하는 이 모든 사역은 사람을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말씀의 심판과 형벌, 연단으로 패괴를 벗겨 정결케 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정결케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편이 낫다. 사실 이번 단계 사역은 정복 사역이자 두 번째 구원 사역이다. 사람은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통해 하나님께 얻어지는데, 이는 말씀으로 연단하고 심판하고 들춰내며, 사람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 관념, 속셈 또는 개인적인 소망을 모두 드러내는 것이다. 사람은 속량되어 죄 사함을 받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과오를 문제 삼지 않고 사람을 과오에 따라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하지만 사람이 육으로 살며 죄를 떨쳐 버리지 못하면 계속 죄를 짓고 사탄의 패괴 성품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사함을 받는 사람의 삶이다. 많은 사람이 낮에는 죄를 짓고 밤에는 죄를 자복한다. 이러면 속죄 제물이 사람에게 영원히 유효할지라도 사람을 죄악에서 구원할 수는 없다. 이는 구원 사역을 반만 완성한 것에 불과하다. 사람에게 여전히 패괴 성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신이 모압의 후손임을 알게 되었을 때 원망했고, 생명을 추구하지도 않았으며, 완전히 소극적으로 변했다. 이는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권세에 완전히 순종하지는 못한다는 뜻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사탄의 패괴 성품 아니겠느냐? 너는 형벌받지 않았을 때 누구보다 높이 손을 들었다. 심지어 예수보다도 더 높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기(知己)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죽을지언정 사탄에게 굴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탄을 내치겠습니다! 큰 붉은 용을 저버리겠습니다! 큰 붉은 용을 철저히 무너뜨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케 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크게 외쳤지만 결국 형벌 시대가 오자, 사람의 패괴 성품은 또 드러났다. 사람은 외치지도 않았고 의지도 없어졌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패괴로, 죄보다 더 깊고, 사탄이 사람 안에 심어 놓은,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들이다. 사람의 죄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는 본성을 사람은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말씀의 심판을 통해 성과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이 그때부터 차츰 변화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의 비밀 4> 중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은 3 단계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사탄과의 싸움은 3 단계로 나뉘며, 이를 통해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게 된다. 하지만 사탄과 싸우는 모든 사역의 실상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되며, 사람의 죄를 사해 주고, 사람을 정복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등의 몇 단계 사역을 통해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탄과의 싸움은 사탄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의 생명을 만들고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다. 즉, 사람의 패괴 성품을 변화시켜 사탄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사탄을 물리치고 나면, 그러니까 사람을 철저히 구원하고 나면 수치당한 사탄을 단단히 결박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완전히 구원받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의 본질은 사탄과 싸우는 것이고, 사탄과의 싸움은 대부분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구현된다. 사람을 정복하는 최종 단계 사역은 사탄과 싸우는 마지막 사역, 즉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하는 사역이다. 사람을 정복한다는 것은 사탄에 의해 패괴된 사탄의 화신을 정복하여 창조주에게 돌아오게 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사탄을 저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면 철저히 구원받게 된다. 그러므로 정복 사역은 사탄과 싸우는 마지막 사역이자 사탄을 물리치는 마지막 단계의 경영이다. 이 단계의 사역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사람을 완전히 구원할 수도, 사탄을 완전히 물리칠 수도 없으며, 인류는 영원히 아름다운 종착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으면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도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 경영 사역의 핵심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과 패괴로 사람은 사탄에게 속박당해 악한 자의 손아귀에 떨어졌다. 이로 인해 사탄은 경영 사역에서 물리칠 대상이 되었다. 사탄이 사람을 점령했고, 사람은 또 전체 경영의 밑천이기에 사람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와야 한다. 즉, 사탄에게 사로잡혀 간 사람을 다시 빼앗아 와야 한다. 그러려면 사람의 옛 성품을 변화시켜 본래 이성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사탄을 물리쳐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로잡혀 간 사람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다. 사람이 사탄의 권세와 결박에서 벗어나면 사탄은 수치를 당한다. 결국 사람을 빼앗아 오고, 사탄은 패하게 된다. 사람은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남으로써 모든 싸움의 전리품이 되겠지만, 사탄은 싸움이 끝난 후에 징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사역도 끝을 맺게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사람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사람을 아름다운 종착지로 이끌어 간다> 중에서

8) 하나님의 3 단계 사역이 인류를 구원하는 완전한 사역임을 알아야 한다

3 단계 사역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하나님 말씀 전편 발췌)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은 총 세 단계로 나뉜다. 이 세 단계의 사역에는 창세 사역이 포함되지 않으며, 율법시대의 사역과 은혜시대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의 사역만 포함된다. 창세 사역은 온 인류를 탄생시키는 사역이지 구원하는 사역이 아니며, 인류의 구원과 무관하다. 창세 때의 인류는 사탄에 의해 패괴되지 않았기에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행할 필요가 없었다.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은 인류가 사탄에 의해 패괴된 뒤에야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 또한 인류가 패괴된 뒤에야 시작된 것이다. 즉, '경영'은 구원 사역의 시작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지, 창세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은 아니다. 경영 사역은 인류가 패괴 성품을 갖게 된 후 비로소 생겨났다. 그러므로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에는 세 부분만 포함되며, 네 단계나 네 시대가 존재할 수는 없다. 이야말로 정확한 설명이다.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 경영 사역은 이미 모두 끝났다. 경영 사역이 끝났다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이 이미 완전히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인류는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이 없다면 경영 사역은 물론, 3 단계 사역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인류가 타락한 데다가 구원이 시급한 상태였기에 여호와와 창세 사역을 끝내고 율법시대의 사역을 시작했다. 이로써 비로소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 즉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이 시작된 것이다. '인류를 경영한다'는 말은 막 창조된(패괴되지 않은) 사람이 땅에서 살도록 인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 패괴된 인류를 구원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패괴된 인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류 경영'에 내포된 뜻이다. 창세 사역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은 창세 사역을 제외한 3 단계 사역만 포함한다.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에 대해 알려면 반드시 3 단계 사역의 역사(歷史)를 알아야 한다. 이는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피조물로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인류가 패괴된 기원을 알고, 나아가 인류가 구원받는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몇몇 규례만을 지키며 하나님의 환심을 살 생각만 할 뿐,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지, 인류가 패괴된 기원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피조물로서 부족한 부분이다. 실행할 수 있는 일부 진리를 알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경영 사역의 큰 범주 안에 있는 일들을 하나도 알지 못하면 너는 너무 교조적이다. 3 단계 사역은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의 실상이자 온 세상에 임한 복음이며, 온 인류의 가장 큰 비밀이자 복음 전파의 근거이다. 네가 외곬으로 너의 생명과 관련된 간단한 진리만 알고자 하고, 이 가장 큰 이상(異象)과 비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면, 너의 생명은 빛 좋은 개살구와 다름이 없지 않겠느냐?

사람이 실행만 중시할 뿐,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기와 한 장 아끼다가 대들보를 썩히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알아야 할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실행해야 할 것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리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언젠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공의롭고 위대하시며 지고지상하신 분이다. 그 어떤 위인도 하나님과는 견줄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다.”라며 중요하지 않은, 입에 발린 소리나 하면서 중요하고 실질적인 말은 전혀 꺼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며, 또한 진리를 명확하게 교제하지도 못하고 다른 이들의 내면에 부족한 것도 공급해 줄 수 없다면, 이는 본분을 잘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너는 먼저 진리와 깨달아야 할 이상을 갖춰야 한다. 네가 하나님 사역에 관련된 각 부분의 이상과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인식을 갖추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도, 공의로운 심판이나 연단이 임해도 가장 큰 이상을 기반으로 하여 알맞게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든 그 근본 취지와 사역의 중심, 사람을 향한 뜻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그의 말씀이 아무리 엄하고 환경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그가 사역하는 원칙과 사람을 구원하는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결말과 종착지를 드러내는 기간이 아니라면, 또 마지막 사역이나 전체 경륜을 끝내는 사역을 하는 기간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 가는 기간이라면, 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는 사역의 중심은 언제나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너희 믿음의 토대여야 한다. 3 단계 사역의 근본 취지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다시 말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인류를 완전히 구원하는 것이다. 3 단계 사역은 각 단계마다 목적과 의의가 서로 다르지만 다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의 일부이다. 그것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다르므로 각기 다른 구원 사역을 행한 것이다. 네가 3 단계 사역의 근본 취지를 알면 각 단계 사역의 의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또 어떻게 실행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있을지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가장 큰 이상은 곧 하나님에 대한 네 믿음의 토대가 된다. 너는 일부 간단한 실행이나 심오한 진리만 추구해서는 안 되며, 실행과 이상을 결합해야 한다. 실행 부분의 진리도 갖추고 이상 부분에 대한 인식도 갖춰야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전면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다.

3 단계 사역은 전체 경영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함이 모두 3 단계 사역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3 단계 사역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되는 방식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사역하는 지혜도 모르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다양한 방식과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모른다. 3 단계 사역은 인류 구원 사역을 오롯이 나타내므로 3 단계 사역을 모르면 성령이 역사하는 다양한 방식과 원칙도 알 수 없다. 한 단계 사역에서 남겨진 규례만을 고수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규례에 국한하는 자들이자 막연한 신앙 속에 있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3 단계 사역만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구원의 전 과정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사탄을 물리치고 인류를 얻은 증거이자 하나님이 승리한 증거이며,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의 발현이다. 3 단계 사역 중 한 단계의 사역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성품의 일부만 알 뿐이다. 그나마 알고 있는 그 한 단계도 사람의 관념 속에서 규례로 변질되어 하나님을 규정하기 쉽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일부 성품으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대체하고, 거기에 자신의 상상까지 가득 뒤섞어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함, 지혜와 사역의 원칙을 유한한 범위에 단단히 국한시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번 그리한 것은 영원히 그러할 것이며, 영세까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오직 3 단계 사역을 알고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알 수 있으며, 최소한 하나님을 이스라엘인의 하나님이나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적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한 단계 사역으로만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얕은 그야말로 백사장의 모래 한 알과도 같다.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원로 종교가들이 왜 하나님을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하나님을 한 범주 안에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 아니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지식과 이치로 성령의 역사를 가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들은 체험이 알팍하면서도 천성이 교만하고 방종하여 성령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고 성령의 징계를 등한시한다. 또 자신의 미약하기 짝이 없는 낡은 이치로 성령의 역사를 '입증'하고, 스스로 학식이 높다고 믿으며 온 세상을 주름잡을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린다. 그런 자는 모두 성령께 혐오받아 버림받는 자이자 새 시대에 도태되는 자임을 어찌 알지 못한다 말이나?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모두 알팍한 지식으로 경망을 떠는 소인배들 아니냐? 얼마 되지 않는 성경 지식으로 세상의 '학술계'를 휘어잡으려 하고, 겨우 사람이나 가르칠 수 있는 보잘것없는 이치로 성령의 역사를 돌려세우려 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무르려는 야심을 품으며, 좁은 안목으로 하나님의 6 천 년 사역의 풍모를 한눈에 다 꿰뚫어 보려고 한다. 그런 자에게 무슨 이성이 있다고 하겠느냐!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역을 쉽사리 평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현재 사역에 대한 인식을 좀 말할 뿐 함부로 단정 짓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하고 분수를 모르며, 또한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 실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론만 멋대로 떠벌릴 뿐이다. 이런 사람은 가장 무가치한 자이다. 성령의 역사를 아이들 장난으로 치부하는 사람은 모두 경박한 자들이다! 이들은 성령의 새 역사를 마주하고도 신중하게 대하기는커녕 함부로 지껄이고 멋대로 평가하며, 자기 성미대로 성령 역사의 정확성을 부인하고, 모욕적인 말과 모독도 서슴지 않는다. 이렇게 오만불손한 자들은 모두 성령 역사를 알지 못하고, 천성이 거만하며 방자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 자는 언젠가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용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을 나중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한다. 그러니 그런 악당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사함 받지 못할, 영원히 지옥에 멸할 대상이다. 그 오만하고 방종한 자들은 또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는 간판을 내건 사람들이다. 그런 자들일수록 하나님의 행정을 더 쉽게 거스른다. 천성적으로 방종하고 복종할 줄 모르는 교만한 자들은 모두 그런 길을 가지 않더냐? 모두가 이렇게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지 않더냐? 오늘날 3 단계 사역의 중요성을 알라고 하는 것에 대해 너희는 이해해야 한다. 내가 하는 말은 단순한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말 타고 쫓구경하듯 한다면 나의 심혈이 헛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모두 자신의 본성을 알아야 한다. 언변이 뛰어나고, 이치적인 문제는 거침없이 대답하는 많은 사람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못한다. 너희는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언행이 경망스러우며, 옛 성품을 고치지 않는다. 자신의 추구 방법을 바꿔 더 높은 진리를 얻으려 하지는 않고 대부분 그저 되는대로 살아갈 뿐이다. 그런 자가 어찌 끝까지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럭저럭 때우면서 길 끝까지 간들 너희에게 또 어떤 유익한 점이 있겠느냐? 일찌감치 생각을 바꿔 진심으로 추구하든 하루빨리 물러나든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시간을 끌어 봤자 밥이나 빌어먹는 기생충이 될 뿐이다. 너희는 그 저속하고 비열한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냐?

3 단계 사역은 하나님이 행한 모든 사역과 인류 구원의 실제 기록이지, 지어낸 것이 아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행한 3 단계 사역을 알아야 하며, 한 단계도 빠트려서는 안 된다. 이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인식이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앎은 사람이 스스로 지어내거나 생각해 내는 것이 아니며, 성령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는 결과는 더더욱 아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면서 얻은 앎이자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을 체험한 후에야 생겨나는, 하나님에 대한 앎이다. 이런 앎은 아무렇게나 얻을 수 있는 것도, 누군가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완전히 개인의 체험과 관계되는 일이다. 이 3 단계 사역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지만 이 구원 사역에는 또 여러 가지 사역 방식과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발견하기 가장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것이다. 시대가 나뉘고, 사역이 달라지고, 사역의 장소와 대상이 바뀌는 등등은 모두 3 단계 사역에 포함된다. 특히 성령 역사의 방식 차이,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 이름, 신분 또는 다른 변화들은 모두 3 단계 사역 안에 있다. 한 단계의 사역은 그저 한 부분만 대변하고 한 범주에만 국한되기에 시대의 구분은 물론, 사역의 전환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다른 부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3 단계 사역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전체 사역이다. 사람은 구원 사역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알아야 한다. 이 사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아 간다는 것은 근거 없는 헛소리이자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그런 앎은 사람을 설득할 수도, 정복할 수도 없으며, 실정에 맞지도 않고 진리도 아니다. 설령 네가 아는 것이 많고 게다가 다른 이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앎이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의 앎을 칭찬하기는커녕 그를 모독한 죄를 물어 보응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앎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네 언변이 뛰어나

청산유수 같은 말로 죽은 것을 산 것으로 둔갑시킬 수 있고, 산 것을 죽은 것이 되게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앎을 얘기할 때면 너는 바로 문외한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네가 마음대로 평가하거나 칭찬할 수 있는 분도, 네가 마음대로 폄하할 수 있는 분도 아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라도 칭찬할 수 있지만, 적당한 단어로 하나님의 ‘크나큰 은덕’을 함부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모든 실패자의 깨달음이다. 수많은 언어 전문가들이 하나님을 한바탕 묘사할지라도 그 묘사의 정확성은 오히려 언어가 풍부하지는 않지만 체험이 풍부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설명하는 진리의 1%밖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앎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성과 실제에 있는 것이지, 언어의 교묘함이나 단어의 풍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사람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나님을 알아 가는 이 공과는 인류의 그 어떤 자연 과학을 배우는 것보다 높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지, 재능이 있다고 해서 모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추구하는 일을 개구쟁이 어린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어찌면 너는 가정이나 사업 또는 결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을 수도 있지만, 진리와 하나님을 알아 가는 이 공과에서는 백지상태로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너희에게 있어 진리 실행은 큰 난제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너희의 애로 사항이자, 모든 인류의 애로 사항이다. ‘하나님을 아는’ 이 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사람 가운데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 도대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른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인류의 난제이자 가장 큰 수수께끼로서 그 누구도 답하지 못하고, 또 답하기를 원치 않는 문제이다. 인류 중 지금까지 이 일을 연구하여 성과를 거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어찌면 ‘3 단계 사역’의 수수께끼가 인류에게 공개되고 나면 하나님을 아는 인재들이 잇달아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게다가 지금 그 사역에 착수하고 있다. 나는 머지않은 장래에 이러한 인재가 더 많이 나와 3 단계 사역의 증인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길 바란다. 다시 말해, 그들이 3 단계 사역을 증거하는 창시인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그런 인재, 즉 성육신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온전케 된 사람이 없거나 한두 명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정말 가슴 아프고 애석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어쨌든 나는 진심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은 천고에 없었던 사역이고, 인류 발전의 역사에서도 없었던 위업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창시인이 된다면, 그것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영광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이 바로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피조물 아니겠느냐? 이 사역을 이루기는 쉽지 않겠지만, 마지막이 되면 성과를 거둘 것이다. 성별이나 국적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가장 높은 영광을 받는 사람이자 유일하게 하나님의 권병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사역이자 이후의 사역이고, 6 천 년 사역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루려는 최고의 사역이며, 또한 각 부류의 사람을 드러내는 사역의 방식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사역을 통해 각 부류 사람들의 등급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약속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 자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나 약속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기(知己)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지기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지기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든 다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기가 아니라면 그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없다. 환난이든 연단이든 심판이든 모두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마지막에 거두어야 할 유일한 성과이다. 3 단계 사역을 모두 공개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 하나님을 더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모든 사역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행한 사역은 사람이 알아야 할 이상(異象)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모두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단계 사역은 하나님 경영의 전부이자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가장 큰 이상이다. 사람이 이 가장 큰 이상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아 가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어려우며, 또한 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사람에게 이상이 없다면 오늘날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상이 사람을 오늘날까지 지켜 주었고, 이상은 사람에게 최대의 보호막이 되었다. 너희는 앞으로도 더욱 깊이 알아 가야 한다. 3 단계 사역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뜻과 그의 지혜로운 사역의 본질을 알아야만 그것이 너희의 진실한 분량이 된다. 마지막 이 단계 사역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앞 두 단계 사역과 합쳐져 하나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3 단계 사역 중 한 단계 사역만으로는 구원 사역을 전부 완성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마지막 이 단계 사역으로 사람을 철저히 구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앞 두 단계의 사역 없이 마지막 단계 사역만으로 인류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3 단계 사역 중 어느 단계의 사역도 단 하나만 가져와서 온 인류가 유일하게 알아야 할 이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구원 사역은 총 3 단계로 이루어진 사역이지, 그중의 어느 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구원 사역이 하루라도 완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영은 절대로 끝날 수 없다. 하나님의 어떠함과 성품, 지혜는 모든 구원 사역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미리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의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구원 사역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 성품과 어떠함의 일부를 발현하는 것이지, 매 단계에 곧바로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을 완전하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3 단계 사역이 완성되어야 구원 사역이 모두 끝나는 이상, 사람이 하나님의 전부를 알아 가는 것 역시 3 단계 사역을 떠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한 단계 사역에서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부 사역에서 발현된 성품에 불과하므로 그 전이나 그 후에 발현된 성품과 어떠함은 대변하지 못한다.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은 한 시기나 한 장소에서 되도록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인류의 발전 상황에 따라 점차적으로 심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 사역은 한 단계씩 하는 것이지 한 단계에서 바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닌 모든 지혜의 결정체는 어느 한 단계가 아닌 3 단계

사역에 있다고 한다.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과 지혜는 3 단계 사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단계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있고, 하나님 사역의 지혜가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3 단계 사역에서 하나님이 나타낸 모든 성품을 알아야 한다. 이 어떠함은 온 인류에게 실로 중요하기 그지없다. 사람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그런 사람은 불상을 경배하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행한 사역은 모두 사람들에게 공개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3 단계의 구원 사역을 행한 이상, 사람은 이 3 단계의 사역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춘 것은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고 알아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개한 것이라면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자 갖춰야 하는 것이다. 이 3 단계 사역 중 각 단계의 사역은 모두 이전 단계 사역을 바탕으로 행한 것이지, 구원 사역 이외의 다른 사역을 따로 행한 것은 아니다. 시대나 사역의 내용이 크게 다를지라도 사역의 핵심은 변함없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구원 사역을 점차 심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각 단계 사역은 모두 이전 단계의 사역을 폐하지 않은 기초에서 계속 이어진다. 이로써 하나님은 늘 새로운 사역을 통해 사람에게 드러낸 적 없는 성품을 계속 나타내고, 언제나 그의 새로운 사역과 어떠함을 공개한다. 원로 종교가들이 극력 대적하고 공개적으로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그가 해야 할 더 새로운 사역을 한다. 하나님의 사역은 늘 바뀌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의 반대에 부딪힌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시대, 사역 대상도 언제나 바뀐다. 또한 하나님은 항상 이전에 행한 적이 없던 사역을 행하며, 심지어는 사람이 보기에 이전과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사역도 행한다. 사람은 모두 한 가지 사역과 한 가지 실행만 받아들일 뿐, 그것과 대립되거나 그것보다 더 높은 사역이나 실행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그러나 성령은 언제나 새로운 사역을 한다. 그로 인해 새로운 사역에 대적하는 종교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들이 ‘전문가’가 된 까닭은 바로 하나님이 ‘늘 새롭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역 원칙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식은 더더욱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역인지, 하나님 자신이 행한 사역인지, 사람에게서는 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많은 사람이 과거의 견해와 맞으면 받아들이고, 과거의 사역과 다른 점이 있으면 반대하거나 거절하는 태도를 고수한다. 지금까지 너희의 원칙은 다 이런 것 아니었느냐? 구원 사역의 3 단계 사역은 너희에게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앞 두 단계의 사역을 그야말로 알 필요가 없는 짐으로 여기며 그것이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알리지 말고 속히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많은 사람이 앞 두 단계 사역을 공개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긴다. 이것이 너희의 관점이다. 지금 너희는 모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지만, 언젠가는 내가 행한 사역의 중요한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의미 없는 사역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3 단계 사역을 모두 너희에게 공포한 이상, 그것은 분명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 3 단계 사역이 전체 경영의 핵심인 이상, 반드시 전

우주 아래의 모든 사람이 다 눈여겨보게 될 것이며, 언젠가 너희 모두 이 사역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적하거나 자신의 관념으로 오늘날의 사역을 판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 원칙을 모르기 때문이며, 또한 성령의 역사를 너무 건성으로 대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관념과 태생적인 교만, 그리고 너무도 패역한 천성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감히 공개적으로 성령 역사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이야기하며, 또 성령의 새 역사가 있는 사도들을 훈계하고 이래라저래라 불손하게 말하니, 참으로 저급한 인성이요, 이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자들은 언젠가 성령 역사에 의해 버려지고 지옥의 불에 불살라질 대상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평가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며 지휘할 생각까지 하는데, 이렇게 비이성적인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사람은 모두 찾고 구하며 체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제멋대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줄어든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쉽게 대적한다. 너의 관념과 옛 성품, 인성, 품성, 도덕 사상은 모두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밀천’이다.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품성이 악랄하며 인성이 저급한 사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원수인 것이다. 관념에 심각하게 사로잡힌 자와 성품이 독선적인 자는 성육신 하나님의 원수로, 이런 부류의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네가 관념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관념은 영원히 하나님과 적대될 것이며,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어긋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앎은 낡은 관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생기지만, 낡은 앎이 꼭 낡은 관념인 것은 아니다. 관념이란 사람이 혼자 상상하는,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말한다. 낡은 앎이 옛 시대에서도 이미 뒤쳐진 데다 사람이 새로운 사역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그런 앎은 관념이다. 그러나 사람이 그런 앎을 정확하게 대할 수 있고, 다양한 면에서 하나님을 알아가 새것과 옛것을 결합할 수 있다면, 그 낡은 앎은 오히려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새 시대로 들어가는 밑바탕이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공과에서 너는 수많은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에 들어설 수 있을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 할지, 어떻게 관념과 옛 성품을 벗어 버리고 새 사역의 모든 안배에 순종해야 할지,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공과에 진입한다면, 너의 앎은 갈수록 깊어질 것이다. 네가 3 단계 사역, 그러니까 전체 경륜의 사역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앞 두 단계의 사역을 현재에 연결 지어 한 분의 하나님이 행한 사역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너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될 것이다. 3 단계 사역은 하나님 한 분이 행한 것으로, 최대의 이상이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3 단계 사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오로지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3 단계 사역은 시대도, 장소도 다르고, 행한 사역도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 한 분이 행한 사역이다. 이는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이상 가운데 가장 큰 이상이다. 사람이 이것을 철저히 깨닫는다면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각 종교 각 교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며, 어떤 것이 성령 역사고 어떤 것이 성령 역사가 아닌지 분별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이번 단계의 사역이 앞 두 단계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한 것인지 더더욱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따르면서도 이 길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사람은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는 길인지, 말씀이 육신 된 것이 사실인지 걱정한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이런 사실들을 분별하기 위한 실마리가 별로 없다. 따르는 사람이 도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면 그 도는 그런 사람에게 일부 효과만 낼 뿐, 100%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의 생명 진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람이 3 단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세 단계의 사역을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했음을 깨닫는다면 사역의 내용은 서로 다를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하나님 한 분이 행한 사역인 이상, 분명 어떤 오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한 분이 한 일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이 행한 사역임을 확신한다면, 사람의 관념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사소한 것이 된다. 이상에 대해 불분명하기에, 즉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주라는 것만 알 뿐, 오늘날의 성육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에, 많은 사람이 여호와와 사역과 예수의 사역에 미련을 둔 채 오늘날의 사역에 대해 수많은 관념을 갖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늘 마음을 놓지 못하고 오늘날의 사역을 진지하게 대하지 못한다. 사람은 볼 수 없는 앞 두 단계 사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념도 없다. 그것은 사람이 앞 두 단계 사역의 실정을 전혀 모르고, 또 직접 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볼 수 없기에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이다. 사람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상상하든 입증할 수 있는 사실도, 바로잡아 줄 이도 없었다. 사람이 자신의 성향대로 대담하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지라도 입증할 사실이 없었기에 그 상상은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실'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머릿속으로 자신이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을 뿐, 실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신앙을 갖고 있다면 백 사람이면 백 가지 신앙을 갖고 있다. 사람에게 이런 신앙이 생겨난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역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단지 귀로만 들었을 뿐 눈으로 보지는 못했기 때문이며, 전설과 이야기로만 들었지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에 대한 인식은 거의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1년 믿은 사람은 물론, 하나님을 한평생 믿은 사람 역시 관념 속에서 믿고 있는 것이다. 사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관념적 신앙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사람은 모두 자신은 이미 낡은 관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지에 들어갔다고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모두 관념이자 떠도는 소문이라는 것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사람은 모두 자신의 관념이 정확하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여겼지만, 오늘날 이 사역을 마주하면서 오랫동안

지녀 온 관념을 분출하게 되었다. 지난날의 상상과 생각이 이번 사역의 장애물이 되었건만 사람은 모두 이 관념들을 내려놓기 어려워하고, 이전의 생각들을 뒤엎기도 힘들어한다. 오늘날까지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은 한 걸음씩 진행되는 이 사역에 대해 관념이 점점 심해져 성육신 하나님과 풀기 어려운 원한을 맺게 되었다. 그 원한의 근원이 바로 사람의 관념과 상상이다. ‘사실’은 사람이 멋대로 펼치는 상상을 용납하지 않으며 사람이 제멋대로 뒤집으려는 것은 더더욱 용납하지 않는다. 반면 사람은 관념과 상상 때문에 존재하는 사실을 용납하지 않으며, 사실의 정확성과 진실성은 무시한 채 한결같이 자신의 관념만 분출하고 상상의 나라만 펼친다. 이렇게 사람의 관념과 상상은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오늘날의 모든 사역과 원수가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한 단계는 고사하고 조금도 뒤엎을 수 없다.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은 사람의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는다. 너는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고, 심지어 여호와와 예수 사역의 정수를 모아 편찬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와 예수가 행한 사역의 사실들을 뒤엎지는 못한다. 이것은 원칙이자 행정이다. 너희는 모두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은 이번 단계 사역은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지만 앞 두 단계의 사역은 잘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앞 두 단계의 사역은 절대 지금처럼 이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역 원칙은 모두 똑같고, 그의 사역은 어쨌든 다 실제적이며, 어느 시대의 사역에서든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무리가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느냐? 오늘날 이 단계 사역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는 분명 이전에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3 단계 사역을 하나님 한 분이 행한 사역으로 여기고, 또 자신의 관념을 버릴 수 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진실로 따르는 사람이다. 전체 경영이 끝날 때 하나님은 만물을 각기 부류대로 나눌 것이다. 사람은 창조주의 손에서 창조되었으므로 마지막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3 단계 사역의 종결이다. 이스라엘과 유대에서 행한 앞 두 단계의 사역과 말세의 사역은 곧 전 우주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이므로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이다. 사람은 많은 사역을 체험하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사실은 사실이니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전 우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 3 단계 사역을 받아들일 것이다. 네가 어느 한 단계 사역만 알 뿐, 나머지 두 단계 사역과 과거의 하나님 사역을 알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전체 경륜의 모든 실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알 뿐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자격이 없다. 지금 이러한 것에 대해 깊게 알든 얕게 알든, 결국 마지막에는 너희가 모두 깨닫고 철저히 인정할 것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전체 사역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면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고,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의 권세 아래로 돌아와 이 참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며, 모든 사교가 사라져 더는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어째서 늘 3 단계 사역을 언급하겠느냐? 시대의 변천과 사회의 발전, 자연의 변모는 모두 이 3 단계 사역의 변화에 따라 바뀐 것이다. 인류는 하나님이 행한 사역에 따라 바뀔 뿐, 스스로 발전하지 못한다. 3 단계 사역을 언급하는 이유는 모든 피조물과 각 종교 각 교파, 각계의 인사들이 다 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네가 어느 교파에 속하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와 순종해야 한다. 이 사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으며, 그 어떤 교주도 행하지 못한다. 세상이 몇 개의 큰 종교로 나뉜다고는 하나 종교마다 교주와 통솔자가 있고, 따르는 사람 또한 지구상의 서로 다른 국가와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한 국가에도 여러 종교가 존재한다. 대국이든 소국이든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나라가 그러하지만, 세계 각지의 종교 종류가 얼마나 되든 결국 전 우주의 모든 사람은 한 분의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종교의 교주나 통솔자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인류를 이끄는 이는 어느 교주나 통솔자가 아니라 천지 만물과 인류를 창조한 창조주이다. 이는 사실이다. 세상에는 몇몇 큰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가 얼마나 크든 모두 창조주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며, 그 어떤 종교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인류의 발전과 사회의 교체, 자연 과학의 발전은 다 창조주의 안배를 떠날 수 없다. 이 사역들은 어느 한 교주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주는 어느 종교의 통솔자일 뿐, 하나님을 대표하지도,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를 대표하지도 못한다. 교주는 그 교파의 모든 인사를 통솔할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통솔할 수는 없다.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교주는 통솔자일 뿐이므로 하나님(창조주)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 만물은 창조주의 수중에 있기에 마지막에는 모두 창조주의 수중으로 돌아올 것이고, 인류는 본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기에 어느 교파든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인 추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 가운데 지극히 높은 분이므로 피조물 중의 최고 통치자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사람의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한들 인류를 적합한 종착지로 인도할 수 없고, 누구도 만물을 각기 부류대로 나눌 수 없다.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하여 각기 부류대로 나뉘었으니 마지막에도 그가 자신의 사역을 행하여 만물을 각기 부류대로 나눌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대신하지 못한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한 3 단계 사역은 모두 하나님 자신이 한 것이고, 또한 한 분의 하나님이 행한 것이다. 3 단계 사역의 사실은 하나님이 전 인류를 인도한 사실이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3 단계 사역이 끝나면 만물을 각기 부류대로 나누고 모두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전 우주 위아래에 오직 이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며 다른 종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을 창조할 수 없는 자는 세상을 끝낼 수 없고, 세상을 창조한 이는 틀림없이 세상을 끝낼 수 있다. 그러므로 시대를 끝낼 수도 없으면서 다른 이에게 심신을 수양하고 교양을 쌓으라고만 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도, 인류의 주인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자는 이처럼 큰 사역을 하지 못한다. 이 사역을 행하는 이는 오직 한 분뿐이며, 이 사역을 행할 수 없는 자는 분명 하나님이 아닌 원수이다. 사교(邪教)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다. 모든 사역은 다 이 참하나님 한 분이

행하고, 온 우주도 다 이 하나님 한 분이 주관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든 중국에서 사역하든, 영으로 사역하든 육신으로 사역하든, 모두 그 자신이 행한 것이며 그 누구도 대신하지 못한다. 그는 전 인류의 하나님이기에 그 어떤 조건의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이상이다.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사역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야 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사역하는 모든 의미까지 깨달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합당한 자격을 가진 피조물이 아니다! 피조물로서 자신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인류의 역사(歷史)와 하나님의 모든 사역도 모르며, 더욱이 인류가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 누가 전 인류를 다스리는지도 모른다면, 본분 이행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 하나님은 인류를 오늘날까지 인도해 왔고, 땅에서 사람을 창조한 이래로 사람을 떠난 적이 없다. 성령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사람을 인도하며 한시도 사람과 떨어진 적이 없으나,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일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친히 사람을 인도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깨닫지 못한다. 피조물인 네가 자신의 역사(歷史)를 모르고, 자신이 걸어온 여정을 누가 이끌어 주었는지도 모르며, 하나님이 행한 사역도 모른다면,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직도 모른다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증인이 될 자격이 없다! 오늘날 창조주가 또 친히 모든 사람을 이끌어 주면서 그의 지혜와 전능, 구원과 기묘함을 보여 주었는데도 결국 네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너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 아니겠느냐? 사탄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내가 하는 말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는, 도태될 대상이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알지 못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자는 모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거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은 3 단계 사역이 모두 끝날 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만들 것이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인성과 이성을 갖춘 사람들이고, 3 단계의 구원 사역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는 마지막에 이루려는 사역이다. 그들은 6 천 년 경영 사역의 결정체이자 최후에 사탄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병을 지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마지막에 살아남을 자들이다. 너희 모두가 이 사람들 중의 일원이 될 수도 있고, 절반 혹은 몇 명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는 너희의 의지와 추구에 달려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복음 웹사이트

<https://kr.kingdomsalvation.org>



웹사이트



APP

YouTube : <https://www.youtube.com/godfootstepsko>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kingdomsalvation.kr>

Twitter : https://twitter.com/godfootsteps_kr

KakaoStory : <https://story.kakao.com/ch/cagchurch>

Naver Blog : <http://blog.naver.com/godfootsteps>

Email : contact.kr@kingdomsalvation.org